산머루가 익어가고 넉넉한 시골인심이 있는 객현리 산촌마을

◈ 객현리 산촌마을 연락처

- **파주시청 공원과(☎ 031-940-4613)**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 1리**
- **마을이장(☎ 011-9725-6091), 법인대표(☎ 010-8880-6572)**
- **홈페이지 : http://wildgrape.invil.org, E-mail : pjkjd2580@hanmail.net**

◈ 감악산 자락 산머루 익어가는 향기 가득한 객현리 산촌마을

객현리 산촌마을이 속해 있는 적성면은 행정구역상 연천군에 속했었던 곳이었으나 1945년 남면과 함께 현재의 파주시에 편입되었다. 적성면은 면적이 86.39㎢에 달하는 지역으로 16개 법정리로 이루어져 있고 객현리 산촌마을의 행정구역상 이름은 객현리로 불리어진다.



감악산에서 내려다 본 객현리 전경

객현리는 1개 법정리, 3개 자연부락(상백운, 하백운, 천앙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의 뒷산인 감악산은 심학산, 북악, 관악, 송악산과 함께 경기 오악으로 손꼽히는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 2001년에는 약 50가구 60여명의 마을주민이 거주하였으나 10년이 지난 2011년 현재, 107가구 284명으로 증가하였다. 인구의 증가는 산촌개발 사업의 효과도 다소 있지만 파주시의 교하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을 인하여 농축산업 종사자가 마을로 많이 유입된 것에 기인한다. 마을의 인구구성은 40~50대가 약 90명, 40대 이하가 30명으로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은 마을이다.

객현 산촌마을은 파주시 전체면적 682.5㎢ 중 86.39㎢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26%의 농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산간 지역으로 시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육 및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다. 하지만 임진강과 감악산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 환경오염이 전혀 없는 청정지역으로 산 정상에 오르면 비무장지대의 생태와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적성면 객현리가 산촌지역이기는 하나, 도농복합형마을로 다소 도시적 성격이 강하며, 문산에서 전곡으로 통하는 국도가 마을 어귀에 있고 남북을 달리는 지방도로가 있어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여 농산물의 집산지를 이룬다. 객현리 산촌마을은 8년 전 유일한 교육기관인 용운초등학교마저 폐교된 산간지역이다.

◈ 녹색관광과 산머루재배 활성화를 위한 산촌개발사업의 추진

객현리 산촌마을의 특산물인 산머루는 맛과 향이 뛰어나 도시지역에서 인기가 높아 마을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다. 1980년부터 시작한 산머루재배는 마을주민들의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익어가는 산머루 열매

2000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중소농고품질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산머루가 경기도 지정 특화작목(산머루재배 단지조성(2ha)-경기도 지원)이 되면서 마을은 본격적으로 산머루재배를 추진하였다. 또한, 2000년 산촌의 녹색관광을 통한 소득의 제고와 산머루재배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으로 산촌개발사업 추진을 구상하고 마을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1년에 시작된 산촌개발사업은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머루재배의 확대, 산채 및 표고버섯과 같은 부산물을 재배·생산하고 산촌녹색관광센터(체험센터 1동, 산막 7동- 단독 3동, 원룸 4동 등)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의 방문과 체류 및 체험 위주의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4년 사업이 완료되면서 마을은 마을길 정비와 각종 부대시설이 설치되면서 아름다운 산촌마을로 탈바꿈하고 있다.

사업이 확정된 후 마을에서는 산촌녹색관광센터 대신에 개인소득을 위한 재배시설 요구가 많았으나, 개발위원회 중심으로 마을회의를 통하여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마을소득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의 필요성에 대하여 마을주민들을 설득하고 일부 사업 내용은 양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단독산막 전경

산촌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산채재배와 표고재배 시설은 2007년까지 마을에 소득을 발생시켰으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못하고 2008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였다.

2004년 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촌영농조합법인(5인 출자, 1,000만원/1인)을 구성하였으며 현재까지 법인이 마을은 운영·관리하고 있다. 산촌녹색관광센터에서 1년에 2억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운영비로 약 1억5,000만원(인건비-1억원, 시설 리모델링-5,000만원)을 활용하고 있다. 수익의 일부는 마을기금으로 적립이 되며,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시설의 비품, 집기 등에 대한 구입비로 활용하였다.

객현리 산촌마을 김정대 개발위원장은 녹색관광센터는 2층의 시설로 계획되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1층 시설로 신축하게 되었다고 한다. 10년의 세월이 지나 체험객과 숙박객의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금, 그 당시 녹색관광센터를 2층 시설로 짓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또한, 마을의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체험시설의 운영(숙박과 음식판매)이었다. 법적제도권 내에서 시설을 활용한 영업은 그러한 일을 해보지 못한 산촌마을 주민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이며 향후에도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애로사항을 토로하였다.

◈ 사업의 성공적 운영과 마을발전의 시작점이 된 산촌개발사업

객현리 산촌마을은 산머루재배와 축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가구 수가 50가구 이상이며 산머루재배를 주로 하던 농가가 현재는 블루베리 재배로 대체되고 있다. 2009년에 작목반이 구성되어 약 30가구가 재배를 하고 있다.

마을의 산촌개발사업의 성공요인은 비교적 젊고 유능한 마을 40대 청년층의 마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이다. 또 다른 성공요인으로는 감악산을 찾는 많은 등산객과 서울, 고양, 인천 등에서 마을로 접근이 용이한 지리적 접근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마을의 소득이 증대되고 마을로 유입되는 가구 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2008년 객현리 산촌마을은 산림청에서 주관한 산촌마을 경영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체재형 주말농장 크라인가르텐

객현리 산촌마을은 산촌개발사업에 이어 정보화마을(2004년), 팜스테이마을(2005년), 체제형 주말농장 크라인가르텐(2009) 등의 사업을 통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 도시민들에게는 마음의 고향과 같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산촌마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을의 대표적인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산머루 수확체험이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머루주(즙), 담그기 체험, 솟대 만들기 체험이 있으며, 도예공방 체험은 사계절 가능하고, 2009년에 마을의 폐교를 임대하여 개장한 파주치즈스쿨이 마을에 있어, 다양한 체험을 즐기기 위한 방문객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마을의 발전을 위한 마을이미지를 산머루로 브랜드화 하였으며 경기도와 파주시의 지속적인 연계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머루 수확체험



산머루엑기스 담그기 체험



목공예 솟대 만들기 체험

◈ 감악산 숲속 문화체험과 녹색체험 관광을 결합한 마을개발의 지속적 추진

객현리 산촌마을은 마을의 단합을 위하여 마을의 40~50대 30명이 조직한 객현리 백운향우회 주축으로 정월 대보름 대동제와 같은 행사를 추진함으로 지역 및 마을의 전통을 계승하고 경조사와 같은 크고 작은 마을의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산촌마을은 마을자체로 산머루 수확기를 이용하여 축제를 계획하였으나 구제역,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제를 추진하지 못하였다. 마을은 2009년까지 (주)지역아카데미를 통하여 마을발전 컨설팅을 받아왔다. 2012년 마을법인의 사회적기업 전환의 추진과 감악산의 숲속 문화체험과 녹색체험관광을 결합한 객현웰리스마을 조성사업(접경지역개발사업-행정안전부)에 공모하였으나 마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패하였다.



산촌녹색관광센터

마을은 2013년에도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접경지역개발사업,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파주시에서 계획하는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에도 마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내용을 마을과 연계하여 산촌녹색관광센터를 기점으로 통나무집, 캠핑장, 음식판매장 등의 시설을 마을에서 유치·운영할 계획이다.

객현리 산촌마을은 마을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 지역개발공모사업을 수혜받기 위한 마을회관 앞 부지 600평을 매입(마을기금활용-1억8,000만원)하여 마을공동 부지를 조성하였다. 마을발전의 큰 문제점인 마을 진입로의 확·포장 문제도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다

마을의 지속적 발전과 공동체회복을 위하여 투자하고 노력하는 객현리 산촌마을은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으며 마을의 신호등은 언제나 파란불이다.

*** 왕머루**(산머루, *Vitis amurensis* Rupr) : 포도과

갈매나무목 포도과의 대형 낙엽덩굴식물인 왕머루, 산머루나무는 산지에 나며 덩굴손이 나와 다른 나무나 물체에 휘감겨 길게 뻗어 자란다. 잎은 어긋나고 오각형의 둥근 심장모양으로 크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으며, 길이 30㎝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얕게 3갈래로 갈라지며 뒷면에는 빽빽이 적갈색 솜털이 있다. 꽃은 작고 황록색이며 5~6월에 잎과 마주나온 원추꽃차례에 달리며 꽃자루 밑부분에서 덩굴손이 발달한다. 열매는 공모양으로 지름 약 8㎜정도이며, 가을에 익어 흑자색이 되며 신맛이 나지만 식용으로 쓰인다. 과즙을 짜서 머루주를 만들기도 하며, 어린 눈도 조금 신맛이 있으나 먹을 수 있다. 가을에는 잎에 아름다운 단풍이 든다. 왕머루와 비슷하지만 잎의 뒷면에 적갈색 털이 밀생하는 것이 다르다.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산머루는 칼슘, 인, 철분, 회분 및 안토시아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보혈강장 및 자양효과가 뛰어나다. "포도의 원조"인 머루의 성분은 칼슘, 인, 철분, 회분들의 성분이 포도보다 10배 이상 높고 특히 항산화작용을 하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머루의 효과는 저혈압, 혈액순환, 부인병에 좋고 성장기 어린이 두뇌발달에 도움을 주며 머루의 신맛은 식욕촉진과 소화촉진을 돕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불면증, 변비, 피로회복, 숙취, 피부 미용에 효능이 있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 1리
  - ・인구 : 284명(남자-163명, 여자-121명)
  - ・가구 : 107호(농가 97호, 비농가 10호)
  - ・면적 : 457ha(임야 321ha, 밭 116ha, 논 6ha, 과수원 14ha)
-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소관이며 파주시장
- 사업지원
  - ・생활환경개선 : 진입로 포장, 주차장시설, 야외화장실, 조경수 식재
  - ・산촌녹색체험시설 : 산촌녹색관광센터, 산막, 산촌녹색체험시설, 산책로, 정자
  - ・생산기반시설 : 산채하우스, 표고재배 시설,
  - ・마을기획 및 운영 : 홈페이지구축, 리더 및 주민교육, 마을브랜드개발
- 사업기간 : 2001~2003년(2001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02~2003년 시행)
- 사업비 : 12.0억원

맑고 깨끗한 계곡물과 잣나무 숲길이 아름다운 명달 산촌마을

◈ 명달마을 연락처

- 양평군 산림경영 사업소(☎ 031-770-2444)
-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 마을이장(☎ 016-750-6443), 운영매니저(☎ 010-5245-8897)
- E- mail : msroom49@naver.com

◈ 서울 근교의 오염되지 않은 통방산 숲과 명달계곡을 지닌 명달 산촌마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산촌마을은 통방산, 중미산, 유명산 줄기에 위치해 있다. 지형이 벌통씌우개인 명덕을 닮았다하여 멍덕, 멍덜로 불리다 명달로 바뀌었다고도 하고, 해발 250m의 높이의 고지대 마을이라 햇빛, 달빛, 별빛이 가장 먼저 이른다 하여 명달이라 불리기도 한다.



명달 산촌 숲속학교 전경

명달리는 경기도 양평군의 12개 읍·면 마을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한 서종면의 한 마을이다. 명달(明達)은 하늘의 三光 , 즉 해, 달, 별빛을 제일 먼저 받으면서 그 밝음의 경지에 도달한 마을로서 모든 생태 생성의 원리는 하늘의 삼광을 받아 이루어지는데 그 생태계의 근원지가 바로 명달리가 된다는 유래를 가지고 있다.

서울과의 거리는 차량으로 1시간 남짓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축사와 축산농가가 없고 울창한 산림으로 둘러싸여 오염이 없는 청정 숲속 산촌마을로 유명하다. 남한강과 북한강을 허리에 끼고 자리 잡은 높은 산과 어우러져 있는 계곡은 많은 잣나무가 있으며 주변의 중미산 휴양림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곳이다.

명달 산촌마을은 통방산 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명달리 계곡을 따라 진행되는 숲 체험은 가장 깨끗한 명달계곡의 물줄기를 따라가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명달 산촌마을은 90%정도가 산악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화전이나 숯가마로 소득을 얻기 위해 깊은 산속에서 생활을 했지만 점차 생활이 나아지면서 지금의 마을이 형성하게 되었다.

◈ 아름다운 잣나무계곡과 폐교를 활용한 산촌개발 사업의 실행

명달 산촌마을은 주변 사방이 산이고 농토가 적은 관계로 마을주민들은 잣 수확 사업, 산판 작업, 표고버섯 재배, 토종꿀생산, 산채채취, 민박과 음식제공 등

산림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다. 또한 마을에는 넓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거의 없고 농지가 전혀 없는 비농가가 70%이다.

산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01년 서종면 생태산촌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명달 생태산촌 조성계획을 추진하여 왔다. 마을은 생태산촌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주민 공동사업을 주관하기 위해 전체 주민이 참여한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였다. 명달 산촌마을은 2002~2004년까지 산림청의 산촌개발사업 사업비 12억원을 지원받아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산촌 휴양시설

산촌개발사업 내용으로는 건축물로 산촌 휴양시설 5동(1동 33㎡), 공동화장실 2개소, 오수 관로시설 2개소, 토목사업으로 물막이시설 1개소, 상수시설 1식, 생산소득시설로 목재칩핑 시설을 설치하였다. 또한 타부처 등 사업추진으로 설치된 주요 시설은 폐교를 활용한 회의실, 강당, 숙소 및 마을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산촌 휴양시설

또한 깨끗한 계곡을 유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산림 휴식년제를 신청하여 계곡주변에는 자동차의 출입을 통제하고 방문객과 관광객들이 걸을 수 있는 산책로 개발에 힘쓰고 있다.

◈ 산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 공동체의 단합된 힘의 발현

명달 산촌마을은 산촌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 및 애로사항도 없지 않았다. 산촌개발사업을 자기 부락에 유치하려고 초기에 주민 간 갈등이 있었고, 태권도 공원유치도 고려하였으나 군수와 군청직원들이 마을의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특성의 장점을 살린 산촌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향후 주민들도 선진지 견학으로 일본 산촌마을 시찰을 한 후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산촌개발 사업내용을 생활환경개선과 산촌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사업은 물론 청정지역 이미지 개선사업에 주력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유명헌 마을이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에는 주민들의 관심부족과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도 있었으나 여러 차례의 설명회와 주민회의를 통하여 공감대 형성과 공동참여가 확대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마을주민 스스로 벼농사를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하여 우렁이농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산촌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생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일본을 답사하고 국내의 많은 마을을 답사하며 여러 가지 교육에 참여

하였다. 마을운영을 위해 2004년 마을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여 모든 정보를 공개하며 마을의 단결된 힘을 과시하였다.

2009년도에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촌마을 경영평가에서 우수 산촌마을로 선정되는 기쁨과 상금으로 1억2,500만원의 상금도 받았다. 마을은 경영부문 평가에서 주민화합, 경영성과, 마을발전가능성 등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마을로 선정되었다.



산림청 우수생태산촌마을 선정

명달 산촌마을이장은 마을에서 마을 공동작업 및 행사시 원주민 및 귀농귀촌 인구도 모두 참여하는 단합된 공동체로서 주민들이 서로 협동하고 화합하는 모습이 좋다고 설명한다.

◈ 상수원 보호구역의 잣나무 숲을 활용한 숲속학교와 체험프로그램 운영

명달 산촌마을은 서울과 수도권 근교에 위치하고 경관이 수려하며 자연환경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2001년 환경부의 자연환경 보존 우수마을로 지정되기도 했다.

명달 산촌마을은 양평군의 친환경 농업 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친환경 논 농법과 더불어 어느 작물을 불구하고 농약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였다. 이에 장뇌삼, 잣, 표고버섯, 토종꿀, 감자, 옥수수, 산채 등 친환경 농법의 실천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수도권지역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매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주 5일근무제 시행으로 휴양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체험놀이 교육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오염되지 않은 마을의 잣나무 숲 계곡이 산촌체험 수요로 나타났다.


친환경 농업 재배

이에 명달 산촌마을은 산림청의 산촌개발사업,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 가꾸기 지원사업과 정보화마을 등과 같은 정부의 지원사업을 유치였으며 폐교를 리모델링한 환경교육센터, 공동숙소, 마을 오폐수정화시설, 장뇌삼단지, 가로수 식재, 숲체험로 설치 등 마을공동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었다.

마을의 생태산촌영농법인에서 숲속학교를 운영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교육한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숲 체험, 농사체험, 문화체험, 놀이체험 등이 있으며, 산촌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숲 해설, 목공예, 우렁이 농법 논농사, 천연염색, 감자구워 먹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산촌개발사업의 효과는 마을가구 수 및 인구 증가, 방문객수 증가, 마을소득 및 마을기금 등 증가와 주민 고용 효과가 크다. 산촌개발 사업당시 가구 수는 50~60가구였으나 현재는 188가구로 크게 증가하였다. 산촌사업 후 마을방문객은 현재 3,500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 또한, 사업당시 마을기금이 1,20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8,000만원이나 조성되어 6배 이상 증대되었고, 숙박시설 관리와 체험을 위해 마을주민들을 고용하여 주민 고용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2011년 마을의 경관자원을 활용한 체험객의 수와 소득을 살펴보면, 체험객 중 당일체험 820명, 숙박체험 1,530명(민박 등) 외에 마을을 찾는 등산객 및 체험객은 대단히 많다. 마을 소득은 숙박요금(마을에서 운영하는 펜션포함) 5,120만원, 음식판매 및 체험프로그램으로 1,300만원, 기타 농・임산물(잣, 토종꿀, 표고버섯, 우렁이농법 쌀 등)의 직거래가 있다.

명달 산촌마을은 원래 화전민이 정처 없이 떠돌던 곳으로서 화전 정리 사업으로 많은 면적의 농지에 잣나무와 낙엽송을 주종으로 하는 조림사업이 펼쳐졌다. 그 결과 이들 잣나무와 낙엽송으로 인해 숲의 종 다양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하지만 현대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에 피톤치드라는 물질을 방출하는 잣나무 등은 훌륭한 자연 치료제로 인기를 얻고 있다.

명달 산촌마을에서는 아름다운 숲과 깨끗한 물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촌개발사업에서 얻은 경험을 살려 2012년도에는 경기도가 지정하는 아토피 안심마을로 선정되어 2억원을 지원받아 7월 20일 개장하여 아토피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아토피 안심마을

명달 산촌마을은 발전방향으로 새로운 신규 방문객의 유치보다는 기존 방문객을 중심으로 재방문율을 높이고 마을의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정수준 인원인 50명만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마을 공동시설에서 얻은 소득의 일부는 마을에서 어려운 주민과 양평군민에 장학금 지원 계획과 복지사업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아토피 특화마을**

2012년 7월 명달 산촌마을에 '아토피 안심마을' 이 문을 열었다. 명달 산촌마을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아토피 환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아토피 치유 특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명달 산촌마을은 아토피 질환에 효과가 있는 피톤치드를 다량 발산하는 잣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아토피 치료에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다. 사업비 2억원을 들여 기존의 산촌 숲속학교를 리모델링해 건물 내부에는 황토와 편백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아토피 체험관과 교육관, 치유실, 유기농 식단이 제공되는 식당 등을 마련하여 아토피 안심마을을 조성하였다.

아토피 체험캠프를 진행하며 캠프는 환자별 개인 상담과 기존의 숲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유기농 식단이 제공된다. 또한 향후 아토피 예방식단과 식단에 대한 레시피 등을 개발 및 보급할 예정이다.

명달 산촌마을 아름다운 숲과 깨끗한 물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채로운 휴양 프로그램 및 시설 등을 활용하여 전국 최고의 아토피 치료 메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 인구 : 342명(남자 179명, 여자 163명)
  - 가구 : 188호(농가 56호, 비농가 132호)
  - 면적 : 1,200ha(산림 960ha, 농지 180ha, 기타 60ha)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 소관이며 양평군수
- 사업지원
  - 생활환경개선 : 오수 관로시설 2개소, 상수시설 1식, 공동화장실 2개소, 물막이시설 1개소 등
  - 생산기반조성 : 산촌휴양시설 산막 5동, 산더덕, 장뇌, 산채재배, 칩핑시설 등
- 사업기간 : 2002~2004년(20002년 기본설계, 2003~2004년 사업시행)
- 사업비 : 12.0억원

자연에 순응하며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마들가리 산촌마을

◈ 마들가리 산촌마을 연락처

- 양평군청 산림경영사업소(☎ 031-770-2441)
-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고송 2리
- 운영위원장(☎ 010-8743-2215), 운영매니저(☎ 011-204-3502)
- 홈페이지 : http : //madlgari.invil.org,　E-mail : 123winte@naver.com

◈ 노적산 자락 큰 소나무의 이야기를 간직한 마들가리 산촌마을



산판 체험장에서 본 마을전경

양평군 양동면 고송 2리는 고송, 고솔이라고 불리었으며 과거 지평군 상동면의 지역으로서 수 백년된 큰 소나무가 있어서 지어진 마을명이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장만리와 상북면의 하고송리를 합쳐 고송리라 칭하며 양동면에 편입된 곳으로 초등학교 분교가 있다.

고송리 산촌마을은 1988년 8월 기준으로 2개 행정리 7개 반으로 조정되었는데 고송 1리는 4개 반, 고송 2리는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고송 북동쪽의 삼각산과 고송 북동쪽의 노적산이 위치하는데 마을 근처에 서로 쑥이 많이 나와 "쑥골" 이라고도 하며, 현재에는 작은 나무(잔가지)가 많은 지역을 지칭하는 순 우리말인 "마들가리" 를 마을 이름으로 명명하였다.

고송리는 양동면의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전체면적의 79%가 임야지역으로 비룡산, 승지산, 고락산, 아흔아홉 골산 등 계절을 따라 변화하는 산자수려한 산과 비룡골, 쑥골, 깨박골 등 골짜기로 이뤄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이다.

산과 계곡마다 멧돼지, 노루, 고라니, 산토끼, 청설모 등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반딧불이, 메뚜기는 물론 고송지역 전역을 흐르고 있는 고송천은 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맑고 깨끗한 생명수의 원천이며,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버들치, 가재, 꺽지 등이 서식하는 자연친화적인 생태학습 체험장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풍부하다.

마을 일대 산림지역에 고려대학교 학술림(시험림) 및 연수원이 조성되어 울창한 소나무, 참나무, 밤나무 숲과 다양한 야생수종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산림욕장 및 산책로, 야생식물 체험이 활성화 되어있다.

마을의 전체가구 수와 인구는 65가구, 167명으로 60대가 주류를 이루며 40대는 약 10명 정도로 다른 산촌과 같이 고령층이 많은 마을이다. 마을은 2005년 산촌개발사업과 함께 녹색농촌체험마을(농진청), 정보화마을(행안부), 생태건강마을(양평군) 등으로 지정되어 마을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인근 주요 문화재와 관광자원은 택풍당(향토유적 제16호), 쌍학리 효열각(향토유적 제17호), 의병장 이춘영 묘(향토유적 제18호)·안승우 묘(향토유적 제19호)와 용문사, 신천지 미술관 등이 있다.

◈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과 체험시설 중심의 산촌개발사업의 추진

고송리 산촌마을의 주요 소득원은 4~11월 중순까지 약 7~9회를 수확할 수 있는 부추 농사이다. 부추농사는 양동면에 150농가가 작목회의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1년 생산액은 2011년 37억원으로 고송리 마을에도 10농가가 재배에 참여를 하고 있다.

2000년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으로 부추재배를 시작하였는데 부추는 평균 5만원/평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고소득의 작물이다. 마을에서 2011년에 하우스 1동(110평)에서 수확에서 150만원/1회의 소득을 올렸다. 축산농가는 8농가로 마을에서 한우를 약 400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으나 현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마을에 5농가가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2,000평에서 오디를 생산하고 있는데 오디작목반에서는 오디와인까지 생산하고 있다.



산촌체험센터 전경

마을의 산촌개발사업의 추진은 2004년 축산신문 윤봉숙 회장이 산림청의 산촌개발사업을 마을에 소개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윤회장은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마을개발 추진을 권고하였다. 2005년 마을에서는 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시설과 체험시설 중심의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였다.

마을에 사업이 확정되고 마을에서는 사업비를 당초 계획이 아닌 타용도 목적사용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개발위원회는 지속적인 마을회의를 거쳐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시설인 장뇌삼재배 단지는 조성 후 관리실패로 전혀 수입이 없는 상황이다.

사업 내용에서 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촌체험센터, 산촌체험장, 휴양시설(숙박동 2실)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2011년 7~12월까지 약 3,000명(숙박객-500명, 체험객-2,500명)이 마을을 내방하여 4,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 700만원을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였다.



산촌체험장과 육모정

신현명 운영위원장은 2012년을 총매출액 1억원, 마을 운영위원회의 법인체 전환을 목표로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사업내용에서 마을에 표고작목반이 있었는데도 마을내의 불화로 표고재배 시설과 같은 산림체험 시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점과 숯가마 체험시설 1기를 활용하지 못한 점(규모가 작아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음 - 최소 3기로 운영이 가능함)을 아쉬운 점으로 토로했다.

◈ 마들가리마을 자연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

예전부터 마들가리마을은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살아온 고장으로 산에서 생산되는 산나물, 과일, 버섯 등 부산물과 나무를 직접 벌목, 숯가마를 이용한 숯을 생산하던 산촌마을 이었다.



숯가마 체험시설

산촌생활의 묘미와 길장군의 전설을 스토리텔링으로 산판체험을 재구성하여 산림자원의 중요성, 산판의 방법, 소원 빌기(致誠)등의 체험내용으로 체험객들이 산촌주민들의 삶과 애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체험교육을 구성하였다.

산판의 과정은 산에 오르기→ 산치성→ 벌목 : 간벌→나무표지 : 인방망이→ 활강작업 : 통길→ 토장에 쌓기→ 운목 작업 : 목도→ 집목장에 쌓기→ 뗏목엮기→ 강치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적인 산판과정 중 현대인의 체험에 맞게 소원 빌기, 벌목, 활강, 운목의 과정을 첨가하여 산판마당을 재구성하였다.



산판체험장과 안내판

마들가리 산촌마을엔 독특한 자신만의 연필 만들기 체험을 통하여 항상 자연을 손에 쥐고 느낄 수 있다. 나무의 나이테 한가운데 속이 연한 부분을 작은 철사로 밀어내고 흑연을 집어넣어 만들어 사용가능한 연필을 만들거나 모양이 뛰어난 나무에 연필모양 끝부분에 색을 칠하여 수제용 소품 장식효과가 멋진 나무연필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고송천의 수질 보존과 민물고기 서식을 위한 노력으로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였다. 수변생태공원은 체험객들이 숲의 생태계와 수변 생태계를 비교할 수 있는 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을에서 가족단위 야영과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는 가족야영지를 고송천 주변에 조성하여 한밤의 별자리 찾기나 반딧불이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화에 따른 가족 해체의 위기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마들가리마을 연필만들기 체험산물인 연필



마들가리마을 체험장 이동버스

◈ 산촌체험마을로 특화하기 위한 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인 노력

고송리 산촌마을의 산촌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요인은 마을의 체험과 숙박객을 위해 지역산물을 먹거리로 제공하였던 열정 넘치는 부녀회의 활동과 조용한 마을환경과 뛰어난 자연경관일 것이다. 마을의 위치적 성격으로 인해 매년 김덕수 사물놀이 연습생의 정기 연습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마을의 각 운영회(부녀회, 청년회, 노인회)는 별도로 기금을 조성관리하고 있으며, 마을기금은 마을행사를 위한 공동목적으로 사용한다. 마을의 운영위원회(15명)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법인체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마을은 경기도 산림과와 1사1촌을 맺고 있는데 마을을 산촌체험마을로 특화하기 위해 야영장시설의 신축 및 숯가마 시설의 확대 등을 경기도 산림과 및 양평군 산림경영사업소와 협의하고 있다. 야영장시설의 신축은 마을의 공동부지 및 마을회관이 없는 관계로 KBS의 인기프로그램 1박2일에서 마을촬영을 위해 몇 번 장소섭외를 왔으나 실패하였다. 2011년까지 마을회관의 기능으로 산촌녹색체험관을 활용하고 있다.

고송리 산촌마을은 면민 체육대회에서 3년 연속 1등을 할 만큼 단합이 잘 되기로 소문난 마을이다. 최근에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고송 2리 3반이 마을기금 2,000만원(건축 자제비)을 사용하여 최초의 마을회관(18평)을 신축하였다. 마을회관은 마을주민들이 직접 부역을 하여 건축을 하였다.

또한, 마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청년회 중심으로 마을의 단독세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동절기에 연탄을 지원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다른 산촌마을과는 다르게 다문화 가정도 11가구가 있어 마을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위하여 부추농사 및 축산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다.

마을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과 접목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판체험과 같은 특화된 프로그램과 자연을 활용한 사계절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고송리 산촌마을 ! 마을주민들은 오늘도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면서 마을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수변생태공원의 친수체험장



뽕나무 잎을 수확하는 마을주민들

*** 뽕나무**(*Morus alba var. romana* Loddiges) : 뽕나무과

전국 각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낙엽활엽 교목으로 높이 10m까지 자라며 잎은 난형 또는 넓은 난형으로 다소 두껍고 광택이 있으며, 잎 아래쪽은 3~5갈래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잎자루는 길이가 2~3㎝정도이다. 6월에 암꽃과 수꽃이 한 그루에 따로따로 피거나 다른 그루에 핀다. 수꽃은 긴 수상(穗狀)꽃차례로 모여 피고 4개의 수술과 4장의 꽃덮이조각[花被片]으로 되어 있으며, 암꽃은 암술머리가 2개로 나누어진 암술로 되어 있으나 암술대는 거의 없다. 열매는 6월에 흑자색으로 익는다.

뽕나무잎은 잠엽(蠶葉)이라 하여 누에를 기르는 데 쓴다. 한국에는 신라시대부터 뽕나무를 재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고려 현종 때는 마을마다 일정한 수의 뽕나무를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오디(White Mulberry)라는 열매는 날것으로 먹거나 술을 담가 먹는다. 뽕나무를 한자로는 상(桑)이라고 하며 어린가지를 상지(桑枝), 잎을 상엽(桑葉), 열매를 상감자(桑椹子), 뿌리껍질을 상백피(桑白皮)라 하여 모두 약재로 쓰고 있다. 한방에서 상지는 신경통 치료에, 상엽은 해열제로, 상감자는 강장제·발모촉진제 및 빈혈 예방에 사용하고, 상백피는 이뇨제와 고혈압 치료제로 쓴다. 뽕나무는 원래 키가 큰 교목이지만 재배하는 나무는 자주 잘라주기 때문에 관목처럼 자란다. 뽕나무는 공해에 강하고 어떤 흙에서나 잘 자라며 옮겨심기가 쉬우나, 가지가 잘 꺾어지고 너무 길게 자라는 단점이 있어 정원이나 공원에는 적당치 않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고송 2리
  - 인구 : 167명(남자 86명, 여자 81명)
  - 가구 : 65호(농가 63호 비농가 2호)
  - 면적 : 720ha(산림 617ha, 농지 71ha, 기타 32ha)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 소관이며 양평군수
- 사업지원
  - 생활환경개선 : 산촌체험센터, 산림문화회관 리모델링, 물막이 보, 이동식화장실
  - 생산기반조성 : 산촌체험휴양시설, 산촌체험장, 임산물생산단지, 숯가마 체험시설
  - 마을기획 및 운영 : 안내시설, 리더 및 주민교육 등
- 사업기간 : 2005~2007년(2005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06~2007년 사업시행)
- 사업비 : 14.0억원

사과꽃 향기에 사랑이 다녀가는 백둔리 산촌마을

◈ 연인산마을 연락처

- 가평군 산림과(☎ 031-580-2485~7)
-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리 348-1
- 이　　장(☎ 010-2778-5629)
- 홈페이지 : http://yeoninsan.invil.org

◈ 사랑이 이어지는 곳, 연인산마을



연인산 산촌마을

연인산마을은 가평군의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는 북면지역의 백둔리에 위치한다. 백둔리는 예로부터 마을에 잣나무가 많아 '잣둔지' 또는 '백둔'이라 부르던 것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고암, 천리밑, 평반리, 깊은골, 홍덕을 병합하여 북면에 편입되었다.

연인산마을은 연인산 등산로의 시작점이고, 마을 앞으로는 백둔천이 흐르며, 마을 뒤쪽으로는 명지산 군립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산촌마을로 연인산에 둘러싸여 있어 연인산마을이라 한다.

연인산은 옛 이야기 속 길수와 소정이의 애틋한 사랑이 얽혀 있고, 근래의 화전민들의 애환을 간직한 채 가시덤불로 덮여있던 무명산(無名山)이었다. 그러나 1999년 3월 15일 가평군 지명위원회에서 산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옛날 이곳의 주인공이었던 선남선녀와 같이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소망을 기원하라는 의미로 '연인산(1068m)'이라 이름 지었다.

◈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청정마을

가평군은 군 전체가 '자연권 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 중에서 가장 청정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면지역은 가장 청정한 지역으로 손꼽히며, 연인산마을은 이러한 청정북면지역의 전형적인 산촌마을로 천연 그대로의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다.

연인산마을은 최고의 드라이브코스로 유명한 경춘가도가 수도권 지역에서의 주요 접근로이다. 또한 연인산, 명지산, 용추구곡, 백둔천이 있어 즐거움을 더해준다.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연인산마을은 사계절, 남녀노소 누구나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당일, 1박 관광의 최고 녹색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 5월 연인산 들꽃축제의 장

1999년부터 가평군에서는 전국적인 행사인 '연인산 들꽃축제'가 열린다. 축제는 가평군 연인산 축제 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입산통제가 해제되고 정상분지의 철쭉개화시기에 맞추어 매년 5월 중순 주말에 2-3일간 개최된다. 연인산 들꽃축제는 '연인산' 이름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테마의 호응이 좋아 해가 갈수록 관심과 참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축제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연인산 들꽃탐방, 통일 · 풍년 · 번영기원제, 각종 문화행사, 자연체험, 지역특산물 전시, 향토음식시연회 등 연인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연인산 들꽃축제는 지난날 철쭉축제에서 들꽃축제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연인산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연인산마을은 축제의 중심지로써 함께 참여하고 있다.

축제의 절정인 들꽃은 지난 수년간 관찰한 결과 정상 1,000m 분지의 얼레지, 양지꽃, 노랑제비꽃 등 야생화가 군락으로 서식하고 꽃은 종별로 4월 초순부터 9월 중순까지 개화한다. 산철쭉은 해발 700m 이상 능선에 군락으로 자생하고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나무가 굵고 꽃의 색깔이 고우며 개화기는 기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5월 중하순에 만개한다. 연인, 우정, 장수, 청풍 능선에서는 아름다운 철쭉이 군락으로 자생하고 있다. 용추구곡의 수정 같은 맑은 물은 산목련, 단풍과 더불어 4계절 절경을 뽐낸다.

연인산 들꽃축제는 따뜻한 봄날에 산과 꽃의 아름다운 절경을 마음껏 담을 수 있는 향기로운 체험이 될 것이다.



연인산 들꽃



연인산 축제

◈ 다채로운 체험활동과 친환경 농산물 '푸른연인'

연인산마을에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우선 방문객들은 산행을 통해 등산코스가 다양하여 인기가 많은 연인산과 명지산의 사계절 절경을 담을 수 있다. 마을 내에서는 봄에는 나물캐기 체험, 여름에는 연인계곡 물놀이 체험, 가을에는 연인산 최고의 농산물인 사과 따기 체험과 고구마 캐기, 포도 따기 체험, 겨울에는 도시에서 보기 힘든 별을

관찰할 수 있는 별 천문대 체험, 이 외 풀잎 손수건 만들기, 캠프, 주말농장 체험 등이 진행되고 있어 계절별로 방문객들의 오감을 풍성하게 채운다.

또한 연인산마을에서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마을주민들의 철저한 재배관리를 통해 맛 좋고 질 좋은 농임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푸른연인'은 특허청에 등록된 가평군이 인정하는 농·특산물 공동상표로, 군은 과일, 잣, 채소, 쌀 등 45개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푸른연인 공동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이들의 품질을 보증한다.

이 중 연인산 사과는 산간지방으로 연평균기온이 12℃로 서늘하고, 일교차가 큰 가평군의 천해환경에서 재배되어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으며, 육질이 단단해서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특히 백둔리 사과작목반은 경기도 주최 사과품평회에서 대상, 금상, 우수상 등을 수상하여 고품질 사과 생산지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도시 소비자를 위해 직거래 주문 판매도 실시하고 사과 따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 명성을 더해 간다. 연인산마을의 사과, 잣, 밤, 포도 등 우수한 농산물을 맛보는 것은 연인산마을에서 누리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감자심기



사과열매솎기



사과따기



고구마캐기



풀잎손수건만들기



물놀이

◈ 마을의 화합과 발전을 가져온 산촌마을조성사업

1999년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착수,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에 걸쳐 본 사업을 진행하였다. 가평군은 예로부터 서울과 춘천 간 교통의 요지였으며, 연인산마을은 이러한 수도권지역과의 지리적 접근성을 최대로 활용하여 도시민 유입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가평 8경이 주변에 산재해 있고 경관이 수려한 수변과 산림이 위치하며, 연인산 들꽃축제와 같은 지역자원의 관광상품화를 통해 관광형 산촌정주형 마을로 사업 방향을 설정하였다.

기존에 기반시설 부재, 시설 노후, 임도망 부족, 유휴농지 발생 등의 문제점이 산재함에 따라 다양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안길이나 상수도시설, 마을회관 등 부족한 정주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여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마을회관, 도로 등이 재건축되었고, 운동장, 정자 등 주민이 모여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조성됨으로써 생활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명지산, 연인산, 백둔계곡 등 기존 휴양자원과 연계하여 주민소득 창출 사업을 추진한바 주민 소득증대, 산촌휴양공간 조성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그 밖에 자연환경을 활용한 사과, 잣, 밤, 산채 등의 다양한 농 · 임산물을 재배 특화시키고 이를 체험활동의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마을을 특색화하고 도시민과의 교류 확대로 마을의 활력 증진을 가져왔다. 특히 22 농가가 참여하는 연인산마을 사과작목반은 사과 재배 소득의 30%이상을 도시민 직거래가 차지하여 국내 최고 사과 생산지로 손꼽힌다. 한편, 잣으로 유명한 연인산마을은 국유림계약을 통해 25명의 작목반이 잣 수확을 하여 소득을 얻고 있으며, 몇몇 농가는 고로쇠생산에도 참여 중이다.

숙박과 시설물 임대 사업으로 마을주민 공동으로 연인산 산촌마을 펜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숙박으로 3~4,000만원, 운동장 임대료로 1,500만원의 소득이 발생된다. 이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전부 마을발전기금으로 이용되고 있다.

청정한 자연환경을 모티브로 다양한 소득사업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연인산마을은 산촌마을조성사업을 통해 마을주민의 화합과 도시민과의 교류의 길을 틈으로써 녹색휴양마을로서 향후 더 큰 성장이 기대된다.



어린이 놀이터



족구장



농구장



천연잔디구장



정자



산촌식당

◈ 살기 좋은 산촌마을 구상안

3년간의 사업 진행 후 연인산마을은 2011년 기준으로 3,2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가 수도권지역에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연인산마을은 50세 이하 인구가 전체 60% 이상으로 젊은 층의 생산 활동 참여인구가 많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얻어진 마을 소득은 공동 운영되어 마을 발전에 기여됨으로써 마을의 성공적인 운영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연인산마을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추진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인산마을은 마을회 자체가 마을운영회 역할을 하며 반장, 이장, 운영매니저 등을 포함한 총 22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법인이 조성되어야 각종 마을사업의 지원 수혜가 가능한데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갈등으로 법인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을운영회는 주민의 의견 수렴 및 화합을 통해 마을법인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당초 군에서 주관하던 연인산들꽃축제가 마을 주도 축제로 이관되면서 이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마을의 순소득을 이용해서 체육대회, 5월 가정의 달 행사, 외부 현장견학, 노인 돕기 등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 외 현재 안양산어린이학교와 신태초등학교 아버지회와 일사일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향후 공공기관, 기업 등과의 교류를 계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사업 관련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산촌마을조성사업과의 접목을 구상하여 마을의 성장을 도모하고,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 펜션 홈페이지에 마을의 농 · 임산물, 체험프로그램 홍보를 실시하여 숙박과 체험을 연계한 소득 향상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현재 마을 내부에서는 마을 주변 산에서 방문객의 무분별한 임산물채취 문제가 심각한데 마을은 주변 산에서 자생되는 임산물을 어떻게 소득화 할지에 관하여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주민 소득으로 창출하거나, 군과 MOU 체결, 마을 자체적으로 임산물채취 단속 등 여러모로 그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연인산마을의 향긋한 사과향이 사랑과 즐거움을 빚어내는 원천이 되기를 기대한다.

*** 연인산 이야기**

옛날 연인산 속에서 화전을 일구고 겨울에는 숯을 구워 팔면서 생활하던 길수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김참판댁 종 소정을 사랑했다. 둘은 조금씩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소정과 혼인하기로 마음먹은 길수는 김참판에게 소정과 혼인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김참판은 길수에게 조 백 가마를 내놓던가 아니면 숯 가마터를 내놓고 이 고장을 떠나면 허락하겠다고 했다. 삶의 터전을 내줄 수 없어 고민하던 길수는 결국 조 백 가마를 가져오겠노라고 약조를 했다. 하지만 가진 게 없는 길수가 조 백 가마를 마련할 길은 만무했고, 고민하던 길수는 우연히 연인산 꼭대기 바로아래에 조를 심을 수 있는 커다란 땅이 있음을 알게 된다. 길수는 밤낮으로 밭을 일궈 조를 심을 아홉마지기를 만들었고 아홉마지기는 조 백가마도 넘게 나오는 아주 넓은 밭이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소정을 줄 마음이 없던 김참판은 길수를 역적의 자식이라 모함했다. 가까스로 도망친 길수는 소정과 함께 도망가고자 찾아가지만 소정은 길수가 역적의 누명을 쓰고 잡혀갔다는 소문에 그만 삶의 희망을 잃고 남은 생을 포기한 뒤였다. 소정의 시신을 안고 아홉마지기로 돌아간 길수는 자신의 희망이었던 조를 불태우며 그 안으로 뛰어든다. 이때 죽었다던 소정이 홀연히 아홉마지기를 향해 간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올라가 보니 두 사람은 간 곳 없고 신발 두 켤레만 놓여 있었는데, 놀랍게도 신발이 놓여 있던 자리 주위에는 철쭉나무와 얼레지가 불에 타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고 한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리
  · 인구 : 397명(남자 193명, 여자 204명)
  · 가구 : 237호(농가 92호, 비농가 145호)
  · 면적 : 159ha(산림 127ha, 농지 24ha, 기타 8ha)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조합중앙회 경기도지회
- **사업지원**
  · 산촌개발사업 : 마을 방송시설, 지하수 관정, 특산물 판매장, 산림휴식시설, 운동장, 종합안내판, 취사장 등
  · 생산기반조성 : 사과 공동 선과장 건립
  · 마을기획 및 운영 : 홈페이지 구축, 리더 및 주민교육
- 사업기간 : 1999～2002년(1999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00～2002년 사업시행)
- 사 업 비 : 14억원

꼭꼭 숨어있는 고향집 아랫목 같은 정정오지 부귀리 산촌마을

◈ 물안마을 연락처

- 강원도 춘천시 산림과(☎ 033-250-4288)
-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 운영위원장(☎ 010-8959-0576)
- 홈페이지 : http://www.greentourings.or.kr, E-mail : ssh2440576@naver.com

◈ 남으로는 동양 최대 인공호수 소양호가, 북으로는 부용산이 감싸 안는다



마을 전경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물안마을은 춘천군 북산면에 소재한 작은 산촌마을로 고향의 정과 인심, 깨끗한 자연, 농촌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다. 예로부터 부귀터, 부귀대(富貴垈)로 불렀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여오천리와 하건천리를 통합해 부귀리(富貴里)라 정했다. 자연마을로는 물안리, 텃골, 아랫말, 여우내 등이 있다.

물안리(物安里)는 무라니라고도 부르며, 텃골 남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킨다. 여기서 텃골은 대곡(垈谷)이라고도 하는데, 부귀터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유래가 전해지고 있다. 아랫말은 부귀리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마을로 하촌(下村)이라고도 불린다.

부귀리는 천연자연의 보고로 남쪽에는 동양최대 인공호수 소양호가 있으며 버들치, 꺽지, 산메기, 쏘가리 등이 서식한다. 북쪽으로는 해발 700~800m의 부용산이 마을을 감싸 안아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숨어있다. 또한 산지가 전체면적의 95%이상 차지하는 산림지역으로 각종 침엽수 및 활엽수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어 산림욕에 최적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자작나무, 옻나무, 가시오갈피, 두릅나무 등 약용 수종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물안계곡

부귀리의 대표적인 명소인 물안계곡은 그 일부가 춘천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되어 매년 많은 휴양객이 찾고 있으며, 물안계곡의 상류는 자연휴식년제로 지정되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있다.

부귀리 주변에는 고려시대 사찰인 청평사와 사명산, 산신령이 강원보의 꿈에서 계시를 하여 발견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추곡약수터 등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여 부귀리를 찾는 도시민들은 자연뿐만 아니라 역사의 향기를 한껏 음미할 수 있다. 특히 추곡약수터는 위장병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찾아 휴식과 요양을 즐기고 있다.

◈ 천연자원을 이용한 하늘길 등산로 탐방과 역사교육



역사 안내판

부귀리의 입구인 부귀고개 정상부터 도로변에 식재된 벚나무 사이를 가로 질러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우측에 있는 부용산에서 시작된 맑은 옥수가 마을을 가로 질러 부귀천을 따라 소양호로 흐른다.

물안계곡 소로길을 따라 걷다 보면 청아한 계곡의 물소리와 눈부신 녹음에 심신의 지친 피로가 씻은 듯이 없어지며, 부용산에 개설된 국유림 임도를 따라 등산과 산악자전거로 건강도 찾을 수 있어 이곳을 찾은 도시인들은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물안계곡 길에는 고조선부터 4.19민주화운동까지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중요한 50건의 사건들을 선정하여 100m지점마다 안내판에 기록해 놓아 자연경관과 역사의 흐름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도시민이 어린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족단위의 농 · 산촌 체험 학습장으로 널리 각광 받고 있다.

◈ 보고! 하고! 느끼는! 산촌체험

부귀리 물안 마을은 높은 산과 깨끗한 청정계곡을 가지고 있는 천연자연의 보고로 등산객과 가족 또는 사회단체에서 자연에서의 휴식과 상호간의 화합을 위하여 자주 찾고 있다.

산촌체험지구에서는 단체로 부귀리를 찾는 사람들의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위하여 폐교 부지에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과 휴식과 야영을 할 수 있는 야영 데크, 몽골 텐트를 함께 설치하여 이색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그 외에도 평소에는 체험하기 어려운 민속그네와 국궁체험을 할 수 있는 국궁터도 조성하여 전통 민속체험도 즐길 수 있어 방문객들을 만족시키고 있다.

가족단위로 부귀리를 찾는 이들을 위해서 체육시설 외에도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건강관리지구를 조성하여 지압길 체험, 갖가지 체육시설, 출렁다리 등을 통한 등산로 탐방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안마을은 계절별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마을 운영의 내실화를 다지고 있다. 봄에는 두릅따기, 산나물 채취하기, 여름에는 옥수수따기, 물놀이, 별자리관찰하기, 가을에는 벼베기체험, 도토리 · 산밤 · 잣줍기, 겨울에는 전통 민

속놀이(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썰매타기) 등 계절과 시기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춘하추동 전천후 휴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마을주민의 열기가 뜨겁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1년도에는 11,340명이 마을을 찾는 등 더욱 더 많은 이들이 부귀리의 볼거리, 할거리, 느낄거리를 찾아 몰려들고 있다.



산약초 뜯기



새총 풍선 놀이



떡메치기



체육시설



출렁다리



체험시설

◈ 부(富)와 귀(貴)를 부르는 산촌개발사업 추진

2006년 산촌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착수,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였다. 부귀리는 깨끗한 자연 속의 농촌문화가 그대로 남아있고 자연휴식년제 우수마을로 지정되는 등 수려한 산림자원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마을 조성을 계획하였다. 따라서 오지마을로서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주민공동시설과 마을조경 등 각종 생활환경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편익을 도모하는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청정한 산림지역 내 산약초, 약용수 등 임산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공동소득원으로 개발하고, 마을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전통 문화체험 및 놀이시설 등 산촌체험 연계를 통한 마을의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사업의 내용은 크게 생산기반조성, 생활환경개선, 산촌체험시설조성으로 나눌 수 있다.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산채 및 약초, 야생화 재배단지 등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사업을 중심으로 주민 공동의 소득개발 사업에 투자하였고, 장뇌삼, 열매원과 같은 장기적으로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였다. 또한 산촌체험센터에 공동작업장 시설을 조성하여 임산물 생산사업과 연계하여 작업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사업비는 총 6억2,000만원

중 2007년 2억300만원(37%), 2008년 3억9,000만원(63%)을 투자하였다. 산촌사업 추진 전에는 한 농가당 5~600만원의 소득을 얻었으나, 현재 평균 3,500만원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임산물 생산으로 한 해 많게는 1억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는 마을 중심부에 산촌체험센터를 조성하여 마을주민들이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거지 주변에 보완식재 및 생울타리 조성, 지붕녹화, 마을 진입로와 소로에 벚나무, 마가목, 대추나무 등의 유실수와 관상수를 식재하여 산촌경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마을 안길의 일부 구간을 포장하고 보완공사를 실시하였고, 물안계곡의 불가피한 최소한의 차량 이용을 위해 일부 도로구간을 정비하였다. 그 밖에 체육단련시설과 파고라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편익을 도모하였다.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사업비는 총 4억300만원 중 2007년 5천600만원(14%), 2008년 3억4,000만원(86%)정도를 투자하였다.

산촌체험시설로는 산촌마을을 배경으로 전통적 문화 및 놀이시설 도입과 산림욕장, 산악레포츠장, 역사의 숲길, 등산로 등 산림휴양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 도입에 투자하였다. 이 중 역사의 숲길은 다른 산촌마을에서는 보기 힘든 물안마을만의 특색이라 볼 수 있으며 방문객들에게 호응이 높다. 이밖에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체육시설과 야영 데크, 몽골 텐트 등을 설치하였다. 산촌체험시설사업의 사업비는 총 3억7,700만원 중 2007년 약 1억7,000만원(46%), 2008년 약 2억(54%)정도를 투자하였다.

◈ 솔모정의 연리목처럼 하나되는 부귀리



솔모정

부귀리는 교통여건이 불편하여 찾아오기 어려운 마을이지만 한번 오면 다시금 생각나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우수농업경영인 대통령상 수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할 정도로 마을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마을을 가꾸고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귀리 마을 안쪽의 소나무가 모여 있는 솔모정에는 두 나무가 맞닿은 채로 오랜 세월이 흘러 하나로 합쳐진 사랑나무라 일컫는 연리목이 있다, 연리목처럼 부귀리 마을주민들은 서로 하나 되어 부귀리를 행복한 마을로 만들고 있으며, 마을을 찾는 사람들도 스스로 부(富)해지고 귀(貴)해짐을 경험 할 수 있을 것이다.

*** 옻나무**(*Rhus verniciflua* Stokes) : 옻나무과

옻나무과의 낙엽활엽교목으로 꽃은 양성화 또는 단성화이며 원추화서로 달린다. 6월 상순에 황록색으로 개화하며, 10월 상순에 황록색으로 익는다. 보통 수고는 20m, 직경 40cm까지 자란다.

초기생장이 빠른 수종으로 활착 이후 건전한 생육을 위해 2~3년간의 초기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수광성 식물이므로 일조량이 많은 지역을 선택하여 식재하도록 한다. 원산지는 중앙아시아 고원지대인 티벳 및 히말라야 지방이고, 국내에서는 함경도 일부와 해발 1,000m 이상을 제외한 전국에 식재 가능하다.

묘목 식재 후 8~10년이 경과하면 옻칠 채취가 가능하고, 건축, 장식, 각종 예술품, 금속이나 목공 도장용 및 칠기류에 이용한다. 근(根), 근피(根皮) 및 건피(乾皮), 심재(心材), 수지(樹脂), 엽(葉), 종자 등은 식용 및 약용으로 이용 가능하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 인구 : 55명(남자 20명, 여자 35명)
  - 가구 : 31호(농가 23호, 비농가 8호)
  - 면적 : 2,657ha(산림 2,032ha, 농지 64ha, 기타 541ha)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 소관이며 시장 · 군수
- 사업지원
  - 생활환경개선 : 마을안길조경 1,100본, 지붕녹화 1,100㎡, 마을안길정비 317㎡
  - 생산기반조성 : 산채하우스 14동, 공동작업장 60㎡, 물탱크 6개소, 전기 · 통신 1식, 산나물 노지재배 19,900㎡, 더덕 7,000㎡산지식재, 더덕 10,000㎡, 도라지1,300㎡, 잔대 1,300㎡ 파종
  - 산촌휴양시설 : 물레방아 1, 자연석쌓기 1식, 파고라 1, 몽골텐트 7, 국궁시설 1, 야외탁자 7
  - 산촌체험시설 : 민속그네 1식, 체험시설 10종, 출렁다리 1식, 등산로 3.26km, 야생화 · 수목 6,090본 식재, 안내판 1, 입구유도사인 3, 지압로 1식, 등의자 8조, 목계단 34경간
- 사업기간 : 2007～2008년(2006년 사전설계, 2007～2008년 사업시행)
- 사업비 : 14.6억원

백두대간 줄기 푸른 고원과 푸른 숲이 함께 있는 대기리 마을

◈ 대기 산촌마을 연락처

- 강릉시청 산림과(☎ 033-640-5185~6)
-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 마을대표(☎ 033-648-5175, 011-374-5155)
- 홈페이지 : http://daegiri.invil.org, E-mail : csund@naver.com

◈ 그냥 산촌마을이라 부르기엔 이국적인 풍경과 그 푸르름이 눈부신 곳....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촌마을은 사람이 가장 살기 좋다는 해발 700m에 위치한 푸른 고원마을로 선자령과 대관령을 거쳐 고루포기산, 닭목령, 삽당령 등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장엄한 능선이 이어져 있다.



백두대간 고원과 마을 전경

대기리는 본래 강릉군 구정면 지역으로 큰 터가 있어 한터, 대기라 불리다가 1916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하여 여러 자연부락을 합쳐서 대기리라 하며 상구정면에 편입되었다. 마을이 워낙 넓어서 처음에는 3개리(평촌, 닭목, 한터)로 되어 있었으나 1960년대 고 박정희대통령의 제안으로 화전민들이 고루포기산 중턱을 개간하여 고랭지 배추를 심는 안박덕 마을이 생겨 4개리까지 되었다.

고루포기산 자락에는 60만평의 대규모 고랭지 배추밭이 자리 잡고 있다. 피덕령 정상에 위치한 이곳은 마치 떡메로 떡쌀을 칠 때 밑에 받치는 안반처럼 평평하게 생겼다고 하여 안반덕 또는 안반데기라 불린다. 1996년 북한의 잠수정 침투 당시 간첩들이 숨어서 지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의 주요 소득원으로 백두대간 고원지대에서 고랭지배추, 무, 씨감자를 생산하고 있다. 가구당 경지면적은 4.6ha로 대규모 농업경영을 하고 있다. 씨감자는 우리나라 씨감자 생산량의 25%를 생산하는데 정부계약재배로 이루어지다가 최근 강원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랭지배추는 왕산면생산자협의회에 37농가가 가입되어 농협출하를 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농가는 농협 계약재배나 수집상을 통하여 배추를 생산하고 있다.



대기리 산촌마을 안내석과 쉼터

마을 남쪽에는 노추산, 사달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평촌에는 폐교가 된 대기초등학교와 보건진료소 등이 있다. 닭목과 한터에도 폐교가 된 분교가 2개가 있다.

◈ 백두대간의 산림자원과 경관을 활용한 산촌개발사업의 추진

대기리 산촌마을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촌개발사업을 시작하였다. 대기리의 산촌개발사업은 1999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고 2000~2002년까지 사업이 추진되었다.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관심부족과 사업회피 등 공동의 소득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지속적인 주민회의를 통하여 극복하였다. 또한, 지역특성상 긴 동절기와 잦은 폭설과 결빙으로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환경개선으로 산림문화회관 1동, 다목적광장, 마을쉼터, 현황판 등의 시설을 하였으며 생산기반시설로 유통시설 1동, 산채재배시설 36동 및 장뇌삼재배시설 1식, 톱밥제조시설 1식 등 산촌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생활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산림문화회관 전경

대기리 산촌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관계로 산림문화회관 1층은 경로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유통시설은 감자와 배추의 저장시설로 임대되어 마을에서 770만원/년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별도로 냉동저장고는 100만원/년의 임대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 마을의 감자생산을 효율적으로 증대하기 위해 퇴비를 만드는 톱밥제조시설은 chip퇴비의 발효미숙으로 생산증가 효과가 없어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마을의 36가구들이 참여한 산채(곰취)재배시설은 2010년 태풍의 피해로 약 50%만 남아있다. 마을의 중심부에 산림문화회관 및 유통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마을의 소득을 제고하는 구심점 역할은 물론 농사정보 등을 교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에 마을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약 5,000만원정도로 다른 산촌마을에 비하여 부유한 마을이다.

◈ 산촌체험학교의 고원지대 4계절 자연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대기리 산촌체험학교 전경

대기리 산촌마을은 2002년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일환으로 폐교가 된 대기초등학교를 교육청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고원지대 자연자원을 활용한 순수자연 4계절 체험프로그램을 만들고 산촌체험학교(학교장-김경래)를 운영하고 있다. 2004년에는 정보화사업과 연계하여 10,000명/년 이상이 체험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자연체험은 가족과 단체 모두 가능하다.

특히 숲, 야생화, 곤충, 계곡 등 순수 자연을 위한 체험을 주로 한다. 2011년 마을 운영법인에서 학교(부지-3,000평, 임야-3,000평)를 4억6,000만원에 매입하여 현재 학교는 마을의 자산이 되었다. 산촌체험학교는 체험객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1년 약 1,0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렸다.

대기리 산촌마을에서는 안반데기에 올라 고랭지 배추밭을 둘러보는 체험과 감자 심기와 캐기 체험을 한다. 안반데기 정상에서 파란 하늘 아래 일렁이는 푸른 고랭지 배추밭이 어우러진 풍경과 함께 광활한 배추밭을 개간했던 화전민들의 인내와 노고를 생각할 수 있고 감자의 파종과 수확까지 감자의 모든 것을 배우며 감자를 수확해 일손을 돕고, 감자 요리도 해먹을 수 있다.

산촌체험학교에서 약 5㎞ 떨어진 노추산산림욕장은 마을에서 조성한 숲 속 체험공간이다. 삼림욕장에 들어서면 소나무, 참나무, 자작나무 등 침엽수와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등의 활엽수 숲과 마타리, 며느리밥풀꽃, 투구꽃, 하늘말나리 등 야생화가 지천이다. 삼림욕장 내에서는 아름다운 숲길 따라 걷기, 삼림욕과 숲 속 명상하기, 자연의 소리듣기, 나뭇잎 카드 놀이하기, 숲 속의 보물찾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긴다.



노추산 등산로 탐방체험

노추산산림욕장 외에 닭목령 입구에서 고루포기산 등산로를 따라 약 1시간 반 정도의 백두대간 탐방코스도 있다. 고루포기산으로 가는 길에는 울창한 참나무 숲을 만난다. 참나무 숲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등 도토리가 열리는 '도토리 6형제' 이야기도 들려준다.

자연 그대로를 이용하는 체험으로는 손수건 탁본염색을 빼놓을 수 없다. 하얀 손수건과 간단한 손망치로 자연을 이용해 손쉽게 탁본염색을 할 수 있다. 주변에서 자라는 여러 가지 풀과 꽃을 채집한 뒤 손수건에 대고 두드린다. 물이 많으면 손수건에 퍼져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잎맥이 선명한 토끼풀이나 쑥 등을 주로 이용한다. 같은 모양을 내기 위해 손수건을 겹쳐서 두드리거나 여러 모양을 다양하게 내기위해 비닐봉투를 덮은 뒤 두드리기도 한다. 두드리기가 모두 끝나면 염료가 빠지지 않게 백반이나 식초를 넣은 물에 넣고 행군 다음 말린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손수건을 가진 아이들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한다.



숲 체험과 손수건 탁본염색 체험

대기리 산촌마을에서 닭목이와 용수골, 늪골에서 발원하는 세 물줄기가 만나 합쳐진다. 이 물줄기는 배나드리에서 만나는 송천과 합쳐져 정선의 아우라지로 흐른

다. 세 물줄기 가운데 용수골에서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산촌문화회에서 큰용수골 방향으로 약 3㎞정도 올라가면 매끈한 암반을 따라 흐르는 계곡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곳에서 물썰매를 탈 수 있다. 타는 방법은 어렸을 적 비료포대를 깔고 눈썰매를 타던 방법과 같다. 매끈한 경사면의 흐르는 물을 따라 비료포대나 돗자리를 깔고 타면 된다. 10m가 채 안 되지만, 암반을 타고 내려와 물속으로 빠지는 시원함은 다른 물놀이와는 다른 특별한 체험이 된다.



여름의 선물, 물썰매 타기

2009년 산림청주관 산촌마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 1억8,000만원의 상금으로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마을의 공동부지(8,400평)를 마련하였다.

◈ 산림자원의 활용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

대기리 산촌마을의 산촌개발사업 효과는 마을개발을 위한 마을공동체에 대한 구심점(마을위원회, 마을법인 등)이 만들어졌으며 마을의 운영·관리를 세무법인에 위탁하여 마을운영에 대한 기본 틀을 확립하였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제고를 위한 법인의 노력 및 주민들의 협력으로 2010년 강릉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활용에 대한 협약을 맺고 고로쇠수액 작목반(5가구)을 형성하여 2011년 30일간 6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하였다. 현재 마을에는 법인 명의로 5,000만원의 기금과 마을운영회 명의로 700만원의 기금과 임야 22,000평을 소유하고 있다.

마을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금까지 다양한 많은 사업을 수혜를 받았던 대기리 산촌마을은 국가 보조금 사업이 아닌 마을주민의 힘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마을공동체를 위한 행사로 감자꽃 축제(10월)와 2011년부터 시작한 겨울축제인 '백두대간 24'가 있다. 12월 23~25일까지 실시한 백두대간 24는 산촌체험학교 운동장을 빙판으로 조성하여 얼음썰매, 얼음축구, 눈썰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약 1,500명의 체험객 내방으로 8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마을에서는 매년 3월에 노인대상 효도관광과 주민화합 한마당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정월대보름에 자연부락별로 당제를 드리고 있는데 닭목령 당제가 유명하다.

마을에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경관을 최대로 활용하여 부(富)를 창출하는 대기 산촌마을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높은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경주하고 있다.

*** 곰취**(Nar-rowhead Goldenary, *Ligularia fischeri* (Ledeb.) Turcz.) : 국화과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초로 식물 전체에 털이 거의 없다. 아주 굵은 뿌리줄기에서 나오는 잎은 길이가 85㎝까지 자라기도 한다. 줄기에서는 보통 3장 정도 잎이 나오는데 밑 부분의 것은 뿌리에서 나오는 잎처럼 심장 모양으로 잎밑이 움푹 들어가 있으나, 윗부분의 것은 잎자루가 넓어져 줄기를 감싼다. 꽃은 7~8월에 노란 두상화(頭狀花)가 총상(總狀)꽃차례를 이루며 피는데 설상화(舌狀花)가 마치 꽃잎처럼 보인다. 어린잎을 봄철에 날것으로 또는 데쳐서 나물로 먹으며 말려서 묵나물로 만들기도 하는데 향기와 맛이 좋다. 중국에서는 뿌리를 상처 난 곳에 바르며, 허리가 아프거나 기침을 다스리는 데 쓰고 있다. 깊은 산 속의 물기가 조금 있는 곳에서 잘 자란다.

잎은 넓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연한 잎을 뜯어 쌈으로 먹거나, 장아찌를 담근다. 데쳐서 먹거나 쌈을 싸 먹어도 향긋하다. 곤달비라고 부르는 곳도 있지만 곤달비보다 잎이 크고 잎 아래가 덜 벌어진다. 주로 산촌마을에서 소득원으로 많이 심어진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 2리
  - 인구 : 184명(남자 106명, 여자 78명)
  - 가구 : 91호(농가 90호, 비농가 1호)
  - 면적 : 1,441ha(임야 1,081ha, 농지 352ha, 기타 8ha)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 소관이며 강릉시장
- 사업지원
  - 생활환경개선 : 산림문화회관 1동(2층 60평), 다목적광장, 쉼터 및 현황판 1식
  - 생산기반조성 : 산채재배 36동, 장뇌삼재배시설 1동, 톱밥제조시설 1동
    유통시설(저장고) 1동
- 사업기간 : 1999~2002년(1999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00~2002년 사업시행)
- 사업비 : 16.12억원

하늘아래 첫 동네, 가고 싶은 그리운 산촌마을! 부연동

◈ 부연동마을 연락처

- 강릉시청 산림과(☎ 033-640-5185～6)
-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 마을대표(☎ 033-661-6673,　011-692-0987)
- 홈페이지 : http://www.buyeon.net

◈ 오대산 줄기자락 남대천이 흐르는 아름다운 산촌마을 부연동!



마을 전경

부연동마을은 강릉시 연곡면 삼산 3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마을과 떨어져 있는 첩첩산중의 오지마을이다. 백두대간 허리부분의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위치하고 있고, 오대산 국립공원 내에 걸쳐 있다. 마을 앞쪽은 철갑령과 전후재가 있고, 뒤에는 신배령, 두로봉이 마을을 감싸고 있으며, 오대산 신배령 문푸레골 안쪽에서 발원하여 양양군 법수치, 어성전으로 흘러 양양 남대천을 지나 동해로 빠지는 부연천이 마을 가운데로 흐르고 있다. 부연천 가운데 가마솥처럼 생긴 소(沼)가 있는데, 이를 '가마소'라 하였고, 가마 부(釜) 연못 연(淵)의 '부연동(釜淵洞)이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부연동은 고산목에서 채취한 토종꿀 생산단지가 있으며, 이곳에서 채취한 토종꿀을 섞어 도라지, 마늘환 등을 만드는 공장도 있다. 약 6km구간에 16만8,000㎡의 계곡을 보유하고 있고, 산수가 아름답고 외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연의 자연을 간직한 곳으로 1급수에서만 산다는 산천어가 서식한다. 또한 사이다맛과 거의 같은 탄산 약수가 마을 한가운데에 있다.

◈ 마을의 수호목 '제왕솔'과 건강의 물 '부연약수'

제왕솔은 수령 500년의 국내 최대 소나무로 수고 25m, 둘레 3.7m, 수관직경 1.2m로 형질이 뛰어나고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아 산림분야 학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이 제왕솔은 마을을 지키고 보해해주는 성화목으로 여기고 오래전부터 매년 음력 3월3일에 제사를 올린다.

제왕솔 외에 부연마을에는 부연약수가 유명하다. 부연약수는 강한 탄산과 철분 함유로 소화불량이나 숙취해소에 좋고 신경통, 눈병, 심장병, 위장병 등에 좋다고 하여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찾는다. 또한 가마소 구용소의 비

경은 부연약수의 맛을 더해준다.



제왕솔



부연약수

◈ 첩첩산중 자연과 동화된 산촌개발사업 추진

2002년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착수,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였다. 부연동 산촌마을은 한국전쟁도 피해간 첩첩산중 오지마을이다. 따라서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 고유의 산촌성과 전원성이 보장되도록 마을 조성을 계획 추진하였다. 또한 도시민들의 그린투어리즘 및 도농교류의 장으로써 조성하고, 산촌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소득사업 및 기술의 적극적인 보급을 통하여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마을의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산촌사업의 내용은 크게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생산소득기반사업, 산림경영으로 나뉜다. 생활환경개선 사업은 총 사업비 12억원 중 5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의 삶의 기반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가급적 살려 직선은 피하고, 곡선적이며 전원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마을을 조성, 산골마을의 정취가 우러나와 마치 어린 시절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푸근함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목재, 석재, 황토 등의 자연재료를 이용한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도록 하여 산촌다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주택의 내부시설은 현대식으로 개조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화합의 장소로 이용되도록 산림문화회관, 정자 등을 조성하였다.

생산소득기반사업은 총 6억6,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작목반별로 활동하고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여 생산소득이 낮은 마을에 주민 전체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과 임산물생산의 공동소득사업을 집단화하여 계획하였다. 표고, 산채, 산약초 등 소득작물의 생산 효율성을 위해 재배하우스를 조성하고, 휴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숙박체험시설을 조성하여 휴양사업을 통한 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연소재의 숙박시설, 잔디광장, 주차시설, 레포츠시설 등이 해당된다. 또한 6번 국도에서 마을진입안내판과 부연동

휴양지를 알리는 마을 안내판 등을 설치하였다.

산림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산림은 대부분 장령림급 이상으로 자원화 촉진을 위해 국유림은 지방산림관리청, 공유림 및 사유림은 시에서 영림계획대로 관리, 명실상부한 산촌마을 산림경영을 도모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 위주의 산림작업단을 편성하여 작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노임소득을 창출하고 보속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마을이 지닌 우수한 산림경관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등산로 개발, 산림욕 코스 개발, 산악레포츠 공간 조성 등 산림체험 및 휴양측면에서도 산림을 개발하여 마을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산촌사업 추진 결과 부연동마을은 산촌마을 이미지 제고, 생활여건 개선, 주민조직 결성 및 주민교육, 지역특산품 판매 및 홍보, 휴양 관광 소득기반 확충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 복원과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복지가 향상되었으며, 부연동마을을 찾는 도시민들에게는 산촌향유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산림문화회관



산촌체험산막



잔디광장



마을 안내판

◈ 마을관리 휴양지

부연동 산촌마을은 산림과 계곡이 어우러져 경관요소가 풍부하며 특히 오대산국립공원에 속하는 수려한 임상과 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다. 그리하여 1997년 6월 17일 강릉시로부터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받아 운영되어 왔으며, 마을주민 모두가 참여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 마을은 특히 물이 맑고 풍부하며 주위의 소나무림, 참나무림과 잘 어울려 여름철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에 매력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또한 총 면적 33,000㎡의 식수대 5개, 화장실 6동, 보안등 설치 등 각종 편의시설들을 마련하여 피서객들에게 시원하고 안전한 피서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맑고 깨끗한 청정 오지 부연동마을은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삶의 활력소를 얻어가는 첩첩산중의 숨겨진 보물 샘과도 같은 곳이다.



마을관리휴양지 이용 안내도

*** 송이버섯**(*Tricholoma matsutake*(S. Itoet al.) Sing.)

적송(赤松)의 잔뿌리에서 자라는 버섯으로 송심(松蕈)·송균(松菌)·송화심(松花蕈)이라고도 하며, 지면에서 10㎝정도 떨어진 소나무의 뿌리에서 발생한다. 특히, 화강암이 풍화된 흙을 좋아하며 알맞은 일조·우량·지온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송이버섯은 동해안에서 태백산맥, 소백산맥에 이르는 적송숲에 많으며, 만주나 소련의 국경지대까지 퍼진다. 일본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수종의 적송이 자라고 있어서 우리의 것과 비슷한 품질의 버섯이 생산된다. 중국 동북부의 길림성이나 흑룡강성의 적송숲에서도 송이가 나오지만 이 적송은 시베리아적송이어서 그 품질이 떨어진다. 그런데 송이버섯은 꼭 적송숲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잣나무, 일본의 흑송·가문비나무에서도 발생하며, 넓은 잎나무의 숲에서 발생하는 일까지 있다. 사할린에서는 분비나무에서 발생하고 대만이나 중국의 쓰촨성(四川省)에서는 백송이나 당송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송이는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송이버섯에는 탄수화물이 8.5%정도 들어 있는데 대부분이 식물섬유이다. 향기성분은 마쓰다케올과 계피산메틸의 혼합물이다. 이밖에 비타민B1, 비타민B2, 에르고스테롤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송이는 향기가 짙고 육질이 두꺼우며 색깔이 선명하고 탄력성이 있으며 갓 피막이 터지지 않은 것으로서 자루가 굵고 짧은 것이 좋다.

송이는 구이나 다른 고기와 함께 볶음, 찜, 전골, 산적 등 각종 요리에 이용되며, 혈액의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작용과 항암작용이 있을 뿐 아니라 씹히는 촉감과 향미가 뛰어나 버섯 중 일품으로 꼽힌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 인구 : 74명(남자 44명, 여자 30명)
  - 가구 : 33호(농가 25호, 비농가 8호)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 소관이며 강릉시장
- 사업지원
  - 산촌녹색체험시설 : 산림문화회관 1동, 가족휴양촌 10동 등
  - 생산기반조성 : 산채 및 표고재배시설 16동
- 사업기간 : 2002～2004년(2002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03～2004년 사업시행)
- 사업비 : 12억원

황벽산 자락 눈꽃이 아름다운 차항 2리 산촌마을

◈ 차항리 눈꽃마을 연락처

- 평창군청 산림과(☎ 033-330-2412)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 2리 눈꽃마을
- 마을대표(☎ 010-6866-1837), 사무장(☎ 010-5371-5011)
- 홈페이지 : www.snowtown.co.kr

◈ 하늘아래 첫동네 대관령 차항리 눈꽃마을



마을 전경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 2리 눈꽃마을은 백두대간 준령인 해발 1,407m의대관령 황병산 자락 아래 위치한 작은 산촌마을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여름의 서늘한 기후로 국내 고랭지 농업의 시작점이 되었으며, 여름채소와 목축업, 낙농업이 발달한 곳으로 목장이 많다. 또한 국내 스키 발상지이자,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9호인 평창황병산사냥민속은 차항 2리 주민들이 복원하여 황병산사냥민속보존회를 만들고 2008년 8도 대동 민속놀이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 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스포츠와 문화의 자긍심을 지닌 마을이다.

차항리는 본래 강릉군 도암면의 지역에 속해있었다가 고종 10년(1906)에 정선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 폐합에 따라 거래지 노동, 춘두항 서동을 병합하였다. 1931년 평창군에 편입된 후, 거래지와 춘두항의 이름을 따서 차항리라고 하였다. 마을이름은 수레 차 자(車), 목 항(項)자를 쓰는데 차가 들어오는 길목에 있다고 해서 차항리라 불렸다고 한다. 또한 거래지라고도 했는데 수레가 왔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또한 눈꽃마을은 하늘아래 첫 동네로 마을이 고지에 위치하여 하늘과 닿아있기에 겨울의 시작과 함께 제일 먼저 눈꽃이 내리는 마을이라서 마을의 상징으로 눈꽃마을이라는 명칭이 부여됐다.

◈ 눈이 많은 마을 특성을 활용한 산촌마을사업 실행

산촌개발기본계획은 2006년에 수립되었고 2006년 9월 19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청이 주최한 산촌마을조성 기본설계발표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산촌마을개발사업은 2007년~2008년까지 2년간 14억원(국비 9.8억원, 지방비 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종합안내판, 이정표 등 안내시설,

가로수 식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산촌녹색체험시설로는 회의, 세미나, 체험행사, 이벤트 등을 개최할 다목적체험관(330㎡), 야외공연장, 다목적 체육시설(300㎡), 눈썰매장, 제설기, 마을기획 및 운영사업으로는 홈페이지 구축, 리더 및 주민교육, 마을브랜드를 개발하였다.

사계절 체험형 마을운영으로 연평균 방문객 6,000명 연수입 1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차항2리 산촌마을 종합안내판



다목적체험관

◈ 눈이 많은 마을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4계절 산촌체험프로그램

눈꽃마을은 이름과 같이 대관령 정상에 위치하여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산촌사업으로 겨울철 눈썰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스노우레프팅, 스노우카트, 설피체험, 나무스키타기 등 겨울놀이의 천국이다. 또한 겨울체험놀이와 함께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국궁체험, 공방체험, 압화,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숲속여행, 곤드레 나물밥 지어먹기, 원앙코뚜레 등 체험활동과 승마체험, 사륜바이크, 평창 황병산 사냥민속놀이 체험 및 공연 등 스릴 넘치는 체험활동 등이 있다.

계절별 주요체험으로 봄에는 잔설 속에서 피어나는 엘레지를 비롯하여 곰취, 곤드레 등을 이용한 산채체험, 여름에는 특전사의 유격체험과 가마솥 걸고 곤드레밥 지어먹기 체험, 가을에는 가족과 당나귀타고 산책로 소풍가기와 나만의 식물도감 만들기 체험, 겨울에는 눈썰매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눈 놀이 체험 등이 운영되고 있다.

체험비용은 눈썰매장이 어른 6,000원, 어린이 8,000원, 공방체험, 압화, 국궁체험, 설피(전통썰매)등이 5,000원, 원앙코뚜레 10,000원을 받고 있다. 겨울철 눈썰매장 방문객은 2,000명 정도이며, 방문객들은 마을에서 숙식을 하면서 눈썰매를 즐긴다. 마을은 눈썰매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을에서 숙식을 제공함에 따라 마을의 숙식비 수입이 입장료 수입보다 보다 많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승마장을 직접 운영하다가 현재는 하지 않고 있으며, 마을의 5개 목장을 연계한 방목체험과 승마체험을 연계 하도록 하고 있다.



눈썰매 기차



눈길승마



스노우레프팅



설피, 전통스키체험

◈ 마을지도자와 주민들이 협동하여 지속적인 마을개발사업 유치

마을지도자와 주민들이 서로 협동하여 2005년도에는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에서 수상하여 상금 5억원을 받아 마을공동 부지를 매입하였고, 2006년도에는 산림청 산촌마을 기본설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07년에는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유치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산촌녹색체험시설을 설치하였다. 또한 산림청의 백두대간 보존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음식체험관, 산나물재배 단지, 멧돼지 방목장 등 사업을 유치하였다. 2010년도에는 농림부 주최 농촌관광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으로 2,000만원의 상금을 받았으며, 권역사업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차항 1리, 2리가 선정되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3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마을의 환경개선과 축제를 위해 마을에서 2012년도에 배나무 2천 그루를 심어 배꽃축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2만 그루를 더 심을 계획이다.

마을소득사업을 위해 백두대간사업으로 산채조성사업을 신청 중에 있으며, 마을에서 국유림사업소과 관리협약을 맺어 100ha 중 10ha를 단기소득체험장을 조성하여 국유림을 활용한 더덕, 장뇌삼 등 생산판매와 고추장 등 장류를 판매할 계획이다. 마을축제로는 1월에는 전통썰매대회, 8월에는 코뚜레 행사를 개최 한다.

*** 황병산 사냥놀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일대에 전승되는 사냥놀이의 하나로서 이지역은 험준한 백두대간 태백산맥에 위치하고 있다. 예로부터 하늘아래 첫 동네라고 하여 지금도 청뚜루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이곳은 겨울이면 교통이 두절될 만큼 눈이 많이 내리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평창군 대관령면 지역은 험준한 태백산맥에 자리하여 도처에 높은 산들이 솟아 있다. 특히 황병산, 발왕산, 오대산 등 해발 1,500m 이상 되는 산들이 있어 많은 산짐승들이 살고 있었는데, 11월 초에서 이듬해 4월 말까지는 겨우내 쌓인 눈 때문에 산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왔기 때문에 산짐승 사냥을 생계로 하는 주민들이 있었다.

평창 황병산 사냥놀이는 이러한 지역적 환경을 배경으로 지역 주민의 겨울철 농한기의 생계 및 소일거리로 전해져 오는 놀이이다. 창수 26명, 제관·축관 각 1명, 농악 10명, 남녀 주민 11명 등으로 구성되며 모두 4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과장에서 사냥을 준비해 황병산으로 떠나면 제2과장에서 산돼지를 잡는다. 제3과장에서는 잡아온 돼지와 음식을 서낭당에 차려 마을 제사를 지내며, 마지막 제4과장에서는 농악을 울리면서 마을축제를 벌인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2리
  · 인구 : 220명(남자 88명, 여자 132명)
  · 가구 : 57호(농가 46호, 비농가 11호)
  · 면적 : 2,607ha(산림 1,994ha, 농지 211ha, 기타 402ha)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 소관이며 시장 · 군수
- 사업지원
  · 생활환경개선 : 안내시설, 가로수 식재,
  · 산촌녹색체험시설 : 다목적체험관, 눈썰매장, 야외무대
  · 마을기획 및 운영 : 홈페이지 구축, 리더 및 주민교육, 마을브랜드개발
- 사업기간 : 2006～2008년(2006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07～2008년 사업시행)
- 사업비 : 14억원

동강과 어라연의 비경을 간직한 문산리 뼝창 산촌마을

◈ 문산리 산촌마을 연락처

- 영월군청 환경산림과(☎ 033-370-2750)
- 위　　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 1리
- 마을대표(☎ 010-5372-4994), 마을실장(☎ 011-9260-8658)
- 홈페이지 : www.dongkangnet.com

◈ 동강이 휘돌아 나가고 어라연이 아름다운 문산리 뼝창 산촌마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는 동강의 중류부에 위치한 강변마을로 1㎞의 뼝창(강원도 사투리로 '절벽'이라는 뜻)으로 돌아나가는 아름다운 절경을 품고 있는 산촌마을이다. 영월에서 차로 들어오는 마지막 마을로서 다리가 생기기 전 줄로 연결된 배를 이용하여 생활하였던 곳이라 그 나루터가 남아 있고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면 사행천으로 굽이치는 정선 방향으로 강변 풍광을 볼 수 있는 떼재가 있다. 마을 아래쪽에는 모래톱이 펼쳐지고 깊은 소를 이루고 있는 하소가 자리 잡고 있어 신비스러움을 느끼게 해준다. 아찔한 절벽 위의 험한 길인 독진베리나 뼝창등산로에서 내려다보는 마을풍광은 문산리 산촌마을이 비경의 고장임을 알게 해준다.



문산리 산촌마을 조감 전경

삼한시대 이전부터 강을 주변으로 살았을 정도로 유서 깊은 문산리는 1916년 행정구역 통·폐합작업으로 문천리와 거산리를 합쳐 문산리로 부르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문산 1리는 과거 금이, 금의로 불리었다. 전체 4개의 자연부락이었으나 3반이 어라연 생태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이주하여 현재에는 1, 2, 4반에 47가구(사업이후 귀촌가구 10가구) 221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주민의 연령층은 30대 이하가 21명, 40~50대가 80명, 60대 이상이 100명으로 다양하여 분포한다.

마을의 주요 소득원은 고추, 콩, 수수, 산채(곤드레)를 재배하며 민박과 식당 등으로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다. 일반적인 관행농법을 이어오다가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마을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러던 중 산촌개발사업과 고사리재배 등 마을공동수익 사업을 통해 마을단합과 귀농, 귀촌인구의 증가 등으로 마을 활력을 되찾았다.

문산리 뼝창 산촌마을은 동강의 레프팅과 트레킹 등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이 1년에 약 5,000명에 이르러 오지마을로서 영월을 대표하는 체험관광마을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 마을주민의 숙원이었던 마을개발을 위한 산촌개발사업의 추진

문산리 뼁창 산촌마을은 군이 영월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개발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영월댐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군의 추천으로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당초 2003년에 마을은 산촌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으나 마을의 산촌개발 사업지에서 철기시대 유물이 출토되면서 1년간 문화재 발굴사업으로 산촌개발사업이 유보되었다.



뼁창 산촌마을 안내판

2004년에 산림조합 엔지니어링사업본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많은 주민회의를 거쳐 2005년~2007년까지 산촌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당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마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현재에도 운영위원회가 회칙에 의하여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산촌개발 사업내용에서 생산기반 및 체험시설로 녹색관광센터 1동, 산촌체험시설 3동, 임산물 가공시설, 머루터널, 방문자 안내소, 정자, 산수유 가로수 식재 등의 시설을 하였으며, 임산물생산시설로 고사리 임간재배시설과 곤드레 및 산채 재배하우스 18동을 시설하였다. 문산리는 산촌개발사업 이후 정보화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의 사업을 수혜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화마을사업 사무장 지원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시설은 문산 1리의 협의하여 문산 2리에 설치·운영되어 있다.


뼁창 산촌마을 산촌체험시설

2007년 신재생에너지활용 국비지원 시범사업으로 약 1억원의 지원금으로 녹색관광센터와 임산물 가공시설에 태양열 시설을 추가하여 시설에 대한 연료비의 50%를 절감하고 있다.

◈ 사업시설 전담 운영시스템 실행으로 마을 운영주체의 활성화 추진

마을에 공동부지가 없는 관계로 사업의 시설물은 새마을 지도자, 개인 부녀회 등의 부지에 설치되었다. 녹색관광센터는 김영걸 마을실장이 운영을 하고 있다. 운영을 하여 얻어진 수익금의 30%를 보수로 받으며 70%는 마을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다. 산촌체험시설을 위하여 10명의 부녀회원이 350만원씩 기금을 각출하여 350평의 부지를 마련하였다. 그 부지위에 숲속의 집 3동이 설립되어 마을 부녀회가 운영을 하고 있다. 2011년 산촌체험


녹색관광센터와 임산물 가공시설

시설 운영결과로 부녀회에서 마을기금으로 1,500만원을 적립하였다.

고사리재배는 마을 노인회 주관으로 작목반의 형태로 2,618㎡의 임야에 임간재배로 재배된다. 2011년에는 60kg을 생산하였다. 고사리 임간재배시설의 운영으로 노인회는 1,500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다. 두릅, 곤드레 재배하우스는 5가구가 작목반의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2010년 동해로 인하여 곤드레 대신 현재는 고추를 재배하고 있다. 2009년까지 곤드레 1Box(4kg)에 15,000원에 판매를 하여 수익금의 10%를 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왔다. 문산리 뼝창 산촌마을 운영위원회의 기금은 현재 2,800만원이 적립되어 있다. 사업이후 1년에 약 4,000만원의 돈이 기금으로 적립되었으나 약 80%정도가 시설운영비로 재투자되고 있다.



산채(곤드레) 재배하우스

뼝창 산촌마을의 사업 성공요인은 각 운영주체별로 사업시설을 독립적으로 전담 운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각 운영주체별로 시설을 운영하여 실제 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마을운영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산림자원활용 소득제고를 위하여 산촌사업 당시 밤나무(1,500평)를 식재하였다. 동해 피해로 밤나무가 죽어 마을에서 2009년에 밤나무를 다시 식재하였다. 2013년부터는 밤 수확이 가능하여 기존의 체험 외에 밤나무 수확체험을 계획하고 있다.

◈ 동강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체험사업의 추진과 주민 소득의 제고

문산리 뼝창 산촌마을은 동강변에 위치한 마을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감입곡류 사행천이 지나가는 마을이다. 동강은 전국적으로 이름난 청청하천이며 마을에는 지리교과서에나 나오는 강의 모래퇴적층이 펼쳐져 있는 등 지리적인 특징이 매우 뛰어나다.

마을은 주민들의 소득제고를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해 온 체험사업을 2012년부터 녹색관광센터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마을에는 동강을 활용한 동강레프팅, 농산물 수확 등의 체험과 산촌체험을 접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강 레프팅 체험

문산리 뼝창 산촌마을은 과거 한강뗏목이 내려갔던 곳이라 그 뗏목꾼들이 불렀던 노동요인 정선아리랑이 전승되고 있으며, 또한 메밀과 옥수수를 이용한 토속적인 먹거리(메밀전병, 올창묵 등)가 있어 체험객과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전통자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강 레프팅과 같은 현대적 여가체험의 제공을 통해 마을을 빛내고 있다. 이외에도 마을 이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뼝창트레킹과 문틀(국수틀)체험 등은 차별화된 마을의 체험거리로 평가할 수 있다.


국수틀 체험

고추농사와 두릅, 고사리 수확과 같은 농촌체험과 물고기잡기와 강변산책의 체험을 곁들일 수 있으며 강원도 토속음식인 메밀전병과 동강매운탕 요리는 맛깔스런 체험여행의 기쁨을 더 해준다. 더구나 동강최고의 비경인 어라연(2004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래프팅으로 탐방하는 체험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준다. 체험은 주로 1회에 약 80명의 체험객을 대상으로 체험을 하는데 1일 체험으로 2식 제공에 7만원/1인의 경비를 받는다. 마을은 체험으로 약 400만원의 순수익을 거두었다.

◈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마을공동체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계속되고..

문산리 뼝창 산촌마을에는 기우제를 지냈던 전통문화가 남아있다. 옛날 비가 오지 않아 물이 부족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면 물 굴(이무기굴)이라 불리는 천연 석회동굴 앞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제사를 지낸 후, 긴 장대에 개머리를 꽂은 긴 장대를 물 굴에 넣고 나온다. 그런 후에 독진베리를 지나오면 마을에 비가 내렸다고 마을어른들이 얘기한다. 또한, 기우제 이외에도 정월대보름 볏집태우기, 마을 윷놀이, 추석 소원 빌기 등과 7~9월까지 매달 1일 실시하는 애향회주관 마을환경 가꾸기 행사 등이 있다.

산촌개발사업으로 마을에서는 소득이 증가되었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마을실장(마을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며 마을에 펜션과 민박집을 산촌사업과 연계)과 같이 마을 일에 헌신적인 주민이 있어 마을주민들은 서로 협력하여 사업이 성공되도록 협력을 하였다. 사업의 추진 및 운영으로 공동체의 결속하기 위한 협력은 확고해졌다.

지속적으로 마을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이 부족하여 마을에서는 아름다운 마을의 자연경관과 마을공동체를 현재의 상태로 유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향후 예산의 투자가 가능하다면,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숙박동의 증대와 오토캠핑장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산리 뼝창 산촌마을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고 산림자원(고사리, 두릅, 산채, 밤 등)을 활용한 소득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두릅나무**(Japanese Angelica, *Aralia elata* (Miq.) Seem.) : 두릅나무과

낙엽활엽관목으로 주로 양지바른 산이나 들에서 자란다. 수고는 3~4m까지 자라고 줄기에 가시가 있으며, 잎은 어긋나고 날개깃처럼 2번 갈라진 겹잎으로, 잎줄기와 잔잎에 가시가 많다. 잔잎은 난형이며 가장자리에는 큰 톱니들이 있다. 꽃은 흰색이고 8~9월에 가지 끝에 산형(傘形)꽃차례를 이루어 핀다. 꽃줄기에는 짧은 갈색털이 있으며, 꽃차례 여러 개가 하나의 산형꽃차례를 이루는 겹산형 꽃차례를 이루고 있다. 꽃잎·수술·암술대는 각각 5개이며, 열매는 핵과(核果)로 지름 3㎜정도로 10월에 검게 익는다. 4월에 새순이 나와 활짝 펼쳐지기 전에 따서 삶은 다음 초장에 찍어 먹기도 하는데, 맛이 좋아 상품 산채 중의 하나로 꼽힌다. 나무껍질을 말린 총목피(楤木皮)는 한방에서 진통제나 당뇨병 치료에 쓰이며, 봄과 가을에 뿌리를 캔 다음 껍질을 벗겨 햇볕에 말린 뒤 달여 마시면 기침이 심하게 나거나 소화가 잘 안될 때 효과가 있다. 꽃은 밀원으로 가치가 있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산촌마을
  - 인구 : 221명(남자 111명, 여자 110명)
  - 가구 : 47호(농가 25호, 비농가 22호)
  - 면적 : 1,127ha(산림 962ha, 농지 100ha, 기타 65ha)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 소관이며 영월군수
- 사업지원
  - 생산기반조성 : 녹색관광체험센터 60평 1동, 숲 속의 집 10평, 3동
    임산물 가공시설 1동, 종합안내시설, 정자 등
  - 임산물가공시설 : 저온저장고, 산지유실수재배(밤나무)
    산채재배하우스(곤드레, 두릅), 임간방목(고사리, 펜스)
- 사업기간 : 2004~2006년(2004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05~2007년 사업시행)
- 사업비 : 14.0억원

산림자원을 특화하여 주민복지를 실현하는 유촌리 산촌마을

◈ 파로호 느릅마을 연락처

○ 화천군청 산림경영과(☎ 033-440-2363)

○ 위　　치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 이　　장(1리 ☎ 010-9243-4216, 2리 ☎ 017-375-5515)

○ 홈페이지 : www.goparoho.com, E-mail : nikkang11@naver.com

◈ 용화산 자락과 파로호 수변 경관을 자랑하는 산촌 체험마을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에 위치한 유촌리(楡村里) 느릅마을은 고려 말부터 혜주오씨의 집성촌마을로 과거 늘읍삼리, 유읍삼리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마을에 느릅나무가 많았으며 느릅나무 아래에 샘이 있다고 하여 느릅새미, 유촌(楡村)이라 불렸으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서래미, 뛰개, 먼내골을 병합하여 유촌리가 되었고 1979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유촌1, 2리로 분할되었다.



마을의 파로호 경관

자연부락명은 느릅마을로 지칭되나 2004년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전 주민이 참여하면서「파로호 느릅마을」로 불리고 있다. 2005년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유천천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느릅나무를 식재하여 현재 마을에는 1,000그루 이상의 느릅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유촌리 산촌마을은 마을 앞에 용화산을, 북으로는 파로호를 두고 있으며 간동면 사무소 소재지로서, 화천군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마을로는 오음리, 간척리, 용호리, 도송리가 있고 춘천시 사북면(춘천호)과 신북읍(소양댐, 청평사)에 인접하고 있다. 마을의 북쪽으로는 담수어종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파로호가, 그리고 남쪽으로는 우리나라 100대 명산의 하나인 기암괴석으로 유명한 용화산이 위치하고 있어 파로호 느릅마을은 천혜의 수변, 산림자원이 풍부한 산촌마을이다.

주요농산물로는 친환경 쌀인 메뚜기쌀, 잡곡(콩, 팥), 유지식물(들깨, 참깨), 저농약 애호박, 고추, 감자, 고구마, 토마토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깨와 고추는 마을의 방앗간을 이용·가공하여 마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국의 회원에게 직거래되고 있다. 또한, 곰취, 고사리, 곤드레 등 산나물을 자연과 시설에서 재배, 채취하고 있으며 신 소득작물인 블루베리를 생산·체험과 아울러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업경영을 하고 있으며, 체험과 산림자원이 어우러진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 풍부한 산림자원을 소득원으로 특성화하는 산촌개발사업 추진

유촌리 산촌마을은 2004년 새농어촌건설사업을 시작으로 마을펜션 설립, 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하면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체험마을로 성장하였고, 화천한옥학교와 화천현장귀농학교를 마을에 유치해 화천군의 귀농의 메카로 자리를 잡았다. 마을의 주요 소득원은 애호박농사이다. 애호박농사는 7~10월 중순에 수확하여 마을의 수입구조가 가을에 집중됨으로 마을에서는 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방안으로 2005년에 산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구상(마을의 93%가 산지- 산채재배)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촌개발사업을 준비하여 2006년에 사업이 선정되었다.



블루베리 체험장 및 하우스 전경

2007~2009년까지 추진된 산촌개발사업으로 블루베리 생산과 가공, 산채, 조경수 등 재배 시설하우스를 설치 및 파크골프장, 삼림욕을 위한 소로, 등산로 등의 체험시설과 산약초재배단지 등을 조성하였다. 현재에는 마을소유의 산림 13ha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시설 및 약초재배단지 사업에 추진하고 있다.



잣나무숲 파크골프장 전경

이종석 추진위원장은 산채작목반을 구성하고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기를 원했으나 사업선정 후, 마을에서는 산채재배 사업을 고추, 파프리카 등 일반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있어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소득사업을 산림관련 산채재배로 제한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 마을주민 일부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산채재배 시설하우스는 희망자에 한하여 시설비 20%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마을 공동부지에 소득단지를 조성하였으며, 10%는 작목반활성화 기금으로 각 작목반에 지원하였다. 현재 산채재배 시설하우스는 5년간 계약으로 산채작목반이 위탁경영하고 있다. 산채재배 시설하우스로 마을 운영위원회에 1년에 2,700만원의 수입이 발생되는데 1,500만원은 마을기금으로 적립되고 하우스관리 인건비로 1,2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2008년에 12농가가 시작한 블루베리농사(묘목구입비 지원 - 300주/가구)는 현재에는 15농가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블루베리 1그루에서 열매 10kg(체험시 5,000원/100g, 판매시 35,000원/kg)을 수확하는데 2011년에는 총 2ton을 수확하였다.



마을의 신 소득원인 블루베리

◈ 국내최초의 잣나무 숲과 연계한 산촌녹색 체험시설의 운영

산촌개발사업으로 마을의 산림자원인 잣나무 숲 공원에서 즐기는 친환경 스포츠중 하나인 파크골프를 도입시켜 시원한 잣나무 그늘에서 산림욕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 파크골프장은 총 9홀의 규모로 국내 유일의 산림스포츠 체험시설로 운영 중이다. 파크골프장 체험시설 주변에는 주차장 및 이동식 화장실, 식수대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임산물 재배하우스도 함께 조성해 잣나무 숲 파크골프와 임산물 재배체험을 연계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잣나무 숲 파크골프는 계절과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코스이고 여타 농산물 체험과 달리 재료비가 따로 들지 않아 꾸준한 체험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블루베리 재배시설 및 체험시설을 마련하였고 이를 주민 소득과 연계해 농가에서 체험과 판매를 연계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파크골프 체험시설의 운영

2012년 현재 마을의 공동기금(1억5,000만원 : 유촌리 개발위원회+파로호 영농조합)과 부지(47ha : 유촌리 개발위원회)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및 운영

산촌개발사업에 이어 2010년 5월부터 산촌개발사업의 연계사업으로 느릅마을은 국립산림과학원,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 화천군산림조합, 화천군과 함께 산림자원을 소득화할 수 있는 산채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용화산 자락의 마을 산(10ha)에 토종 과실수와 산약초를 식재해 산림소득을 창출하는 산림복합경영 시범림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2011년 5월 24일 산림복합경영단지 운영협약식을 국립산림과학원과 체결하였다.



산림복합경영 시범림 현황판

2010년부터 과실수 묘목 식재, 산채 식재 작업을 실행하였으며, 재배에 관심이 높은 주민을 모집해 마을산하 작목반 형식의 용화산 산림복합경영연구회를 조직하였다. 2011년 봄부터 곰취, 참취, 나물취 등의 단기소득 작물의 수확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산채 체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산속에서 재배되는 임산물로서 그 독특한 향과 맛이 구매자에게 높게 평가되고 있어 향후 더 높은 수익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산림복합경영단지의 원활한



산림복합경영 산채재배지 전경

조성과 운영을 위해 워크숍을 여러 차례 개최 하는 등 산림자원의 소득화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산림청 지원의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산림자원을 특화하여 주민의 소득제고와 복지를 실현

유촌리 산촌마을은 다양한 기관과 1사1촌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2008년에 국립산림과학원이 1사1촌 관계를 맺고 마을을 방문하여 농사 일손 돕기, 산림복합경영단지 잡초제거 등 정기적인 1사1촌 행사를 갖고 있다. 마을의 운영위원회(20명 - 토착민 10명, 정착민 10명)는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소통과 화합을 위한 대·소사 및 행사에 대한 정보를 항상 공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마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1사1촌 행사(감자캐기)

2011년 완공된 마을의 바로파로센터 2층에는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산골마을 작은 도서관" 유치하였으며 군의 지원으로 유촌리 육아보육센터를 개설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창출의 효과를 얻고 있으며 마을의 복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마을발전을 위하여 2008년부터 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하여 마을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다. 마을에 있는 한옥학교, 귀농학교로 인하여 2008년 134호에서 2012년 현재160호로 가구가 늘어났다. 마을에는 젊은 인적자원이 많으며, 웰빙 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수요의 파생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인 산채라는 테마로 소득을 얻기 위해 산림에 지속적인 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1사1촌 행사(밭 잡초제거)

또한, 화천군의 협조를 얻어 화천군내의 5개 산촌마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발전을 위하여 1개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마을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혜 받아 노력하였지만, 마을은 미래를 위하여 산림자원을 특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환경개선과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연계)을 통한 주민복지의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 느릅나무**(*Ulmus davidiana var. japonica*(Rehder) Nakai) : 느릅나무과

낙엽활엽교목으로 3~4월에 개화하여 5~6월에 결실된다. 산골짜기에 자라며 나무껍질은 암갈색으로 세로로 균열이 생긴다. 햇가지는 적갈색으로 단모가 있다. 잎이 돋기 전에 잎겨드랑이의 취산꽃차례에 자잘한 황록색 꽃이 모여서 핀다. 느릅나무는 한자로는 유(楡)라 하고 유피(楡皮) 또는 유백피(楡白皮), 뿌리껍질은 유근피(楡根皮)라 불리며 이른 봄이나 가을에 뿌리껍질은 벗겨서 약재로 쓰여 왔다. 축농증과 비염에 효과가 있으며 천연수면제와 종기제거를 위한 약재로 사용된다. 열매와 잔가지는 위암치료에 쓰이기도 한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 인구 : 656명(남자 364명, 여자 292명)
  - 가구 : 134호(농가 94호, 비농가 40호)
  - 면적 : 1,798ha(산림 1,424ha, 농지 235ha, 기타 139ha)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 소관으로 화천군수
- 사업지원 내용
  - 생활환경개선 : 산촌개발사업 안내시설 등
  - 산촌녹색체험시설 : 산림욕장, 파크골프장, 운동시설,
  - 생산기반조성 : 산채재배하우스, 산양삼·블루베리·조경수 재배단지
  - 마을기획 및 운영 : 마을컨설팅, 리더 및 주민교육
- 사업기간 : 2007~2009년(2007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08~2009년 사업시행)
- 사업비 : 16억원

국토의 허파 허브 제천! 한방특화마을 명암리 산촌마을

◈ 명암마을 연락처

- 제천시 산림공원과(☎ 043-641-5342)
-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 사무장(☎ 010-8789-9614)
- 홈페이지 : http://www.wellbeingtown.co.kr, E-mail : source8@hanmail.net

◈ 감악산 남쪽에 위치한 한방특화마을, 명암리 마을



명암마을 전경

호서(湖西)지방의 호서는 제천 의림지에서 유래된 말이다. 호서지방이란 의림지 서쪽지방을 이르는 말로 제천 인근의 충정(忠淸)지역을 아우르는 말이다. 또한 제천은 조선 선조 어의(御醫)였던 이공기(李公沂)선생의 본향(本鄕)이기도 하다.

명암리는 본래 제천군 근우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황티리와 직티리를 병합하여 바위로 된 일출봉과 월출봉의 해일(日)자와 달월(月)자를 합자하여 명암(明岩)리라 하였고, 1920년 9월경에 이르러 봉양면에 편입되었다. 이 후 1980년 4월1일 제천시 시 승격에 따라 제원군 봉양면 명암리가 되었다가 1991년 1월1일 제천시 봉양면, 1995년 1월 1일 시 · 군 통합과 동시에 봉양면이 읍으로 승격하면서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가 되었다. 일

감악산 남쪽 명암리는 감악산에서 따온 이름이다. 감악산 정상인 일출봉(日出峰)의 날(日)자와 월출봉에서 달(月)자를 합해 맑을(明)자와 바위(岩)자로 되었다.

명암리 마을은 치악산 남대봉에서 감악봉을 거쳐 약 100km거리에 위치한 마을이며 감악산 자락은 민간신앙, 천주교, 불교가 자리 잡고 있는 성스러운 곳으로서 서쪽의 신림(神林)은 글자 그대로 신성한 숲이라는 뜻이다. 남쪽의 봉양에는 대원군의 천주교 박해 시 천주교인들이 생활하던 곳을 성지화한 베론 성지가 있고, 감악산에는 신라 고찰 백련사가 자리 잡고 있으며 산촌마을 내에 한방명의촌과 산약초타운이 인접해 있어 산촌체험뿐만 아니라 한방의료체험까지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한방특화 산촌마을이다.

◈ 산약초 및 임산물을 특화한 한방특화도시 제천의 대표마을

총사업비 13억8,000만원이 투입되어 조성된 명암산촌마을은 2008년도 충북도 특수시책인 산채장터마을 대상지로도 선정되어 3억원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산약초

및 임산물 등을 직거래 할 수 있는 산채장터를 조성하였고, 2010년 한방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일조하였다. 마을 전체면적의 95%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채와 약초 등 임산물을 중심으로 산채전문테마마을 형성을 중장기 프로젝트로 구상하고 있다.

제천은 연평균 하루 일조시간이 7.2시간으로 인근 충주지역의 5.3시간보다 훨씬 길고 4계절이 유난히 뚜렷하여 과실, 약초 등의 품질과 저장성이 우수하여 약초재배 생산의 최적지로 손꼽힌다.

산양삼과 함께 백출, 두메부추, 잔대, 생강나무, 산작약, 천궁 등 600종 이상의 토종식물들이 자생하는 명암리는 한방특화도시 제천에서도 약초 본고장의 대표 마을이라 할 수 있다.

◈ 토종 산약초와 수려한 자연경관 자원을 활용한 산촌개발사업 실행



산촌마을 건축시공과정

명암리 마을의 감악봉은 급사면을 따라 일정하게 토양층이 발달한 토산으로 감악봉과 석기암의 남사면 해발 500m이하와 서사면의 해발 450m이하의 일부 지역에 소나무 순림이 분포한다. 해발고도가 높아지면서 해발 700m까지는 신갈나무 등의 참나무류와 혼생하며, 점차 신갈나무림으로 전이 진행된다. 감악봉 정상부에는 신갈나무를 우점으로 졸참나무, 물박달나무, 당단풍, 철쪽, 물푸레나무, 진달래, 생강나무, 다래나무, 머루나무, 노린재나무 등이 분포한다.

초본류로는 대사초, 쌀새, 단풍취, 큰기름새, 산거울, 애기나리, 닭의장풀, 참취, 큰까치수염, 노루오줌, 꽃며느리밥풀 등의 출현빈도가 높고 감악봉과 석기암을 중심으로 한 식생보전대상지역의 식생평가 등급은 Ⅲ, Ⅳ등급이 혼재해 있다.

버섯류로는 송이버섯, 밤버섯, 싸리버섯, 개미버섯이 자생하며 나물류로는 취나물, 고사리, 두릅, 곰취, 곤드레 그 외 산딸기, 고로쇠 등이 채취되고 있다.

또한 준고랭지 기후특성을 살린 저농약 사과생산과 명암천 하류지역의 쌀은 마을 내에서 자급자족을 하고 있다. 마을산에는 장뇌삼, 더덕, 표고, 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축산물로는 소와 사슴이 있으며 닭과 오리, 염소를 방목하고 있다.

명암산채건강마을 영농조합법인 및 명암환경농업작목반에서는 참깨, 들깨, 잡곡 사과, 더덕 등을 생산하여 10~20억원의 연매출액을 올리고 있으며, 명암리 사과작목반의 사과나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아 과수농가의 기술적 지도 및 품종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마을의 밑바닥에 깔린 원동력을 바탕으로 한 2004년 명암산촌마을조성

사업 계획은 2004년 12월 법인등록을 마치고 자체 선진지견학을 통하여 마을 운영방법, 생태건축 등을 체득하였고 주민 손으로 직접 생태건축을 하기 위해 전문가와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마을의 위치적 여건에 맞게 20평형 7개동의 테마산촌 체험시설동 및 명암산림체험센터, 아치형교량, 등산로, 산책로개발 등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2004년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수립을 마쳤으며, 2005~2006년에 걸쳐 산촌마을을 조성하여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웰빙 산촌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 타사업과의 연계, 한방명의촌

2006년 명암산촌마을의 준공에 이어 마을주민의 단합된 의지와 추진력으로 한방명의촌 사업 추진의 결실을 맺게 된다. 2008년 3월부터 10월에 걸쳐 보조사업비 8억9,600만원으로 산촌마을 인접부지에 조성된 제천 제1한방명의촌은 산촌마을의 운영에 날개를 더해 한 번 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진료실, 기치료실, 좌훈실, 탕제실이 마련되어있으며, 2010년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홍보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등 한방의 도시로서 제천의 이미지를 한껏 제고하였다.



한방명의촌 전경

주민들이 직접 채취한 각 종 산나물들로 맛깔나게 상차림 한 음식들을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상주하고 있는 한방 의료진들로부터 질병을 정확히 진단받고 진료와 처방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한방특화 산촌마을이라 할 수 있다.

산촌마을과 한방명의촌이 연계된 전국 유일의 산촌마을로 휴식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한 번쯤 꼭 방문할 이유가 있는 마을이다.

◈ 타사업과의 연계, 산약초타운

2004~2006년 산촌마을조성사업과 2008년 한방명의촌사업에 이어 명암리는 특유의 공동체단합을 바탕으로 산촌마을 인접부지에 2010~2011년 2년에 걸쳐 산약초타운을 조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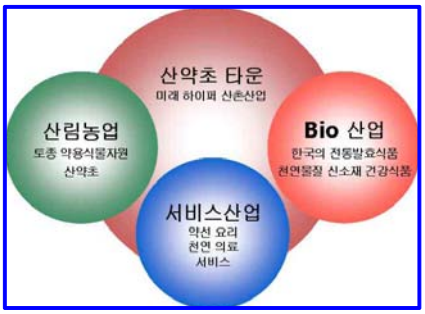
보조사업비 14억9,500만원, 자부담 9억9,800만원, 총 24억9,500만원이 투입된 명암산약초타운으로 명암리 산촌마을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하이퍼 산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한방제품센터, 한방미용체험관, 한방약초체험장, 약초정원, 약초원 등을 조성하여 직접 재배한 산약초와 도처에 자생하는 야생산약초, 임산물 등을 가공하여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산에서 채취하는 임산물 및 토종

산약초를 자원으로 한 미래 산촌산업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산약초타운 전경



산약초타운 운영 방침

◈ 2008 전국 우수 산촌마을 선정



우수 산촌마을 선정

명암리는 산림청에서 주관한 2008년 2월 전국 우수 산촌마을 인센티브 평가에서 조성부문 우수 산촌마을로 선정된 바 있다. 이 평가를 위해 산림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들이 명암리 현지에 도착해 자치단체의 사업추진역량, 마을주민의 사업추진역량, 예산집행현황, 홍보실적, 마을지원활동, 마을공동체의식, 기관장 관심도 등 마을 조성 전반에 대하여 대대적인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각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산촌마을로 선정되었다.

준공직후부터 매년 타 시군 및 단체에서 선진지견학 차 꾸준히 방문하고 있으며 KBS 6시 내고향 등 많은 신문방송 언론매체에 소개되었다.

◈ 산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모색

전국적으로 산촌 생태마을이 여러 곳이 지정되어 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적 전략과 주민자치 역량 극대화가 결합된 모범적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암리 산촌마을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내외적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했고, 명암리 마을은 특유의 단합된 공동체적 정신으로 명암 산촌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2006년 준공하였다.

2006년 준공 후 6년이 지났지만 시간이 갈수록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타지역 산촌마을과는 달리 현재 명암산촌마을 운영은 매년 꾸준한 방문객과 매출액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개방의 파도가 농민들을 땅에서 산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명암리 산촌 생태마을주민들은 연계사업인 산약초타운을 통해 오히려 산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고, 산촌마을을 기반으로 한 산림농업을 통해 새로운 발전 및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한다.

*** 두릅나무**(*Aralia elata*(Miq.) Seem.) : 두릅나무과

두릅나무과의 낙엽활엽관목으로 꽃은 양성 또는 수꽃이 섞여 있으며, 8~9월에 백색으로 피고 지름은 3cm정도이다. 장과상 핵과는 둥글고 지름 3mm정도로 10월에 흑색으로 익고 나무 전체에 예리한 경침이 많고, 수고는 3~4m까지 자란다. 한국, 중국, 일본이 원산지이며, 전국의 양지바른 산기슭, 골짜기의 전석지에 주로 분포한다. 두릅나무는 내한성이 강하며 토질은 가리지 않으나 거름기가 많은 비옥하고 배수가 좋은 양토 또는 식양토가 적지이다.

두릅나무의 근피(根皮), 수피를 총목피라 하며 봄에 채취하여 가시는 제거하고 햇볕에 말려 약용으로 쓰며 위장병, 신경통, 당뇨병 치료에 효과적이다. 새순은 데쳐서 식용으로 사용하며, 꽃은 밀원으로도 가치가 높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 인구 : 206명(남자 98명, 여자 107명)
  · 가구 : 102호(농가 75호, 비농가 27호)
  · 면적 : 2,010ha(산림 3,299ha, 농지 83.5ha, 기타 10.2ha)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 소관이며 시장 · 군수
- 사업지원
  · 생활환경개선 : 산림문화회관리모델링, 등산로정비, 주민건강센터 등
  · 산촌녹색체험시설 : 산촌문화센터등 체험시설동, 안내판 등
  · 생산기반조성 : 작물보호 펜스설치
  · 마을기획 및 운영 : 홈페이지 구축
- 사업기간 : 2004～2006년(2007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08～2009년 사업시행)
- 사업비 : 13.8억원(설계비용 별도)

백두대간의 중심 월악산을 병풍 삼은 월악리 산촌마을

◈ 월악마을 연락처

○ 제천시 산림공원과(☎ 043-641-5342)

○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 사무장(☎ 010-3206-2262)

○ 홈페이지 : http://www.wavill.kr/, E-mail : showdown@korea.kr

◈ 청정 자연의 보고 국립공원 월악산을 병풍삼은 월악마을



월악산촌마을 전경

충청북도의 북부 제천시의 남쪽에 위치한 산악지역으로 동쪽은 단양군, 서쪽은 한수면, 남쪽은 소백산맥의 계립령을 경계로 경북 문경시와 수산면이 접하고 있다.

제천시까지 육로로 55㎞, 표고는 280m이며, 남서쪽은 제천 10경 중 제 3경인 국립공원 월악산(해발 1,094m)이 위치한다.

고구려 시대 국원경 관할의 사열이현(沙熱伊縣)에 속해 있다가 통일신라시대에는 덕산향(德山鄕)이라 하였고, 신라 경덕왕(757)에는 청풍(淸風)으로 개칭되어 내제군(奈堤郡)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 현종(1018)때에는 태원군(太原郡:지금의 충주)에 속하였다. 1914년 군 · 면 폐합에 따라 고려 때 덕산향(德山鄕)이 있었으므로 제천군 덕산면(德山面)이라 하였다.

덕산면 월악리 마을은 서울에서 2.5시간정도 소요되며 제천의 지형이 남북으로 길쭉한 이유로 실질적 생활권이 제천보다는 충주 쪽에 가깝다. 월악산국립공원의 북쪽사면을 따라 흐르는 제천 10경 중 하나인 용하구곡과 인접해 있는 마을로서 농지는 부족하지만 공원 내 자연산 임산물이 풍부하고, 일년내내 국립공원을 찾는 등산객과 여름철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이 줄을 잇는 마을이다.

월악산은 백두대간이 소백산을 지나 속리산으로 연결되는 중간에 위치하며 산세가 험준하고 기암단애가 맹호처럼 치솟아 예로부터 신령스런 산으로 여겨져 영봉(靈峰)으로 불리기도 한다. 월악산의 양편에는 송계8경과 용하9곡이 쌍벽을 이루면서 자연경관의 극치를 자아내고 있고, 선암계곡 내 도락산의 아기자기함과 충주호의 푸른 물과 조화를 이룬 구담봉, 옥순봉은 가히 선경(仙景)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또한 신라 말 마의태자와 덕주공주가 마주보고 망국의 한을 달래고 있다는 중원미륵리사지의 석불입상과 덕주사의 마애불을 비롯하여 덕주산성 등 많은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역사와 문화, 자연경관을 두루 갖춘 곳이다.

◈ 월악산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 자원을 활용한 산촌개발 사업 실행

월악리 산촌마을은 2008년 산촌마을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 되었다. 그 후 곧바로 월악산촌마을영농조합법인(대표 김진악)이 설립되었으며, 2009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립한 후 2010~2011년 2년에 걸쳐 사업이 시행되고 2011년 12월에 준공되었다.

초기에 마을 여건분석 등을 통해 타 산촌에 비해 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농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부분의 임야가 국립공원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어 임산물 식재 및 개발이 어려워 임산물소득을 위한 기반 사업을 구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뛰어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연중 관광객이 많으며 마을의 폐교를 임대하여 전통체험학교를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연중 1만명 이상의 학생이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산촌의 소득 형태인 임산물을 이용하기 보다는 방문객을 이용한 소득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높고 전통체험학교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면 주민과 체험학교 측 모두 시너지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사업에 착수하였다.

월악산촌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우선 월악산과 근처 계곡을 찾는 방문자들이 산촌을 체험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산촌체험시설동 1동(220㎡)과 방갈로체험동(18㎡) 5동을 설계에 반영 및 시공 준공하였다. 이로써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월악산을 찾는 방문객과 등산객 등의 마을방문자들로 하여금 자연에서 산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방문객들에게 임산물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강조 학습하는 효과와 전통학교의 방문학생들과 연계한 학습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임산물 및 특산물전시장(33㎡)을 준공하였다.

임산물생산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약 20,000㎡의 임야에 오미자, 두릅, 산양삼 등을 식재하여 마을의 생산기반소득증대를 꾀하였으며, 표고재배하우스 4동을 준공하여 표고생산 등 다양한 임산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갈로체험동



표고재배하우스

◈ 타사업과의 연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이란 정부에서 백두대간보호 지역지정(2005.9.9)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백두대간을 통과하는 6개도, 32개 시·군(108개 읍·면·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충북의 백두대간구간은 140km(소백산~삼도봉)로 남한 총 684km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호지역 지정면적은 35,616ha로 충주,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등 6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다. 덕산면 월악리는 백두대간 13번째 구간으로 백두대간 중에서도 그 중심에 있다.

백두대간 지역은 건강한 산림자원 및 생태체험 등의 중심지이고, 청정지역으로서 도시민의 임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임산물 생산기지로 육성 추진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한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특산물을 중심으로 향토 산업을 육성하여 소득증대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백두대간 지역주민을 백두대간 보호 및 경영의 주체로 육성하여 자율적인 백두대간 보호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월악리 백두대간사업은 매년 꾸준히 추진 지원 중이며 주요 지원 대상은 마을공동 저장고, 재배하우스, 표고재배사, 가공시설 등 마을공동추진사업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저온저장고



재배관리사

◈ 빼어난 자연경관과 청정 임산물의 보고 월악리 산촌마을



임산물 체험학습장

총사업비 14억원이 투입되어 조성된 월악산촌마을은 월악산국립공원의 북쪽 사면에 있는 마을로서 용하구곡을 끼고 있어, 그 자연경관이 빼어나다. 특히 여름철 계곡으로의 피서객과 봄, 가을철 등산객의 수가 많은 월악리는 제천명소 중 으뜸이다. 물 맑고 용하구곡이 길고 깊어 장관을 이루고, 월악리 산촌마을은 반딧불, 산천어, 잠자리류 등 부존자원 동식물이 증식하는 청정지역으로 다양한 행사를 비롯하여 산촌의 특성답게 임산물을 접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 월악산 영봉이 한눈에 보이는 월악리는 산수경관이 수려하며, 성천, 광천이 면 중심을 흐르고 있어 토지가 비옥하여 특용작물, 양채류, 마늘, 고추 영농을 비롯하여 대외적으로 덕산면 지역의 각종 산나물, 송이, 두릅, 장뇌, 표고버섯, 더덕은 좋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품목으로 월악마을의 자랑거리이다.

현재 전통체험학교와 연계하여 더덕캐기, 오미자따기, 감자캐기 등 월악리 청정 임산물을 대상으로 산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월악산의 맑은 자연을 병풍으로 전국 최고의 명품 산촌마을을 꿈꾼다

월악리는 제천 산촌마을 총11곳 중 10번째로 조성된 마을이다. 기존에 조성된 산촌마을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모델로 기본계획부터 준공까지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여 한 번 찾아오면 꼭 한번 다시 찾아오고 싶은 산촌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계획 및 조성된 마을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산촌마을 조성사업만으로 마을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려움을 잘 알았기에 산촌마을조성사업이라는 구조적 기틀을 마련하고 이에 힘입어 주민의 사업역량 강화의 기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한 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 및 성공시켜 점진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변화의 단계라 판단하여 이를 통한 지속적인 마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월악리와 같이 풍광과 관광적 요소가 많아 방문객은 많으나, 98%에 이르는 임야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및 이용의 제한이 많은 지역은 자원의 직접적 활용을 통한 임산물 소득보다는 3차적 수요인 방문객을 이용한 휴양 및 관광소득을 목표로 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월악마을의 도약을 기대해 본다.

*** 오미자**(*Schizandra chinensis* (Turcz.) Baillon.) : 오미자나무과

열매가 단맛, 신맛(과육), 짠맛, 쓴맛, 매운맛(종실) 등 5가지 맛을 함유하기 때문에 오미자(五味子)로 불린다.

덩굴로 자라는 낙엽활엽만경목으로 꽃은 자웅이주로 약간 붉은 빛이 도는 황백색이며 6~7월에 3~5송이의 꽃이 새로 나온 단지의 엽액에 각각 한 송이씩 핀다. 화탁이 자라 장과인 열매가 수상으로 달리고, 열매는 8~9월에 홍색으로 익으며 1~2개의 종자가 들어 있고 신맛이 강하여 건조하면 검은색을 띤 진홍색으로 변하며 주름이 생긴다. 수고는 6~9m 내외로, 줄기는 가늘며 드문드문 분지하고 회갈색이 돌며 뿌리는 천근성이다. 한국이 원산지이며 전국의 표고 200~1,600m에 걸쳐 자생한다. 특히 강원도 태백산, 충북 속리산, 전북 지리산 등에서 많이 자란다.

관상 및 약용으로 쓰이고 한방과 민간에서 과실을 음경(陰莖), 해수(咳嗽), 단독(丹毒), 자양(滋養), 수체(瘦體) 등에 약제로 이용된다. 말린 열매를 찬물에 담가 붉게 우러난 물에 꿀, 설탕 등을 넣어 음료로 식용할 수 있다. 오미자의 일반성분은 수분이 80%, 지방 1%, 단백질 1.2%, 총 당함량 14%이며 과즙내 당은 fructose 등 4종, 유기산은 citric acid 등 7종이 함유되어 있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 인구 : 98명(남자 50명, 여자 48명)
  · 가구 : 46호(농가 42호, 비농가 4호)
  · 면적 : 518ha(산림 500.8ha, 농지 8.96ha, 기타 8.54ha)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 소관이며 시장 · 군수
- 사업지원
  · 생활환경개선 : 토목공사 및 산촌체험관
  · 산촌녹색체험시설 : 산촌체험시설동 1동, 방갈로5동 등
  · 생산기반조성 : 표고버섯재배하우스 및 임산물 1,2단지(두릅, 오미자 등)
  · 마을기획 및 운영 : 홈페이지 구축, 리더 및 주민교육 등
- 사업기간 : 2009~2011년(2009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10~2011년 사업시행)
- 사업비 : 14억원(설계비용별도)

마을 앞 금관 숲과 달천이 유유히 흐르는 점말 산촌마을

◈ 금관리 점말 산촌마을 연락처

- 청원군청 산림과(☎ 043-251-3971)
- 위　치 :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
- 마을이장(☎ 043-225-9115, 011-9417-9115)
- E-mail : ashsk@korea.kr

◈ 달천을 따라 아늑한 참나무 숲에서 야영과 다슬기를 잡을 수 있는 마을

조선시대 중기에 형성된 청원군 금관리 점말 산촌마을은 함양박씨의 집성촌으로 조상들로부터 풍수지리상 마을의 좌측인 현 금관숲이 마을을 감싸고 있어야 마을이 번성할 수 있고, 숲의 나무를 훼손할 경우 주민에게 해가 된다는 설이 있다. 청원군 옥화 9경중 제6경인 금관리 금관숲은 참나무(신갈나무)림 2,600평의 숲으로 여름 피서객을 위한 야영지로 청주 근교의 유원지로 널리 알려진 장소이다. 마을 앞의 달천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 150년 전에 식재된 참나무 숲은 나무가 상층을 덮고 있어 한여름 내리쬐는 햇볕을 피할 수 있 훌륭한 야영지의 역할을 한다. 금관 숲 주변의 경관은 동네 앞으로 흐르는 달천과 동네를 관통하는 지류가 있어 여름철 행락객 및 최근 자연과 함께하는 캠핑객들에게 각광받는 장소이다.



옥화 9경중 6경인 금관숲 전경

풍수지리와 무속신앙에 의해 참나무 숲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 숲의 참나무는 외과수술 등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겨울철 이곳의 상수리나무 숲은 상수리나무 겨우살이들로 앙상한 숲에 푸르름이 마치 상록수를 보는 듯하다. 금관리 점말 산촌마을은 총 면적 223ha로서 임야 181ha 81.2%, 농경지 32ha 14.3%, 기타 10ha 4.5%의 면적분포로 구성되며, 총 37가구 72명이 거주하고 60대 이상이 대부분인 전형적인 산촌마을이다. 마을은 주요 소득원으로 작은 규모의 미곡, 콩, 고추 등을 주로 재배하고 있으며, 작물로는 브로컬리, 신선초 등을 재배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다.



마을 앞을 흐르는 달천

점말 산촌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자원은 마을로부터 4㎞정도 떨어져 있는 1999년 개장한 청원군 옥화자연휴양림과 옥화 9경이 있으며 마을 내에는 매운탕 등을 곁들이며 쉬어갈 수 있는 민박집과 식당이 있다.

◈ 금관 숲의 보존과 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산촌개발사업의 추진

1996년 금관 숲 점말 산촌마을의 산촌개발사업 추진은 군에서 사업대상지 조사를 통해 마을이 사업의 적합지로 선정되어 마을의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7년 산촌개발 사업에 대한 설계에 착수, 1998~2000년까지 3년에 걸쳐 사업을 행하였다.

점말 산촌마을은 옥화 9경으로 청원의 대표적인 관광지 임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화장실로 여름 성수기에 야영객이 이용함에 불편함을 이유로 다시 찾기를 꺼려하였다. 또한, 청주시 중심으로부터 32㎞정도 떨어져 근교농업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함에도 시설투자비에 대한 부담으로 산촌주민이 과감하게 투자할 형편이 못 되는 상황이었다.



금관 숲 앞에 신축된 화장실

그래서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근교 농업을 위한 시설하우스로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표고와 산채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의 오폐수가 달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폐수처리시설을 하였다. 마을의 노후된 마을회관을 신축하였으며, 마을내 도로포장, 교량신축, 배수로정비, 가로수를 식재하여 마을경관을 조성하였다. 주택의 신·개축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나 IMF로 인하여 주택개축 2동만 사업진행을 하였다.

특히 마을 오폐수처리시설은 총 사업비 10억8,000만원 중 3억5,0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마을이 남한강 상류 수계에 위치하고 1998년에 환경법이 강화되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내용이었다. 금관 숲을 찾는 야영객이 재래식 화장실 사용으로 불편하여 다시 찾기를 꺼려하던 것을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숲 입구에 설치하여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마을환경이 조성되었다. 소득사업으로는 1,965평의 시설하우스 설치로 마을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임간방목장 1.8ha의 설치로 현재 염소를 방목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다.



오폐수 처리시설

◈ 깨끗해진 마을환경과 마을방문객의 증가로 활기를 찾은 마을

금관 숲 점말 산촌마을은 사업의 추진으로 마을의 소득을 증대하고, 주민의 정주생활기반 조성으로 복지 산촌마을을 조성하려는 계획에 비하여 소득원 개발 및 융자사업 등 실적이 미비하여 산촌개발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산촌개발로 인하여 점말 산촌마을은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산촌개발사업 전에 민박과 음식점이 4개에 불과하였으나, 늘어나는 관광 수요와 더불어 금관 1리 점말 산촌마을도 민박집이 5호, 음식점이 4개소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당초 산촌개발사업은 마을 주민이 주체적으로 마을여건에 맞게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작목 개발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등 설계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소득기반을 조성하는데 표고재배시설로 계획하였다.


브로컬리 시설재배

사업 추진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기피와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표고 값의 하락으로 표고재배 시설하우스를 채소(브로컬리, 양배추)재배를 위한 시설하우스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채소재배 시설하우스를 조성하였다. 마을에 공동부지가 없어 마을주민 개인의 땅에 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을 임대를 주어 500만원/년의 임대료 수입을 보고 있으며 수입은 마을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다.

한편 융자사업을 적절히 실행하여 관광마을의 특성을 살린 민박전문 방갈로 시설과 표고재배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나 1998년 IMF와 주민담보능력부족 및 장래 수익이 확실치 못한 신규투자사업 기피로 소득원개발 융자사업을 실행할 수 없었고, 주택개량 사업도 계획에 못 미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금관 숲 점말 산촌마을은 달천을 끼고 있는 옥화 9경의 수려한 경관과 자연휴양림을 연계하여 매년 관광객이 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득이 올라가고 있으며, 금관 숲을 갖고 있는 마을의 특성을 살려 민박을 확대하면서 도시와의 교류를 촉진하고 시설하우스의 근교농업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앞으로 더 살기 좋은 산촌마을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 반드시 살기 좋은 산촌마을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확신한다.


깨끗하게 정비된 마을 안길

◈ 소박한 산촌다움과 깨끗함의 유지를 통해 마을의 작은 발전을 꿈꾼다.

금관 숲, 점말 산촌마을은 산촌개발 사업을 통하여 마을의 뛰어난 경관자원을 잘 유지·관리한 좋은 사례이다. 사업당시의 새마을 지도자가 현재의 마을이장으로 마을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또한, 2000년에 사업이 완료되고 12년이 지났지만 사업으로 추진된 시설재배하우스, 오폐수처리시설, 임간방목장, 사업현황판 등과 같은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다.

당시 마을의 정주환경개선 및 경관개선사업을 위주로 실행한 덕분에 현재에 자연을 즐기고 교감할 수 있는 캠핑과 휴양, 야유회 인구가 늘어나면서 마을에는 자연스럽게 민박과 식당운영을 하는 가구가 늘어나 마을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마을공동 소득사업으로는 마을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공동운영의 한계가 있어 산촌마을의 비교적 젊은 층에서 시설하우스와 임간방목장을 운영하여 소득액 중 일정금액을 마을 발전기금으로 적립함으로서 지속적인 마을공동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흑염소를 방목중인 임간방목장

특히, 달천으로 생활하수가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한 정주환경 기반이 조성되고, 경관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특별한 홍보활동 없이도 작년, 그 작년에 찾아왔던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고, 또 찾아와 머물고 싶은 산촌마을이다.

마을주민들의 고령화로 현재의 마을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마을의 발전계획이다. 현재에도 점말 산촌마을은 소박한 산촌다움의 유지와 마을의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광객과 주민을 위한 군지원사업인 올갱이 종패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의 발전을 꿈꾸고 있다.

*** 상수리나무**(Sawtooth Oak, *Quercus acutissima* Carruth) : 참나무과

낙엽교목으로 키는 25m까지 곧게 자란다. 수피(樹皮)는 검은 회색이며, 세로로 갈라진다. 잎은 밤나무 잎과 비슷하게 생긴 긴 타원형으로 잎 가장자리에 뾰족한 톱니들이 있으며, 잎 뒷면에는 털이 있다. 꽃은 5월쯤 암꽃과 수꽃이 따로따로 무리를 져 핀다. 수꽃은 5장의 꽃덮이조각[花被片]과 8개의 수술로 되어 있으며, 암꽃은 1장의 포(苞)에 싸여 있고 3개의 암술대로 되어 있다. 열매는 꽃이 핀 다음해 10월에 견과(堅果)로 익는 데, 깍정이[殼斗]가 뒤로 젖혀진다.

참나무 종류의 열매를 보통 도토리라고 부르나 상수리나무 열매는 특별히 상수리라고 부른다. 이것을 가을에 따서 가루로 만들어 떡 또는 묵을 만들어 먹거나 밥에 섞어 상수리밥을 지어 먹는다. 열매 삶은 물은 염색약으로 쓰기도 하며, 상수리를 가을에 따서 껍질을 벗긴 뒤 햇볕에 말린 것을 상실(橡實)이라고 하는데, 한방에서는 지사제(止瀉劑)·위장치료제로 쓰며 나무의 결이 단단하지만 거칠어 틈이 벌어지기 쉬우며, 잘 썩지 않아 표고버섯 재배의 골목으로 널리 쓰인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 점말마을
  - 인구 : 72명(남자 39명, 여자 33명)
  - 가구 : 37호(농가 27호, 비농가 10호)
  - 면적 : 223ha(산림 181ha, 농지 32ha, 기타 10ha)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 소관이며 청원군수
- 사업지원
  - 생활환경개선 : 마을하수도, 공중화장실, 가로수 식재, 배수로정비, 도로정비
  - 생산기반조성 : 시설하우스, 임간방목장
  - 마을기획 및 운영 : 리더 및 주민교육
- 사업기간 : 1998～2000년(1997년 기본 및 실시설계, 1998～2000년 사업시행)
- 사업비 : 10.8억원

소백산 자락아래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간직한 한드미 마을

◈ 한드미 산촌마을 연락처

- 단양군청 농업산림과(☎ 043-420-2761～4)
- 위　　치 :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 마을 대표(☎ 043-422-2831, 010-8745-2525)
- 홈페이지 : www.handemy.org, E-mail : handemy@hanmail.net

◈ 소백산 국망봉 아래 위치한 자연경관이 보전되어 있는 마을

충청북도 단양군 각곡면 어의곡리 한드미 산촌마을은 사계절 소백산을 찾는 등산객과 마을 앞을 흐르는 청정계곡을 찾는 관광객으로 전국단위의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어의곡리(於衣谷里)는 본래 영춘군 대곡면의 지역으로 큰 골짜기이므로 영어실 또는 어의곡이라 불리었다.



한드미 산촌마을 전경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상의곡, 하의곡, 한곡동, 구익, 을전, 명길리를 병합하여 어의곡리라 해서 단양군 가곡면에 편입되었다. 현재의 어의곡리는 자연부락 단위로 한드미, 구익동, 새밭 등을 포함하여 총 64가구 149명이 살고 있다. 마을의 총 면적 2,514ha로 산림 2,355ha, 농지 99ha, 기타 60ha이며 임야면적 비율이 94%이다.

신라 말 마의태자가 고도 경주를 바라보며 망국(亡國)의 눈물을 흘렸다는 국망봉(國望峰)은 단양동쪽 가곡면 어의곡리에 속해 있으며 소백산의 한 고봉으로 해발 1,420m로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도계에 위치한다.

산천이 신비롭고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 새밭계곡은 맑고 투명한 시냇물이 한드미 주민들의 순박하고 티 없는 마음을 담고 있는 듯 대자연의 운치가 가득한 계곡이며, 한드미 동굴은 경북 풍기시장을 왕래했다는 전설이 깃든 곳으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마을 숲과 정자

소백산 자락에 위치하여 소백산등산로 중 어의곡 - 비로사 코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강수계 상류의 충주호 수계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지역문화 축제로 매년 5월말에서 6월초에 개최되는 소백산 철쭉제 행사와 12월 31일과 1월1일 사이에 개최되는 해맞이 축제는 한드미 산촌마을을 전국에 알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백두대간 상에 위치한 한드미 산촌마을은 단양군 동부에 위치하여 동쪽으로 경북 영주시, 서쪽으로 매포읍·어상천면, 남쪽으로 단양읍, 북쪽으로 영춘면에 접하고 있다.

◈ 깨끗한 생태환경의 보존과 경관자원을 활용한 산촌개발사업 실행

한드미 산촌마을의 산촌개발사업 추진은 1997년에 추진위원회가 마을에 구성되고 1998년에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사업본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999~2001년까지 3년간 낙후된 생활환경개선과 생산기반소득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안내판과 임산물 판매장

사업내용에서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는 마을안길 정비, 목교설치, 물놀이장 설치, 안내판 등 시설물 정비를 하였으며, 생산기반체험시설로는 산림문화회관 1동, 저온저장고 1동, 건조기 1식, 목공예가공시설 2기와 송이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단기소득임산물생산시설로는 표고, 영지, 산채 등 재배하우스를 설치하였다.

사업내용에서 목공예가공시설은 마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공장용 선반기계(2기-7,000만원)가 납품되어 현재에도 마을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목공예 가공시설 대신 정보화시설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다.

표고, 산채 재배하우스는 현재에는 오미자, 산머루 등으로 작목을 대체하여 재배하고 있다. 산촌개발사업의 추진으로 한드미 산촌마을은 마을가꾸기의 기반을 다졌으며 그 후 정보화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다양한 마을개발 사업을 유치하여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한드미 계곡과 목교

현재에도 마을은 생태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존함과 함께 주변의 산림과 계곡의 적극적 보호와 생태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을 마을환경 가꾸기의 기본으로 삼고 주민과 생태를 체험하고자 하는 방문객들에게 환경을 아끼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과 그 속에서 삶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을을 가꾸고 있다.

◈ 산촌 체험프로그램의 운영과 학교지킴이 · 학교사업의 실행

한드미 산촌마을은 지리적으로 소백산의 주봉인 비로봉(1,439m)으로 등반하는 초입에 위치하고 있어서 소백산관광과 연계한 테마관광 프로그램의 실현에 최적의 위치로, 소백산 등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드미 산촌마을의 고유한 농·산촌 체험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 특산품 소개 및 판매를 병행하였다.

소백산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는 한드미 산촌마을만의 독특한 특징을 부각시켜 산촌고유의 특산품 및 자연환경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자연발생 유원지로서 소백산 깊은 산골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모여 냇가를 이루는 어의곡 계곡은 여름철 최고의 휴양지이며 여름뿐만 아니라 계절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는 소백산의 자연환경 활용하여 사시사철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였다.



마을 목공예체험

마을의 주민들은 산촌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마을발전을 위하여 공동체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였다. 마을의 노력으로 2005년에는 고 노무현대통령이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에서 운영하는 체험을 하시고 마을을 격려하였다. 그 후 한드미 산촌마을은 체험마을의 대명사가 되었다.

한드미 산촌마을의 인력구조와 마을규모로 체험객을 30,000명/년 이상을 유치하는 운영하는 것에 무리가 따르게 되었다. 마을에서는 귀농·귀촌자의 유입으로 활성화를 시도하였으나 귀농·귀촌자들의 자녀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실패를 하였다. 정문찬 마을대표는 마을인력의 순환구조를 위하여 2007년부터 마을에서 학교지킴이 사업(도시의 학생을 지역에 유입함으로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 및 농·산촌유학센터를 직접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폐교위기에 놓인 가곡초등학교 대곡분교를 살리기 위하여 마을에서 학교운영에 직접참여를 하였고 산림문화회관을 리모델링(군 지원-중학생 숙소)하여 초·중학생의 유학센터로 운영을 하게 되었다.

2007년에 1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2011년까지 12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2012년 현재에는 45명의 학생으로 유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마을의 유학센터 생활지도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지역아동센터(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사업의 일환으로 고등학생 대상 대안학교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마을 및 유학센터의 운영은 13명의 직원을 두고 지방형 예비사업적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산림문화회관 전경

◈ 학교사업과 체험마을의 지속적 추진으로 마을 활성화를 꿈꾼다.

한드미 산촌마을은 45가구 중 42가구가 마을기업에 출자하여 마을회사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다. 마을이 곧 회사이므로 자발적으로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마을은 학교사업의 확대와 특화된 체험마을로서 운영을 마을의 발전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한드미 지역아동센터 전경

마을 활성화 세부실천 방안으로 현재 마을에 부족한 토지와 공가로 인해 마을주민 수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해결 방안으로 마을에서 공동 부지를 구입하여 귀농·귀촌자를 위한 임대주택 형태의 주택 건설 후 귀촌수요를 충당할 계획으로 도와 군에 지원을 협의 중에 있다. 마을로 유입된 귀농·귀촌자 및 유학센터의 졸업생들은 다양한 마을 행사의 서포터로 참여하여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는 체험마을로 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키워드 광고를 통하여 마을을 홍보하고 있으며 마을방문 체험객을 위한 지역 농·임산물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청의 백두대간지원 사업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이용하여 지역 술, 와인, 효소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공공장을 조성 중에 있다.

현재 마을의 문화자산인 정미소 및 물레방아 등의 시설을 복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 마을은 마을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의 노인 및 주민들을 위한 Hospitality Center설립을 구상 중에 있다.

한드미 산촌마을은 국가보조금을 통해 마을개발을 시행하는 단계를 넘어서 마을에서 출자하여 운영하는 기업으로 마을을 활성화하고 있다. 마을의 인력구조를 학교사업을 통해 해결하고 충당된 인력으로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운영방식으로 마을의 제2기 활성화를 계획하는 한드미 산촌마을은 많은 산촌마을들이 벤치마킹 하여야 할 사례라고 생각된다.

*** 산철쭉나무**(Royal azalea,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 : 진달래과

원산지는 한국으로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의 표고 1,600m이하에서 자라며 습한 물가나 계곡에서 잘 자란다. 높이는 2~5m이고 어린 가지에는 선모(腺毛)가 있으나 자라면서 없어지며 회갈색으로 된다. 잎은 어긋나지만 가지 끝에서는 모인 듯 달린다. 잎은 길이가 3~8㎝ 정도인 넓은 난형(卵形)으로 끝은 둔하고 밑은 뾰족하며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연한 홍색의 꽃은 잎과 같이 5월 무렵 3~7개씩 가지 끝에 피고 꽃잎은 5개가 합쳐 깔때기 모양을 이루는데 지름이 5~8㎝이다. 열매는 길이가 1.5㎝정도 되는 선모가 있는 타원형의 삭과(蒴果)로 10월에 익는다. 흰꽃이 피는 것을 흰 철쭉(*for. albiflorum*)이라 하고, 이외에 같은 속에는 갈색 털과 꽃대에 점성이 있고 잎이 피침형인 산철쭉(*R. yedoense for. poukhanense*), 이와 비슷하지만 점성이 없고 꽃이 잎보다 먼저 피는 진달래(*R. mucronulatum*)를 비롯하여 10여 종(種)이 있다. 정원에 관상용으로 심거나 잎과 꽃을 강장제·이뇨제·건위제 등으로 사용한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 ·인구 : 149명(남자 81명, 여자 68명)
  - ·가구 : 64호(농가 62호, 비농가 2호)
  - ·면적 : 2,514ha(산림 2,355ha, 농지 99ha, 기타 60ha)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 소관으로 단양군수
- 사업지원
  - ·생활환경개선 : 안내시설, 정자, 상수도 시설, 마을안길 정비, 마을 숲 정비
  - ·산촌녹색체험시설 : 산림문화회관
  - ·생산기반조성 : 표고하우스, 영지하우스, 산채하우스, 송이환경개선
  - ·마을기획 및 운영 : 홈페이지 구축, 리더 및 주민교육, 마을브랜드개발
- 사업기간 : 1998~2001년(1998년 기본 및 실시설계, 1999~2001년 사업시행)
- 사업비 : 12.14억원

밤나무 숲 들녘사이로 야생화가 아름다운 거전리 산촌마을

◈ 거전리 산촌마을 연락처

- **부여군청 공원산림과(☎ 041-830-2335～6)**
- **위　　치 :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
- **마 을(☎ 041-856-0978),　사무장(☎ 010-3434-7363)**
- **홈페이지 : www.백제인동마을.kr, E-mail : keh7363@hanmail.net**

◈ 칠갑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밤나무로 기억되는 산촌마을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 산촌마을은 차령산맥이 서해를 향해 뻗어가는 칠갑산 남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칠갑산에서 발원하여 백마강으로 흐르는 구곡지천이 마을 앞을 흐르고 있고, 옛날 모습 그대로 밤나무산지, 다랑이 논과 산비탈 밭으로 이루어져 있는 마을이다.



거전리 밤나무림 경관

거전리는 삼국시대 백제 땅인 지금의 청양군 남양만 금정리 금정에서 백제 왕실까지 물을 나르기 위하여 새벽에 출발하면 돌아올 때에는 꼭 저녁노을이 졌다는 전설의 지점인 사양고개를 서북쪽에 둔 산악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조선시대 말기에는 부여군 공동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에 마을 이름을 삼거리와 저전리라는 두 마을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지금의 거전리가 되었다. 두 마을에서 한 글자씩 따와 이름을 짓다보니 큰 밭을 뜻하는 거전리(巨田里)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거전리 산촌마을은 수도작, 맥문동, 밤을 주로 재배하고 있으며 자연부락으로는 마을주변에 닥나무가 많아 닥밭실, 저전, 저전리라 부르며, 장벌, 거전, 고무실로 가는 세 갈래 길이 있다 해서 삼거리라 부르고, 좋은 샘이 있어서 정동, 정골이라 불리는 마을들이 있다. 밤나무와 함께 야생화인 원추리, 인동초는 백제문화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마을이기도 하다. 또한 인근 지역에 만수산자연휴양림과 백제역사재현단지 등 경관자원과 문화가 어우러진 있다. 매년 3월에 진행되는 은산별신제(중요무형문화재 제9호)는 향토신에게 올리는 제사로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 밤나무와 야생화 경관자원을 활용한 산촌개발사업의 실행

거전리 산촌마을의 산림경관 식생유형은 낙엽활엽수림, 침엽수림이며, 식물군락으로 소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군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림경관자원의 주요 소득원은 밤, 맥문동, 원추리, 인동초, 표고 등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거전리 산촌마을은 밤나무를 일제강점기부터 보급하기 시작하여 마을과 주변지역으로 확대하여 왔다. 백제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산약초인 원추리, 인동초를 발견하고, 야생화 경관자원을 상품화하기 시작하였다. 산약초인 원추리, 인동초는 오랜 세월동안 약재나 식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동의보감이나 한방의 사료 등을 통해 효능을 알아내고 1997년부터 작업반을 결성하여 농가보급 뿐만 아니라 원추리와 인동초의 꽃이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만들어 낸다는 것에 착안해 밤나무산지, 들녘, 강변 등에 식재하여 보급 확대와 경관자원의 상품화에도 매진하고 있다.



활짝 핀 밤꽃

2008년 산촌개발사업의 계획은 마을 여건에 맞는 밤나무 숲, 산약초(원추리, 인동초, 맥문동), 산나물 등 산림경관자원의 소득개발과 전통산림문화체험 등을 핵심 테마로 하였다. 마을주민이 전원 참여하여 오감을 통한 체험, 산림문화센터, 전통가옥체험장 등 편익시설을 조성하고 밤, 원추리, 인동초, 맥문동 등 지역 특산품 생산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어우러진 공동체 발전을 추진하였다.

산촌개발사업은 2009~2010년까지 2년간 진행되었다. 사업추진으로 설치된 주요시설은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회의, 세미나, 체험행사, 이벤트 등을 개최할 산림문화센터(295㎡), 정신적 역사적 경관자원을 계승하고 보급할 전통가옥체험장(172㎡), 체험길, 안전시설 등 기반조성이 실행되었다.

◈ 밤나무 숲과 연계한 전통경관자원 체험시설

김은환 운영위원은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에는 주민들의 관심부족과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았으나 산촌개발사업의 설명회와 여러 차례에 걸친 주민회의를 통하여 사업 참여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공동참여가 확대되었다.

당초 산촌개발사업에 마을 공동부지의 확보가 난항을 겪었지만, 마을주변의 밤나무 숲 경관자원 활용과 상품화, 전통경관자원의 연계라는 개발의 추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주민들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며 투명하게 전개하는 과정에서 마을의 단결된 힘은 더욱 빛을 발휘하였다. 마을어른이 산림문화센터 부지 200평과 전통가옥체험시설 1,000평을 희사하여 사업부지 확보문제를 해결하였다. 현재 사업부지 위에 세워진 시설은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고, 밤나무 숲과 함께 자연하천과 금강 수변 경관활용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통경관자원 체험시설

◈ 밤나무림 경관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마을사업의 추진

거전리 산촌마을은 일제강점기에 한 마을 주민이 일본에서 징용생활을 끝마치고 돌아오면서 밤(은기밤)알 몇 알을 주머니에 넣고 귀국했다. 그 후 실생(實生) 묘목의 접수를 토종밤에 접목한 것이 은산밤의 시효가 되었다. 은산밤은 지리산 근처(경남 산청)로 시집을 보냈으며 밤나무산지조성을 개척한 마을이다.



지역주민 밤나무연구회

밤나무 묘목을 마을에 심으면서 마을 전체가 밤생산으로 인하여 수익이 오르고 생활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밤나무연구회는 마을주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친환경적인 밤나무 숲 경관관리, 밤재배 기술에 대한 노하우, 밤 품질 향상과 명성을 높여 앞서가는 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득제고를 위한 틈새시장을 계속 고민하던 중 원추리라는 야생화를 발견하였다. 긴 동면에서 깨어난 동물이 먹는 꽃이었다. 동면한 동물은 몸이 굳어 있어서 배설기능이 마비되어 있는데 이 꽃을 먹고 나면 이뇨작용이 촉진되는 것이었다. 원추리꽃은 아주 예뻐 경관자원으로 좋았다. 또한 산에서 밤나무를 가꾸려면 작은 길을 내야 한다. 비가 오면 흙이 흘러 내려와 좋은 수가 없을 까 궁리하다 인동초를 심었다. 인동초가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흙을 고정시켜 준다.



원추리 분갈이

거전리 산촌마을은 마을의 경관자원이고 특산물인 알밤 수확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나 노령화된 인력으로 수확을 감당하기 어려워 알밤축제를 기획·추진하였다. 밤 줍기 행사로 도시민들이 일손도 돕고, 수확의 재미도 느끼며 알밤도 가져가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원추리, 인동초 등을 대상으로 분갈이, 음식 재료, 꽃 차 및 꽃 음식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을실정에 적합한 경관자원과 전통성 있는 경관자원의 활용이 가장 큰 매력인자이다.

2010년 마을의 경관자원을 활용한 체험객의 수와 소득 등을 살펴보면, 마을 체험객 중 당일체험 785명, 숙박 1,004명, 견학 522명 등으로 집계되었다. 마을소득액은 숙박료 1,108만원, 음식판매 564만원, 특산물판매 820만원, 체험프로그램 450만원, 기타 직거래 5,370만원으로 계산되었다.

거전리 마을의 경관자원과 연계한 주요 기관과의 교류는 서울 국립산림과학원, 강동구청,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공사, 산림청, 충남도청, 산림인력개발원, 대학 등을 대상으로 체험, 현장교육, 귀농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거전리 마을의 홍보는

KBS 6시 내고향 백년가약 프로그램, 풍경이 있는 여행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마을이 홍보되었다.

◈ 밤을 매개로 한 공동출하 · 공동정산하는 공동체 운영

거전리 산촌마을이장과 추진위원을 중심으로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별로 마을 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알밤, 산약초, 야생화 등의 품목은 마을공동체 작목반을 구성하여 웰빙산약초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알밤수확의 기쁨

2011년 상반기(1~6월) 마을의 산림경관자원을 활용한 출하금액은 밤 5,219만원, 산약초류 5,471만원, 야생화류 8,595만원으로 계산되었다. 마을공동 운영기금은 4,0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그 중 1,000만원이 밤나무와 야생화 등 산림경관 체험프로그램의 수익금으로 적립되었다.

◈ 지속적인 도농교류, 정신적 · 전통적 경관자원의 계승

거전리 산촌마을은 열심히 생산한 농림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도시인들은 중간 유통 마진으로 농민이 판매한 가격보다 배 이상 비싸게 구입하는 것을 보고 작목회를 조직하였다. 특산물을 수집해 서울 가락시장 등에 직접 출하해서 공동정산을 하고 마을고유 브랜드를 만들어 1사1촌 자매결연, 각종 행사장, 도시 아파트부녀회 등 도농직거래를 통해 마을의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마을공동체는 작목회에서 마을공동체로 발전하였고, 사회적 기업으로 확대 운영을 구상하고 있다.



밤을 자손대대로

마을에 땅이 없었으나 덕대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본인소유의 밭 1,000평을 마을에 기증하였다. 덕대할아버지의 더불어 살고자 하신 아름다운 공동체 정신을 후손대대로 이어가고자 “덕대선원”이라는 전통가옥체험장을 건립하였다. 정신적, 역사적 경관자원을 계승 보전하고, 체험객들에게 아름다운 마을공동체 문화를 전파하고 노력하는 마을이다.

*** 밤나무** (chestnut, *Castanea crenata* S. et Z.) : 참나무과

낙엽교목성의 수목으로 키는 10～15m 정도 자라며, 꽃은 6월경에 피고, 열매는 9～10월경에 익으며, 1송이에 1개 또는 3개씩 들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식재가 가능하다. 식재 시기는 가을에 심어도 좋으나 동해피해가 우려되므로 봄에 심는 것이 안전하다.

재배적지로 연평균 10～14℃가 적합하고, 토질은 배수가 잘되고 유기질이 많으며 표토가 깊을수록 좋다. 토양산도는 pH5～6이면 적합하다. 접목 시기는 4월 중순경이 적기이다. 밤나무는 주로 타가수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품종에 대하여 수분품종을 20～30% 정도로 혼식하여야 한다. 또한 밤나무는 자웅동주로 한 나무에 암꽃과 수꽃이 따로 발육한다.

밤의 용도로는 가정에서 간식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군밤, 통조림, 과자, 빵 등의 원료로 쓰인다. 밤나무의 목재는 가구재, 건축재, 철도갱목, 조선재 및 버섯재배용 등으로 사용되며, 목재 및 수피에 함유된 탄닌은 화학제품 연료로 이용된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
  - ・인구 : 192명(남자 77명, 여자 115명)
  - ・가구 : 64호(농가 62호, 비농가 2호)
  - ・면적 : 3,362ha(산림 3,299ha, 농지 37ha, 기타 26ha)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 소관이며 부여군수
- 사업지원
  - ・생활환경개선 : 안내시설, 가로수 식재,
  - ・산촌녹색체험시설 : 산림문화센터, 전통가옥체험장
  - ・생산기반조성 : 재래식 된장 제조시설 및 저온저장고
  - ・마을기획 및 운영 : 홈페이지 구축, 리더 및 주민교육, 마을브랜드개발
- 사업기간 : 2007～2009년(2007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08～2009년 사업시행)
- 사업비 : 12억원

칠갑산 자락 야생화가 아름답게 피는 광금리 산꽃마을

◈ 광금리 산촌마을 연락처

○ 청양군청 재난산림과(☎ 041-940-2461, 2464)
○ 위　　치 :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광금리
○ 마을이장(☎ 011-215-8150), 사무장(☎ 011-9812-2450)
○ 홈페이지 : http://www.sankkot.com, E-mail : jks8933@naver.com

◈ 충남의 알프스 칠갑산 자락 천혜의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광금리 산촌마을

청양군 대치면 광금리 산꽃마을은 칠갑산 자락에 위치한 전형적인 산촌마을로서 도립공원 및 자연휴양림과 연접한 마을로 최근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다. 광금리는 원래 산에 철광석이 많아서 옛날부터 쇠를 캐냈으며 또한 넓은 밭이 있는 곳으로 '쇠밭' '너른밭' 이라 부르던 지역이다. 옛날에 한 부부가 밭의 양쪽 끝에서 밭일을 하다가 한명이 없어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길고 넓은 밭이 있었다고 하여 '너른밭(廣田)' 이라고 불리는 자연부락과 옛날에 밭에서 쇠를 캐냈다 해서 쇠가 나오는 마을이라 '쇠밭(金田)' 이라고 불리는 자연부락이 있다. 또한 동쪽으로는 월봉, 서쪽으로는 청수봉 그리고 관모봉과 말봉이 각각 마을의 남쪽과 북쪽을 에워싸고 있어 어머니 품에 안긴 듯이 아늑함이 감도는 마을로 삶의 터전과 전통 문화를 소중히 지켜나가는 산꽃마을 주민의 훈훈한 인정이 피어나는 마을이다.


광금리 산꽃 산촌마을 전경

광금리 산꽃마을은 해발고가 약 200m정도 이며, 총 40가구에 97명이 살고 있으며, 구역면적은 총 281ha, 그 중 산림이 217ha로 78%가 산으로 이루어진 조용하고 소박한 산촌마을이다. 마을은 칠갑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칠갑산의 수려한 산세로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휴양공간으로서의 입지가 탁월한 곳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알밤, 취나물, 청양고추, 표고버섯 등 다양한 임산물을 생산하고, 연꽃 관람연못과 야생화 전시관 등을 갖춘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풍부한 산촌마을이다.


칠갑산 벚꽃 길 전경

주변 관광명소로 칠갑산을 중심으로 칠갑산도립공원, 자연휴양림, 까치네 유원지, 천년고찰 장곡사, 장승공원 등의 관광지와 연계되어 있으며, 2007년 건설교통부가 주관한 '한국의 아름다운도로 100선' 에 선정된 '칠갑산 벚꽃 길' 이

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어우러져 벚꽃이 휘날리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광금리 산촌마을을 찾는 관광객, 등산객 등을 화사하게 맞이하는 산촌관광형 마을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 산림자원 소득원 개발과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산촌개발사업 추진



광금리 산촌생태마을 안내도

광금리 산꽃마을은 2004년 산촌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착수, 2005~2006년까지 2년에 걸쳐 조성사업을 수행하였다. 산촌개발사업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1억4,000만원으로 국비 9억8,000만원, 지방비 4억2,000만원이 투자되었다. 광금리는 칠갑산 자락에 위치한 마을의 지형적 특성상 농지가 부족한 전형적인 산촌마을로 농업분야 소득이 적어 소득사업의 다양화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마을의 소득원개발과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산채 및 표고재배하우스 등 조성으로 주민 개개인의 소득 확대와 산림문화회관 숙박 및 체험시설 조성으로 마을공동의 소득확대를 이루어 주민과 마을 모두의 소득이 확대되는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산림문화회관 및 체험시설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는, 우선 도로와 인접하여 체험 부지를 조성하였으며 체험관 입구에 종합안내판 등을 설치하였다. 산채 및 표고재배시설 주변 배수로 및 계류정비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연꽃군락지와 휴게쉼터를 조성하여 내방객에게 자연을 직접 체험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야생화 전시체험관

또한 2008년 산림청의 산촌마을 조성평가에서 조성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고 상금 4,000만원으로 체험부지 맞은편에 야생화 전시관을 조성하여 산꽃마을이라는 이름에 맞게 수많은 우리나라 야생화를 전시·판매하여 내방객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소득기반 조성사업을 보면 산채재배단지, 산채 및 표고재배하우스 등을 이용하여 더덕, 취나물, 고사리 및 표고버섯 등 청정한 임산물 생산으로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마을에는 표고재배가 늘어나 표고재배사가 100동 정도가 있다.

산촌마을인 광금리의 특산품하면 칠갑산이라는 청정지역에서 맑은 물과 공기를 머금고 자란 알밤과 표고버섯을 최고로 친다. 마을 소득사업으로 생산한 임산물을 직거래를 통해 판매할 뿐만 아니라, 산림문화회관에 숙박하는 방문객의 식사재료로도 활용되는 등 다양한 판로를 구축하고 있다.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는 칠갑산에 인접하여 있는 마을로서 특산물 판매 특히 밤, 고추, 산채, 표고버섯 등의 직거래가 가능하고 또한 가족이 조용하게 휴양하며 각종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산채재배단지의 취나물

◈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체험사업 운영 및 마을 활성화

광금리 산촌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로 장광석 이장을 중심으로 사계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체험프로그램으로 썰매타기, 팽이돌리기, 야생화 화분만들기, 연꽃단지산책, 꽃마차 타기, 동물관찰, 고구마 캐기, 알밤줍기, 표고버섯 수확, 꽃사탕만들기, 쑥 개떡·김치전 만들기 등이 있다.

또한 마을에는 체험 이외에 다양한 볼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의 전설이 깃든 '고산굴',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물탕골', 연꽃습지 산책로, 야생화 전시·체험관 등이 있어 여러 분야의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 광금리 산꽃 산촌마을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마을 축제이다. 매년 4월말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칠갑산 산꽃마을축제 (2012년 제5회)를 개최하여 연인들과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체험마을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제5회 칠갑산 산꽃마을축제 전경

산촌개발사업 이후 마을을 방문하는 체험객과 마을의 소득이 많이 증가하였다. 사업 전 2005년 마을소득인 4억2,000만원에서 사업 후 2011년 7억2,000만원으로 늘어나 약 160% 정도로 증가하였다. 또한, 2012년에 10월까지 마을을 방문한 체험객은 약 20,000여명으로 체험과 숙박을 통하여 약 1억3,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광금리의 산촌개발사업은 우선적으로 마을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었다. 사업의 효과로 산촌사업을 기반으로 주변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칠갑산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와의 도농교류를 촉진하는 직거래와 민박 등을 할 수 있는 체험 숙박동 등 여건을 시설하여 손꼽히는 체험마을로 발

돋움하였다. 살기 좋은 산촌마을 조성으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에 광금리는 주민들이 살기 좋고, 더불어 많은 관광객과 체험객이 찾아와서 머무르고 싶은 아름다운 야생화가 만발한 멋진 산꽃마을로 변화되었다고 장광석 이장은 이야기한다. 산촌개발사업 이후에 4가구가 마을로 귀촌하였다. 마을에 귀농·귀촌자를 위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한 상태이다. 마을에 공가가 7채가 있지만 귀농·귀촌자들을 위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 마을에서는 공가활용을 위한 방안을 군과 협의 중에 있다.

◈ 전통문화의 계승과 경관을 유지·발전하려는 마을공동체의 노력

광금리 산꽃마을은 (주)한샘, 한국방송코미디언협회, 천안 로타리클럽 등을 포함하여 10개의 기업과 협회, 지역 공동체와 1사1촌 관계를 맺고 있다. 마을은 1사1촌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도농교류를 하여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임산물의 판매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주)한샘과 1사1촌 협정식

마을은 마을공동체의 삶의 터전과 전통문화를 소중히 지켜나가고 있다. 마을의 단합을 위한 산꽃마을 축제이외에 마을은 해마다 월봉산 중턱의 산제당에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산제를 지내는 산제당 옆에는 수령 1,000년 이상의 참나무가 살고 있다. 또한, 마을은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 칠갑문화제 등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을 홍보하고 있다.

마을이 단합하고 노력하여 2009년에는 청양군 농촌관광대학을 마을에서 유치·운영하였으며 2010년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되고 2011년에는 도농교류부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았다. 2012년 'Rural-20 Project' 대상마을로 선정이 되었고 충청남도의 행복을 키우는 농어촌문화콘텐츠 진흥사업에 선정되고 마을의 문화와 경관을 유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마을은 발전방향의 한 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유치를 구상하고 있다. 특히, 마을의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목욕탕과 찜질방시설을 우선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금리 산꽃 산촌마을은 청양군이 아닌 충청남도의 최고 마을로 우뚝 서기 위한 마을의 노력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 벚나무**(cherry tree,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 장미과

낙엽교목으로 키가 20m에 이르고, 짙은 자갈색을 띠는 수피(樹皮)는 가로 줄무늬를 가진다. 잎은 어긋나는데, 잎끝은 뾰족하며 잎의 기부는 조금 둥글다. 잎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으며 잎자루에는 조그만 돌기가 양쪽에 하나씩 있다. 흰색 또는 연분홍색의 꽃은 4~5월경 잎겨드랑이에 2~3송이씩 모여 핀다. 꽃잎은 5장이며 수술은 많고 암술은 1개이다. 6~7월에 장과(漿果)로 익는 열매는 버찌라고 하여 날 것으로 먹거나 술을 빚어 먹는다.

흔히 벚나무속(一屬 Prunus) 식물 모두를 일컬어 벚나무라고 부르나, 열매가 핵과(核果)로 열리는 종류와 장과로 열리는 종류의 두 무리로 나누어진다. 핵과로 익는 종류로는 살구나무·자두나무·매실나무·복숭아나무 등이 있고, 장과로 익는 종류로는 벚나무·산벚나무·황벚나무·이스라지·귀룽나무 등이 있다. 이들은 다시 꽃이 총상(總狀)꽃차례를 이루는 귀룽나무 종류와 3~5송이씩 모여 달리는 벚나무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종류의 벚나무인지 가려내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가로수나 공원 또는 집에 흔히 심는 종류로 왕벚나무·산벚나무·수양벚나무, 그리고 이들의 겹꽃 무리가 있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광금리
  - 인구 : 97명(남자 46명, 여자 51명)
  - 가구 : 40호(농가 30호, 비농가 10호)
  - 면적 : 281ha(산림 217ha, 농지 46ha, 기타 18ha)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 소관이며 청양군수
- 사업지원
  - 생활환경개선 : 종합 안내시설, 연꽃군락지 조성, 계류보전 및 배수로 정비
  - 산촌녹색체험시설 : 체험부지 조성, 산림문화회관
  - 소득기반조성 : 산채재배단지, 산채 및 표고재배시설
  - 마을기획 및 운영 : 홈페이지 구축, 리더 및 주민교육, 마을브랜드개발
- 사업기간 : 2004~2006년(2004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05~2006년 사업시행)
- 사업비 : 14억원

하늘빛, 물빛, 땅빛이 에워싸는 남천리 산촌마을

◈ 바둑골마을 연락처

○ 청양군청 재난산림과 (☎ 041-940-2461)

○ 위　　치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 127-1

○ 이 장 (☎ 016-346-0645), 사무장 (☎ 010-2228-1464)

○ 홈페이지 : http://www.cync.kr

◈ 푸른 햇살 속에 신선이 마주앉아 바둑을 두는 마을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아낙네의 숨결이 전해지는 칠갑산 동쪽 지류에 자리한 남천리! 남천리는 맑고 푸른 햇살이 내리쬐는 청양(靑陽)군 정산면의 청정자연지역이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각종 야생화와 산나물, 산열매가 지천으로 널려있고 야생동물과 철새, 텃새들의 보금자리로 다양한 생태를 관찰할 수 있어 생태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마을이다.

남천리는 예전에 남천사라는 고려시대의 절이 있었기에 '남천삿골', '절골', 또는 '남천사동', '남천동' 이라 하며, 이후 절이 없어지고 탑만 남았으므로 '탑골', '탑동', '탑곡'이라는 지명으로도 불린다. 남천리 산촌마을이 위치한 지역은 '바둑골' 이라 불리는 자연부락으로 마을지형이 신선이 바둑을 두는 형국이라 하여 '바둑골', '기곡', '바닥골' 로 불리 운다.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의 형태로 기후가 온화하며, 구한말 홍주의병에 참가한 이식의 묘가 있는 역사성이 짙은 마을로 매년 정월에 동화제(洞火祭)를 지내는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칠갑산 전경



2012년 임진년 동화제

◈ 자연과 사람의 조화, 사람과 사람이 조화로운 마을 남천리

남천리는 전형적인 산촌마을로 해발고가 약 300m정도 되고 총 72가구에 275명이 살고 있는 조용하고 소박한 마을이다. 전체 면적은 총 504ha, 그 중 산림이 426ha로 85%가 산으로 이루어졌고, 농지 57ha, 기타 21ha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 높지 않은 해발 560m의 오염되지 않은 청정함이 살아있는 청양의 진산 칠갑산을 배경으로 남천리의 자연과의 어울림은 빛을 발한다. 여름에는 밝은 태양,

맑은 햇살이 비추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면 칠갑산 자락의 설경이 장관을 이룬다.


출렁다리(국내 최장)

또한 칠갑산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물빛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천장호, 국내 최장의 길이를 자랑하는 출렁다리, 칠갑산의 아름다운 밤하늘과 별을 관찰할 수 있는 스타파크 천문대, 서정리 구층석탑, 애국지사 최익현 선생의 영정을 모신 모덕사 등이 마을과 인접하여 있어 관광형 산촌마을의 여건을 잘 갖추고 있으며 아이들의 체험학습장으로도 최적의 마을이다.

칠갑산의 품에 안겨 자연과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누리는 순박한 마을 사람들, 하늘빛, 물빛, 땅빛이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 시간의 숨결이 고스란히 베인 지역자원, 이 모든 것이 조화로운 남천리 산촌마을에서 알찬 추억도 만들고, 건강도 지키고, 역사공부도 하며, 지역특산물도 맛보는 일석사조(一石四鳥)의 혜택을 즐길 수 있다.

◈ 청정특산물을 활용한 체험활동

청양알밤, 표고버섯, 머위 등 자연적인 특산물이 풍부하며, 칠갑산을 중심으로 산간계곡과 분지형태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기후조건으로 임산물 재배에 있어 천혜의 조건으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밤 줍기 체험활동

체험활동으로는 산촌마을의 특성상 주로 임산물 수확체험으로 봄에는 산나물 채취, 고추 심기, 야생화 관찰, 여름에는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체험마을 진입로 변에 식재한 매실나무에서 매실수확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옥수수 따기, 별보기, 생태연못 관찰하기 등을 진행한다. 가을에는 산지에 조성된 밤나무단지에서 알밤 줍기 체험, 메뚜기 잡기, 벼 베기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농약은 물론 제초제 한 방울 사용하지 않은 청정한 자연에서의 체험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함의 가치는 물론 결실의 중요성, 나아가 자연이 순환하는 이치를 알게 해주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다.

◈ 경관과 소득자원을 활용한 산촌개발사업을 통한 마을 발전

2006년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착수,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였다. 남천리는 지형적 여건 상, 산림이 주를 이루는 농지가 부족한 전형적인 산촌마을로 소득자원이 빈약하고 생활여건이 낙후되어 있었다. 따라서 마을의 소득원개발과 생활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임산물 수확에 따른 소득창출 확대로 생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의 실질적인 소득이 향상되고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됨으로써 모범적인 산촌운영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우선 체험마을 입구에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확 트인 경관을 제공하고 있으며 종합안내판 등을 시설하여 시인성이 돋보인다. 약수터 조성 및 등산로 보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왔고, 생태연못과 산림욕장을 조성하여 내방객이 자연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체험부지 내 칠갑산 자락의 청정수를 활용, 어른과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영장 및 물썰매장 등 물놀이터 제공으로 남천리를 찾은 체험객의 여름 휴가지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 밖에 마을 내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마을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외부기관의 연수, 워크숍 등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내 실내체육관을 구비하고 있는 마을은 남천리 마을이 유일하다.



실내 체육관



임산물 재배하우스

소득사업을 보면 산채와 표고버섯 재배하우스 등 시설 지원을 통해 머위, 취나물, 표고버섯 등 청정한 임산물을 생산하여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알밤줍기, 산나물 채취 체험활동을 통해 2012년 1억2,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창출하였다. 마을 소득사업이 도시민과의 직거래를 통해 성공리에 추진되면 남천리는 농림 특산물 판매 및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높은 소득원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어 부농의 마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연과 사람의 건강한 추억이 지속되는 마을 구상안

2년간의 사업 진행 후 남천리 산촌마을은 2010년에 8,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감으로써 산촌휴양마을 명소로 자리매김하였다. 다른 산촌마을과 달리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 마을의 행사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마을이 방문객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마을 홍보에도 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에는 온 국민이 애청하는 TV 프로그램인 '1박2일'의 청양군 방송편(2011년 4월)에서 남천리 산촌마을이 촬영팀의 베이스캠프로 선정되어 게임의 장소로 활용되고, 산촌휴양관이 출연 연예인의 숙소로 이용되는 장면이 방영되면서 방문객이 급증하여 보다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바둑골 마을은 농협, ADT 등 공공기관, 기업과 1사1촌

자매결연, 임산물 도농직거래, 칠갑산장승문화축제와 같은 마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각종 체험행사, 타부처 지원 협력사업 등을 통해 마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1박 2일' TV 프로그램 촬영

2011년 12월에는 마을총회에서 '남천리 산촌마을' 명의로 청양군에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한 바 있으며, 이수열 이장은 '교육발전이 청양군의 발전, 청양군의 발전이 곧 마을의 발전'이라며 지역의 젊은 인재들에게 소중히 사용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마을은 지역인재육성 방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이수열 이장에 의하면 현재 마을은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효과로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마을기금 적립과 마을주민에게 직접적인 배당을 하지 못하고 마을 시설운영에 재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사무장 3명, 운영매니저 1명으로 구성된 마을 운영위원회가 마을법인 또는 주민이 출자하는 마을기업으로 확대 운영되어야 하므로 마을법인을 구성하기 위해 계획 중이다.

아름답고 깨끗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마을주민이 잘 살고, 다녀가는 사람이 행복한 산촌마을을 만들기 위한 희망이 매일 이곳을 찾아온다.

*** 마을 특산물**

마을의 특산물로는 머위, 알밤, 표고버섯, 구기자와 고추 등이 있다. 머위는 2ha의 하우스에서 수막재배방식으로 재배하며, 전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산물이다. 머위는 칼슘성분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비타민A를 비롯해 다량의 비타민이 고르게 함유되어 있어 입맛을 돋우는 대표적인 봄나물로 유명하다. 머위에 함유된 페타시틴이 뇌졸중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서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표고버섯은 남천리의 맑은 지하수와 무농약, 무비료로 깨끗한 버섯으로 재배되어 마음 놓고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고버섯에는 섬유질, 광물질, 비타민 B등이 풍부하여 인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는 건강보조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남천머위



남천표고버섯



남천알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
  · 인구 : 161명(남자 89명, 여자 72명)
  · 가구 : 72호(농가 72호, 비농가 호)
  · 면적 : 504ha(산림 426ha, 농지 57ha, 기타 21ha)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 소관이며 시장 · 군수
- 사업지원
  · 생활환경개선 : 종합안내시설, 전망대, 약수터 조성 등
  · 생산기반조성 : 산채 및 표고재배시설
  · 산촌녹색체험시설 : 산촌휴양관, 숲속의 집, 생태연못, 물놀이장 등
  · 마을기획 및 운영 :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주민교육
- 사업기간 : 2006～2008년(2006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07～2008년 사업시행)
- 사업비 : 14억원

만행산 자락 천문과학 · 민족의 얼을 이어가는 하늘별 산촌마을

◈ 대상리 하늘별 산촌마을 연락처

- 남원시청 산림소득과(☎ 063-620-6487～9)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 마　　을(☎ 063-626-9009), 운영위원장(☎ 010-9647-6308)
- 홈페이지 : http://skystarville.or.kr,　http://하늘별마을.com

◈ 만행산 천황봉 기슭에 위치한 별자리 탐험으로 기억되는 마을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하늘별 산촌마을은 만행산 천황봉(해발 909m) 자락에 위치한 전형적인 산촌 마을로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푸근한 인심이 넉넉한 곳이다. 하늘별 산촌마을은 대상마을, 상신마을 2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마을은 94%가 산이라 농사를 지을만한 땅이 귀하다. 그래서 농사 규모가 크지 않아 농산물 체험이나 판매가 어렵다. 특산물이라 자랑할 만한 것이라야 한봉 꿀, 복분자, 산채류(고사리, 두릅, 취나물 등) 등이다. 나머지 농작물을 조금씩 재배하여 모두 자급자족을 한다.



하늘별 산촌마을의 전경

마을에서 다양한 형태의 농·임산물이 생산되나 큰 소득이 되지 못하며 주로 농외소득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 2007년 이후 2가구가 귀농을 하여 정착을 하였으나 귀농을 위한 마을환경은 대체로 열악한 편이다. 하늘별 산촌마을은 1,5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귀정사가 있으며 우리 마을이 낳은 최고의 소리꾼 국창 안숙선 생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인근 지역에 춘향전의 무대가 되었던 광한루와 지리산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지리산 둘레길이 있다.

◈ 기존의 산촌개발마을과 차별화를 꾀한 산촌개발사업의 추진

2005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산촌마을 사업지로 선정되었다. 초창기 선정되었을 당시 주민들은 설명회에 참가하며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건조장, 농로포장, 농수로 정비, 마을회관신축, 산촌체험 순서로 나타났다. 산촌마을의 특색을 살려 복분자, 산머루, 산채사업으로 단기 소득작목을 희망하였고 휴양소득으로는 민박을 그 외 약용수나 유실수 등의 재배를 원하였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견문을 넓히는 선진지 견학과 선행 산촌마



하늘별 산촌마을 안내판

을들을 돌아보며 시야를 넓혀갔다.

1998년부터 이 마을에 공동체를 꿈꾸며 들어와 살고 있던 교사들은 이 마을의 최대 장점인 청정자연과 깨끗한 계곡물, 마을의 돌담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특히 마을로 들어 온 교사 중에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이사를 맡고 있던 장현근교사는 천문관측시설을 시도해 보자는 생각을 제안하였다.

신축되는 마을회관을 활용하여 작은 천문관측 돔과 실습용천체망원경 그리고 자연생태체험을 이용한 각종 현미경과 체험도구들을 마련하여 천문체험과 생태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시설들을 구비하자는 생각이었다. 그러한 제안을 받은 산촌마을 추진의 핵심인 고호현 총무는 곧 바로 이 안건을 마을회의에 올렸고 다소간의 이견은 있었지만 장교사의 제안은 마을회의를 통과하여 신축되는 마을회관 옥상에 천문관측 돔 시설과 관측 장비 외 체험교구들을 준비하는데 1억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만행산 천문체험관

하지만 산동면, 남원시, 전라북도 도청, 그리고 산림청까지 어느 곳 하나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는 곳이 없었다. 이에 수려한 자연환경과 쏟아지는 별들이 있는 이곳을 잘 활용하면 숙박을 하고 가는 체험객이 증가할 것이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고 산촌특산물 직거래와 체험관 운영 인력들의 경제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지속적인 설득 끝에 산림청의 승낙 후 시·군 관계자 및 마을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 마침내 확정되었다.

◈ 마을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마을주민이 천문지도사로 변화하다

2006년 4월부터는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가 주관하는 천문지도사 자격연수를 시작으로 하늘을 개척하는 마을 젊은이들의 노력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마을의 젊은 사람들은 기초천문학과 천체망원경조작, 별자리탐구 등의 이론과 실습을 강도 높게 교육받았으며 우리나라 최대 천문대인 보현산천문대, 대전한국천문연구원 등을 견학하며 천문지도사로서 능력을 갖추어갔고 드디어 그해 9월 자격시험을 거쳐 산촌마을에 5명의 천문지도사가 탄생하였다. 5월부터 착공된 마을회관은 12월 20일경에 준공을 하였고 그동안 천문대 돔과 관측 장비 및 체험 장비에 대한 기획과 건물내 배치 등을 천문지도사들이 스스로 하였으며 겨울방학 때는 추위를 잊어가며 천체망원경 다루기와 천체관측 실습 및 별자리 찾기 등의 숙달훈련을 실시하였다.


마을 천문지도사의 체험지도

◈ 체험관을 중심으로 마을 운영 공동체가 함께 마을의 미래를 설계!

하늘별 산촌마을의 만행산 천문체험관은 이제 마을 발전과 혁신의 중심에 서있다. 산촌으로서 지닌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며 마을의 천문지도사들의 자아성취와 지도사로서의 보람을 느끼며 정체되어있던 마을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고 있다. 잘 보전된 하늘별 산촌마을의 계곡과 야생화, 지질학습장, 별뜨락, 수생식물원 등은 이 마을을 지키고 보전해준 수대에 걸친 조상들과 마을 어른들의 그동안의 노력과 역사가 깃든 값진 보물들이다.



지질체험

이제 이것들은 산촌마을의 무한하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자원이 되었다. 이러한 환경을 배경으로 만행산 천문체험관은 단군조선시대로부터 북부여 그리고 고구려와 발해,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며 세계 최고의 천문과학수준을 간직해온 조상들의 얼을 공부하고 익히어 이곳을 찾는 체험객들에게 전하고 있다.

산촌소득사업으로 재배되는 특산물들을 직거래 할 수 있고, 이곳에서 재배되는 야채들을 활용하여 천문지도사들로 구성된 부녀회가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체험객이 많을 때는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하늘부엌(천주)을 운영하고 있다. 산촌의 자연생태공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소중한 자연유산을 상품으로 제공하고 천문지도사로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마을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체계로 점점 발전하고 있다. 또한 부수적으로 마을의 문화공간으로의 자리매김과 객지로 떠난 이 마을 출신 사람들과 그들 자녀들에게 소중한 체험공간이 되고 있다.



야생체험

◈ 과학교육, 영재교육, 천문우주민족의 얼 잇기 교육의 중심역할

2007년 2월 전남중등지구과학연구회 소속교사들의 천문연수를 시작으로 전남과학고의 천문동아리, 전북지역 과학교사연구회 단체들의 연수를 포함한 하늘민족천문체험교실에 서울, 경기, 광주지역들에서 가족단위의 체험객들이 줄을 이었다.

전라북도교육청 주최의 전북지역 영재들의 통합체험, 전북지역 소재 초·중·고 영재학급 및 시 교육청 소속 영재교육원의 체험교실 등 그야말로 전북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과학교육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숨은 잠재력은 무엇보다도 독특한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들의 정감 넘치는 서비스정신과 자연적으로 형

성된 산촌의 자연환경 등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조화로움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과 대학생 및 일반인, 교사 등 다양한 성향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체험객의 요구수준에 맞게 체험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에 따라 초·중·고 학교급에 따른 과학동아리, 영재학급, 청소년단체, 현장학습, 테마가 있는 체험학습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이 체험관을 찾고 있다. 만행산 천문체험관이 위치한 지역내 학교 학생들을 위한 무료체험교실 운영과 남원시의 면단위의 학생과 지역민을 위한 순회천문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찾아가는 천문체험봉사활동을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과 지역민들에게 천문우주에 대한 드넓은 꿈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별자리 교육

◈ 하늘별 산촌마을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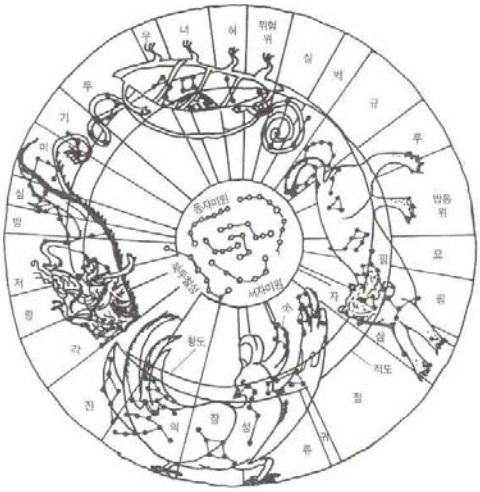
하늘별 산촌마을 만행산 천문체험관의 특징있는 프로그램과 천문지도사 운영진들의 헌신으로 그 명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마을의 미래와 부흥을 위하여 수익금의 대부분을 시설확충, 환경개선 및 관측 장비 구입 등에 재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 마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여하여 제2세미나실 겸 숙소, 슬라이딩 돔을 확충하였으며 지역소재 과학연구회나 교사단체를 위한 공간도 확보하고 있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남원천문교육연구회가 10여년 활동으로 자체 구입한 시가 1,000만원의 2.8m 원형 돔을 마을 만행산 천문체험관에 기증하여 더욱 짜임새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시설확충과 병행하여 천문지도사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연수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하늘별 산촌마을은 마을 전체가 체험관을 중심으로 수익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산림청 산촌지원 사업이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고 있다.

하늘별 산촌마을은 천문체험교육을 활성화하여 자연생태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꿈꾸며 노력하고 있다.

*** 한민족의 천문체계 3원 28수**

우리조상들의 천문체제인 3원 28수를 근간으로 하여 시설과 공간을 배치하고 꾸미고 있다. 주관측실을 자미원, 마을내에 태미원과 천시원을 부여하였으며 체험관내 숙소는 4방위 28수의 각방의 우두머리 별자리인 각수, 두수, 규수, 정수를 방 이름으로 또한 천문관 앞으로 흐르는 냇물을 미리내로 이 미리내를 경계로 지어진 정자를 각각 직녀각과 견우각으로 이름 지었으며 그야말로 어둠뿐인 산중턱 공간에 별빛이 내리는 언덕이라는 뜻으로 별뜨락이라는 공간을 마련하여 누워서 진행하는 별자리 체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체험관 주변에는 우리별자리 체제인 3원 28수 조형물을 제작하여 찾아오는 체험객에게 우리민족의 소중한 천문유산을 널리 알리고자 준비하고 있다.



하늘의 사령과 3원 28수 별자리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 ・인구 : 76명(남자 39명, 여자 37명)
  - ・가구 : 35호(농가 30호, 비농가 5호)
  - ・면적 : 859ha(임야 805ha, 농지 44ha, 기타 10ha)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 소관이며 남원시장
- 사업지원
  - ・생활환경개선 : 녹색체험센터, 자연석 쌓기, 등산로정비, 마을도서 구입
  - ・산촌녹색체험시설 : 체험관측 돔, 체험관 식당, 천문관측 기자재 구입
  - ・생산기반조성 : 복분자・산채・표고 재배하우스, 고사리 노지재배, 산채류 재배단지조성, 임산물출하장비, 임간방목 펜스
- 사업기간 : 2005～2007년(2005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06～2007년 사업시행)
- 사업비 : 14억원

청정 지리산의 숨과 맞닿은 장항리 산촌마을

◈ 원천마을 연락처

- 남원시청 산림소득과(☎ 063-620-6486)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장항리
- 사무장(☎ 011-852-1967)
- 홈페이지 : http://www.jirisanchon.com

◈ 산과 냇물과 사람이 만나는 공존의 장소, 지리산 원천마을



원천마을 전경

지리산 원천마을은 해발 350m이상의 고지대이며, 면 소재지에서 뱀사골 쪽으로 약 0.6㎞지점에 위치한다. 덕두산을 분기점으로 큰 평전이 있어 운봉읍과 경계가 되고, 지방도 861호선이 마을 앞을 통과하여 타 산촌보다 교통이 편리하다. 뱀사골의 첫 관문으로 소동폭포, 산신바위, 외톨솔백이, 송대, 샘, 매봉날 등 수려한 산과 아름다운 계곡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원천마을은 본래 온수동이라 하여 만병이 치료된다는 약수가 나와 나병환자들이 발길이 잦은 곳이었다. 이에 불편을 느낀 주민들이 이들을 막기 위해 우물을 메우고 그 자리에 느티나무를 심었고 마을 이름을 원수동이라 고쳐 불렀다. 그 후 장항리 출신으로 1894년 동학혁명 때 남원의 동학접주 김개남 동학군을 운봉 방아재와 관음치 전투에서 대파한 주서 박봉양의 제안으로 원천리라 부르게 되었다.

양대박이 1586년 9월에 지리산일대를 유람한 기록에 보면 초가가 잘 어우러진 산간마을과 곡식에 적당한 토양, 과일에 적당한 임야, 고기잡이에 적당한 시내가 있어서 참으로 관대하고 한가로운 동네로, 한적한 물가가 있어 은자가 거처하며 노닐 만한 곳 이었다라고 쓰여져 있으며 이는 바로 원천리를 말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또한 옛날 신선들과 선녀들이 놀았다는 산신바위 전설에 의하면 원천리에서 온천을 하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지며, 마한의 별궁인 달궁리에서 왕, 중신 및 궁녀들이 원천리에서 온천을 즐겨 하였다고 전해진다.

선조 25년(1592)경 임진왜란을 만나 피난 왔던 사람들이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었으나 언젠가 화재로 모든 가옥이 소실되어 한 동한 폐촌이 되었다고 전한다. 그 후 분성배씨와 청주한씨가 들어와 마을을 이루었으나 이 두 성씨는 후손이 적어 주류를 이루지 못하고 다른 성씨들이 이주해 현재의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마을 지형은 나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며, 옛날 무슨 연유 인지 나비의 양

날개에 해당하는 곳에 삼마 및 닥나무를 삶는 솥(삼굿)을 여러 개 걸어 마을의 맥이 끊어져 마을이 번성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후 세월이 지나고 마을주민들의 지극한 정성과 노력으로 이 마을을 한 번 방문한 사람들은 마을에서 살고 싶어 하며, 현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산촌마을로 이름나 있다.

원천마을은 지리산 뱀사골 꿀사과, 감, 곶감, 고사리, 자연산송이 등 마을의 특산물들이 다양하고, 주변에 지리산 천왕봉을 비롯하여 고산의 명봉들이 많고 신라 고찰인 실상사와 춘향의 정까지 담은 광한루와 소리의 성지 박초월의 생가 등 지역관광자원이 풍부하다.

◈ 다녀오고 싶은, 살고 싶은 마을로 거듭난 산촌마을 조성 사업 실행

원천 산촌마을은 2006년 산림청에서 선정하는 생태산촌마을 가꾸기 사업에 선정되어서, 2007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2008~2009년까지 12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였다.

원천마을은 산촌마을에 대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민의 삶이 쾌적하고 장수하는 마을, 도시와 공생하는 마을 발전을 목표로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하고, 계곡, 돌담, 한옥, 사과꽃, 단풍 등 산촌다운 모습을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여가와 휴양이 어우러진 마을 조성,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마을로 조성하고자 하는 주요 전략을 펼쳤다.

우선 원천마을은 산촌사업의 효과적인 시행과 마을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에 마을통합 영농조합법인을 발족하였다. 출자자가 정회원이 되고, 그 외 마을주민이 준회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마을주민의 약 90%가 마을운영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었다. 이로써 마을 공동재산의 법인재산화, 산촌사업의 통합 운영을 통한 성공적 마을 공동체 모델 만들기에 주력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첫째,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의 공간을 재정비하였다.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을 주민종합복지관으로 정비하고, 산촌문화관(도농교류센터)을 조성하였다. 산촌문화관은 생태건축, 신재생에너지 도입, 취미가공체험장의 공간으로 연계, 방갈로 설치 등 친환경적이고 이용자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또한 마을 진입로 정비, 상수도 보완, 마을경관 조성 등을 수행하였다. 둘째,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임산물생산단지를 조성하고, 한봉을 채밀하고 장류 상품을 생산하는 취미가공체험장 조성, 경운기, 이동식 파쇄기 등의 시설물들을 도입하였다. 셋째, 산촌녹색체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산촌문화관, 숲해설 산책로, 숙박체험동,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였으며, 축제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였다. 그 외 마을의 효과적인 기획과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마을 리플렛 등을 만들었으며,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및 주민교육을 정

기적으로 실시하여 내부적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 자치적 운영 기반을 조성하였다.

현재 원천마을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전형적 산촌마을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지역 특유의 인간미가 넘치는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촌마을로 발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을 안내판



산촌문화관



숙박체험동



상수도 물탱크



취미가공체험장



돌담

◈ 산촌의 아름다움 향기를 만끽하는 체험프로그램

지리산 권역에 위치해 있는 원천마을은 지역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재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계절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단체방문객, 개별방문객, 초중고 체험단 등 이용자별로 기간에 따라 주변 마을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마을주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계절별 프로그램으로 봄에는 산나물 채취, 고사리 꺾기, 사과꽃 따기, 다랭이논 모내기, 감자 심기 등이 있고, 여름에는 고기잡이 등 계곡 생태 체험, 감자 캐기, 삼굿체험 등을 진행한다. 가을에는 자연산 송이 따기, 지리산 뱀사골 꿀사과 따기, 산머루 와인 담그기, 곶감 깍기 등을 진행하고, 겨울에는 매주 두부 만들기, 눈썰매, 달집태우기, 짚신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이외 상시적으로 숲해설 프로그램, 마을주민과 가공품 만들기, 공예체험, 생태체험, 자기학습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두부 만들기



염색 체험



사과 따기



산내 꾸러미 고객 체험 행사

◈ 마을의 부(富)와 화합을 부르는 특산품과 축제

지리산의 청정한 자연을 배경으로 맑고 깨끗한 원천마을은 자연산 송이, 지리산 뱀사골 꿀사과, 사과즙, 배, 친환경 고랭지 콩으로 만든 두부, 고사리, 곶감, 호두, 고로쇠 된장, 토봉꿀, 각종 산채류 등 다양한 지역특산물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전략 수립 및 마을공동체 활용을 통한 소득작업, 가공상품 개발 등을 통해 마을의 지속적인 소득원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마을주민의 협동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을축제를 개최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매년 정월 대보름날 대보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마을주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달집태우기, 소원지 등을 하며 주민 간의 단합뿐만 아니라 마을 홍보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원천인의 날'이라고 하여 매년 4월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간 갈등해소와 화합을 위해 축제를 벌이는데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고 음식 잔치 등을 벌인다.



달집 태우기

마을의 안녕과 오는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원천 산촌마을은 하나된 마음으로 자연 안에서 소박하고도 정성스러운 인심을 베풀며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 지리산 뱀사골**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의 지리산 반야봉에서 반선까지 길이 14km의 계곡으로 지리산국립공원 내에서 가장 계곡미가 뛰어난 골짜기로 손꼽힌다.

뱀사골의 지명 유래는 몇 가지가 있다. 정유재란에 불타버린 석실 부근의 배암사라는 절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지리산 북사면의 계곡으로 돌돌골이라고도 하여 물이 뱀처럼 곡류한다 하여 뱀사골이라 부른다는 설이 있다. 또 뱀사골은 뱀이 죽은 계곡이라는 전설에서 나온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뱀사골 입구에 송림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에서 칠월 백중날 신선대에 올라가 기도를 하면 신선이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일을 괴이하게 여긴 어느 대사가 신선대에 올라 기도를 하려는 스님의 가사장삼에 몰래 명주실과 독을 매달아 두었다. 다음날 뱀소 부근에 용이 못된 이무기가 죽어 있었다고 하여 뱀사골이란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이무기에 죽어갔던 스님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반쯤 신선이 되었다 하여 뱀사골 입구 동네를 반선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유래로 뱀과는 관련이 없는 비탈이 심한 사이 골짜기란 뜻의 밴샅골이 변해 뱀사골로 불리어졌다는 설이 있다.

한편 뱀사골은, 이곳 지리산을 비롯하여 특히 식량과 거처가 용이한 곳이어서 여순사건 등을 거치면서 많은 희생자를 냈던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다. 이렇게 많은 전설과 숱한 사연을 간직한 뱀사골은 봄철에는 철쭉꽃이, 가을철에는 빛깔이 다양한 단풍이 계곡을 덮으며, 여름철에는 녹음 짙은 계곡이 아무리 더워도 섭씨 15도 이상 오르지 않아 피서 인파로 성시를 이룬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장항리
  - 인구 : 204명(남자 101명, 여자 103명)
  - 가구 : 79호(농가 63호, 비농가 16호)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 소관이며 시장 · 군수
- 사업지원
  - 생활환경개선 : 산림문화관 1동, 숙박체험동 5동, 찜질방 1동, 정자 2동, 상수도 물탱크 1동, 마을회관 1동 등
  - 생산기반조성 : 임산물 생산단지(감나무 1,000주 식재)
  - 산촌녹색체험시설 : 숲해설 산책로, 태양광 발전시설, 취미가공체험장 1동
- 사업기간 : 2007～2009년(2007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08～2009년 사업시행)
- 사업비 : 12억원

살기 좋은 산촌마을로 거듭나는 학동 · 마조 곶감마을

◈ 봉학리 산촌마을 연락처

- 진안군청 산림자원과(☎ 063-430-2430～2432)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 마 을(☎ 063-432-5954), 운영위원장(☎ 011-9642-5954)
- 홈페이지 : www.hakdong.or.kr, E-mail : cmg5954@hanmail.net

◈ 예로부터 『곶감마을』로 불리던 학동·마조 산촌마을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운장산 자락에 위치한 학동과 마조 산촌마을은 예로부터 곶감마을로 불려 질 정도로 마을 거주 66가구 중 2/3 이상이 곶감농사에 종사해 오고 있으며 가구당 마을 곶감소득이 평균 600～7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마조마을은 마을 어귀에 질그릇을 굽는 가마가 있고 그 옆에 나무가리를 쌓아놓았다고 하여 가리점으로, 학동마을은 마을 뒤 산골짜기 깊은 용소에서 학이 깃들어 마을을 지켜준다 하여 학동(학골)으로 불린 것이 마을의 유래이다. 운장산 자락에 위치하여 사방이 구봉산과 투구봉, 옥녀봉, 명덕봉으로 둘러싸여 예전엔 정천면 소재지까지 나가려면 돌 징검다리 12곳을 건너야 할 정도로 산간오지였다.



봉학리 산촌생태마을 전경

지난 1996년 마을까지 도로가 확·포장된 이후, 학동마을의 청정 자연생태환경이 알려지면서 도시민의 여름 휴양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학동마을이 마을사업에 나선 것은 산촌에 마땅한 소득원이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의 면적도 적었기 때문이었다. 지난 2004년 진안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내재적 역량을 강화하여 산림청에서 선정하는 산촌개발 사업에 도전, 그 해 12월말에 지정을 받았다. 당초에는 학동마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마을 규모가 25가구에 불과, 신청자격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두 마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산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 주민이 하나로 단합되다.

처음 산촌개발사업을 알게 된 후, 학동마을 중심으로 사업신청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마조마을 주민들이 합류하면서 사업은 2개 마을이 1개 사업을 신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업신청 당시부터 현재까지 봉학리 산촌생태마을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명근위원장은 '피서객들이 마을에 많이 찾는

편이었고 곶감도 판매량이 많아서 산촌마을 조성 시에 성공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를 기억하였다.

그러나, 산촌마을 조성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부지 입지선정과 재원조달이 문제인데, 마조·학동마을은 2개 마을이 1개 사업을 같이 추진하다보니, 사업초기부터 좀 더 많은 시설물을 자기 마을로 가져가기 위한 갈등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마을회의를 통한 의견조율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부지매입비 등 재원조달 문제는 마을 공동소유 부지 13ha를 매각하여 마련하였다. 감나무 재배단지도 마을 땅을 활용하여 조성하였고 이는 현재 산촌마을 공동운영, 수익금의 공동분배라는 큰 성과로 되돌아 왔다. 이는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한 주민역량이 강화된 결과로 산촌마을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마조 산림문화회관

◈ 자연생태환경을 활용한 체험과 휴양을 위한 산촌마을로의 변화

2003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기본설계 과정에서부터 모든 의사결정을 마을회의를 통해 결정하였고 2004~2005년도 조성 시기에는 마을 주민별로 당번을 정해서 공사현장을 감독 할 정도로 산촌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는 매우 높았다.



산림휴양관 및 물놀이장 전경

조성의 큰 방향은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을 활용한 도시민의 생태체험·휴양프로그램 개발이었다. 마조 산림문화회관 1동(132㎡), 곶감 체험관 1동(163㎡), 산림휴양관 1동(118㎡), 물놀이장(99㎡), 사각정자(1식) 등 산촌체험시설과 마을공동저장고 1동(82.5㎡), 저온저장고 1동(16.5㎡), 곶감 건조장 1동(66㎡), 감 박피기 2대 등 생산기반사업을 완료하였고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 소득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 (10동) 감나무 재배단지(2.0ha)를 조성하였다. 또한 당초설계에는 없는 수영장을 예산절약을 통해 추가 설치하였다. 이와 같은 산촌마을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은 2006년도 산촌마을 준공 이후, 서서히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표고 재배시설

◈ 봉학리 산촌마을 구전(口傳)을 통해 알려지다.

2007년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봉학리 산촌마을은 빼어난 경관과 맑은 계곡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였다. 입지 선정이 좋았다는 점도 큰 이유가 되었지만, 표고버섯 채취, 곶감 만들기 체험 등 프로그램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외부 방문객 유치에 큰 힘이 되었다. 특히, 설계 변경을 통해 주민들이 설치한 수영장은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되어 가족 단위 내방객이 많이 방문하였다. 연간 방문객이 38,000명에 이르고 여름철에는 숙박시설 예약이 미리 만료될 정도로 성황을 이루게 되자 주민들의 참여가 좀 더 적극성을 갖게 되었고, 체험시설과 숙박시설 청소는 주민들이 당번을 정하여 실시하였다.



곶감 건조장

이러한 노력에 의해 2007년 산림청 선정 '찾고 싶은 산촌마을 베스트 10'에 선정되었고 2009년도에는 산림청에서 실시한 산촌마을 조성평가에서 봉학리 산촌마을은 우수 산촌마을로 선정되어 1억2,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마을은 상금에 마을자체 기금 5,000만원을 더해 2층 구조의 휴양관 1동을 추가 신축하는데 사용하였다.



감박피기를 이용한 감박피

또한, 마을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주변 지인들에게 봉학리 산촌마을을 홍보하면서 소위 말하는 '입소문'을 타고 여름철 외에도 마을 내방객이 꾸준하게 유지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마을 수익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2011년도 학동마을 전체수익금은 1억2,000만원으로 연말에 마을 총회를 통해 산촌마을 운영기금으로 30%, 마을기금으로 30%, 노인회, 부녀회, 주민들에게 나머지 40%를 균등하게 배분하였다.

◈ 아토피치료와 연계하여 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꿈꾸다.

봉학리 산촌마을은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매년 8월에 개최되는 진안군 마을축제와 마을 만들기 정기회에도 계속 참여하여 의견 및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 목적의 단체객 유치를 위해 마을기금으로 산촌마을에 회의시설 설치를 계획하는 등 지속적으로 마을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마을이 활기를 띄게 되자, 2009~2011년도 3년 동안, 5가구, 9명이 귀농하였고 아토피 치료 목적으로 3가구가 마을로



피서객의 마을 냇가의 물놀이

이주하여 시골마을 대부분이 겪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해 주고 있으며,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진안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아토피프리클러스터 단지가 학동 마을에서 차량으로 3분 거리 내에 위치함에 따라 마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에는 산촌마을 주변 땅값도 크게 올라 평당 거래가가 15~20만원 대로 올랐으며 전원주택지 구입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산촌마을을 넘어 그 이상의 것을 꿈꾸는 봉학리 산촌마을 주민들에게 진심어린 응원을 보낸다.



단합되는 마을공동체 주민들

*** 곶감**

곶감은 동양, 특히 우리나라의 특산으로 건조과실의 대표적 제품으로서 예부터 그 생산은 농가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온 과실가공품이다. 곶감은 주로 명절이나 제사 때 쓰였는데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건시(乾柿)'라고도 한다. 감은 '향약구급방'에 기록되어 있어 고려시대부터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곶감용에 알맞은 조건은 당도 함량이 높고 육질이 점질로 섬유나 종자가 적은 것이다. 곶감제조에 사용하는 감 품종은 상주의 둥시, 예천의 은평준시, 함안의 수시, 완주의 고종시, 영동의 둥시 등이 이용된다.

진안의 봉학리는 씨가 없는 감이 생산되는 지역이라 씨를 빼내는 수고가 들지 않고 맛이 좋으면서 씨가 없어 곶감의 인기가 높아 마을에서 거의 직거래로 판매된다고 한다. 곶감은 기침이나 가래가 많을 때, 그리고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 장 질환과 같은 성인병에도 탁월하다. 뿐만 아니라 타닌 성분은 설사를 멎게 하고 모세혈관을 강화시켜 고혈압의 예방에도 좋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 ・인구 : 138명(남자 57명, 여자 81명)
  - ・가구 : 66호(농가 54호, 비농가 12호)
  - ・면적 : 752ha(산림 691ha, 농지 39ha, 기타 22ha)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 소관이며 진안군수
- 사업지원
  - ・생활환경개선 : 오수처리시설, 마을안길 정비, 상수도 관정공사
  - ・산촌녹색체험 : 마조산림문화회관, 곶감체험장, 산림휴양관, 정자, 수영장 등
  - ・생산기반조성 : 표고재배단지, 감 재배단지, 곶감건조장(건조기), 저온저장고, 공동작업장 등
  - ・마을기획 및 운영 : 홈페이지 구축, 리더 및 주민교육, 마을 브랜드개발 체험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04～2006년(2004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05～2006년 사업시행)
- 사업비 : 13.5억

주민들의 헌신과 협력으로 마을을 가꾸는 섶밭들 산촌마을

◈ 연평리 섶밭들 산촌마을 연락처

- 장수군청 산림과(☎ 063-350-2318)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 섶밭들 산촌마을(☎ 063-351-8300), 운영매니저(☎ 010-5872-8201)
- E-mail : crycat@hanmail.net

◈ 천반산 자락 천천천(天川川) 수변 경관자원이 아름다운 구신 산촌마을

천천면 연평리 구신 산촌마을은 임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산촌마을로 마을 앞으로 흐르는 청정수질의 천천천(天川川)과 인근에는 천반산과 용담댐 등이 있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 구신 산촌마을은 구상마을과 신전마을 2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섶밭들 산촌마을 전경

천천면 연평리는 섶밭들 마을이라고 불렸는데 섶밭들은 옛 지명의 명칭이다. 그 옛날 어르신들이 나무를 해서 연명하던 시절부터 불렸던 이름이다. 지금은 행정상 구신마을로 되어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섶밭들 또는 한자음으로 신전(薪田)이라고 많이 부른다. 마을 앞 천천천은 금강의 발원지인 뜬 봉샘에서 내려오는 1급수가 흐르는데 쉬리, 꺽지, 가라지, 빠가사리 등 다양한 어종이 살고 있으며 반딧불의 먹이가 되는 다슬기도 많이 보인다.

섶밭들 산촌마을은 전체면적이 217ha로 산림 145ha, 농지 40ha, 기타 32ha의 작은 면적으로 농지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주변의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전형적인 산촌마을로 농지가 많이 부족해 산을 개간한 곳이 많다보니 논밭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 규모를 가지고 농사짓기가 힘든 곳이다. 현재도 마을에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가구는 5가구 정도이며 나머지는 자급자족을 위한 최소한의 농사만 짓고 있다. 마을에서는 고추, 토마토 등을 재배하고 한우 등을 사육하나 생산량이 적어 유통처리를 거쳐 전적으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섶밭들 산촌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주변의 관광자원으로는 방화동 관광 휴양촌, 신광사, 승마리조트 블루 새들, 의기 논개 사당이 있다. 논개하면 진주 촉석루를 가장 먼저 떠올리나 논개의 고향은 전북 장수 주촌(朱村)마을이다. 의암 주논개는 주촌마을에서 태어나 13세까지 자랐다고 한다. 주촌마을 논개 생가터에는 논개를 기리기 위하여 생가, 의랑루, 단아정, 석상 등이 있고 장수도깨비전시관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 마을 소득제고를 위한 산촌체험 사업위주의 산촌개발사업 추진

섶밭들 산촌마을에는 귀촌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에 마을 운영위원장인 하영택 운영위원장은 2005년에 귀촌하였고 최덕현 운영매니저는 2007년에 귀촌하였다. 이러한 귀촌인들이 작고 조용한 섶밭들 마을에 변화를 주도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섶밭들 산촌마을 안내판

섶밭들 산촌마을은 2005년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으로 마을가꾸기를 시작하였다. 2006년 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마을 체험객 수의 증가로 대상을 수상하고 상금 1억원으로 마을 공동부지 600평 구입과 마을 회관을 리모델링을 하였다. 2007년 마을에 마을기반 조성 및 체험을 위한 hardware시설 확보를 위해 산촌개발사업 유치를 계획하게 되었다. 여러 번의 마을회의를 거쳐 체험위주의 마을사업으로 방향이 정립되어 산촌사업도 체험시설 위주의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산촌마을 방문자센터

산촌개발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으로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마을 하천정비, 우물보수, 정자를 신축하였다. 산촌녹색체험을 위해 산림문화관, 방문자센터, 체험산막(황토방) 2동을 신축하였다. 또한, 생산기반 조성으로 표고재배와 천마가공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마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마을주민 21가구가 모여 가구당 30만원씩 출자를 하여 섶밭들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였다. 모든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법인이 추진하고 있다. 다만, 산림문화관은 마을에 있는 폐교에 시설을 설치하고 위탁·임대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 산촌체험과 휴양을 접목하여 체험마을로 유명해진 섶밭들 산촌마을

섶밭들 산촌마을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들이 휴양을 하면서 마을에서 잘 하는 전통두부 만들기, 꼬마 농부체험(계절별 농산물 수확), 여울따라 경운기타기, 천렵(물고기 잡기), 풍등날리기, 천연염색(핸드폰 고리 만들기), 규방공예(컵받침, 보석함 제작), 한지공예, 슬로푸드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을 계획·추진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이 각종 언론에도 수도 없이 소개되면서 한 3년 정도 꽤 유명세를 탔다.

몇 해 전에는 KBS TV 강호동의 1박2일이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이 많이 홍보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섶밭들 산촌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비해 체험 일을 주관하여 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더군

다나 바쁜 농사철에 일손이 없을 때 체험까지 해야 되니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했다.

마을의 발전방향을 산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숙박시설인 체험산막 황토방을 활용하는 위주의 사업으로 개선추진하기 위해 체험사업의 횟수와 참가자의 수를 줄였다. 기존에 실시하였던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은 마을을 찾아오시는 숙박객들을 위한 부수적인 서비스 개념으로 실행하였다. 과거에 비하여 마을을 찾아오는 전체 방문객 수는 줄었지만 반대로 수익은 조금 늘었다. 그러자 차츰 주민들의 불만도 잦아졌다.



산촌마을 체험산막(황토방)

섶밭들 산촌마을에 현재 실거주하는 가구는 26가구이다. 그 중 21가구가 마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섶밭들 영농조합의 조합원이다. 조합원에게는 연말에 결산을 하여 많은 돈은 아니지만 공평하게 소득을 분배된다. 그리고 남는 자금은 선진지 견학, 여행, 회식 등 주민복지를 위해 쓰이고 나머지는 다음해 시설을 운영하는 자금으로 쓰인다. 2011년에 체험산막을 이용한 숙박객이 1,500명으로 2,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1,2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어 8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또한, 마을에서 임대를 주어 별도로 운영하는 산림문화관의 1년 임대료 500만원이 마을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다.



천렵(물고기 잡기) 체험

마을의 숙박・체험사업으로 마을을 찾아오는 숙박・체험객이 2009년 200명에서 2011년 1,500명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에는 약 2,000명 정도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마을에서는 1회 약 40명의 인원으로 신청하는 단체에 한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마을 부녀회(11명)가 운영하는 전통두부 만들기 체험으로 2011년에 부녀회는 약 8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마을 노인회의 할머니들은 마을 주변 산림에서 고사리 수확으로 100~200만원/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두부만들기 체험

섶밭들 산촌마을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 시설을 운영함에 마을과 주민들의 역량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고 규모경영을 하였다. 이러한 이면에는 마을 주민들이 주인의식과 단합된 힘이 원동력이 되었고 마을에 귀촌한 운영위원장과 운영매니저가 헌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마을주민의 복지와 마을발전을 위한 새로운 준비와 실행

섶밭들 산촌마을은 농지와 대지 등이 부족하고 공가도 부족하여 귀촌을 활성화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마을에 공가 1채가 있는데 공가의 활용을 위하여 장수군 도시민유치센터의 지원금 2,000만원으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섶밭들 산촌마을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들의 복지와 마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2011~2012년 전북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의 지원금 30,000만원으로 마을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이용하여 먹거리 만드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장류와 전통주가공 판매, 향토음식 체험관 신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숙박시설을 이용해 완성도 있는 숙박·체험형태의 사업으로 전통주 만들기, 천연염색, 메주 만들기 등 어른대상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기존의 학생들만을 상대로 하는 단순 체험에서 벗어나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 몇 분이 전문적으로 공부(부녀회-콩 관련요리 17가지 요리 가능)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된다. 또한, 마을은 2012년 농산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의 열악한 농지 및 대지 면적과 소득도 많지 않아 귀농·귀촌을 쉽게 하지 못하는 마을인 섶밭들 ! 또한 좋은 자연환경도 아니고 뛰어난 자랑거리도 없는 섶밭들 산촌마을 !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잘 운영·관리되고 있는 것은 보면 특별해 보인다. 섶밭들 마을이 특별해 보이는 까닭은 도시민들이 좋아하는 시골인심과 마을주민들이 잘 어우러져 놀고 즐길 수 있는 좋은 관계의 마을공동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진달래**(Korean Rhododendron,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 진달래과

진달래과 낙엽관목으로 키는 2~3m 정도 자란다. 타원형 또는 피침형의 잎은 어긋나는데,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뒷면에는 조그만 비늘조각들이 빽빽하게 나 있다. 분홍색의 꽃은 잎이 나오기 전인 4월부터 가지 끝에 2~5송이씩 모여 피는데, 통꽃으로 꽃부리 끝은 5갈래로 조금 갈라져 있다. 수술은 10개, 암술은 1개이다. 열매는 삭과(蒴果)로 익는다. 진달래는 한국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개나리와 함께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나무의 하나로 사랑받아 왔는데, 개나리가 주로 양지바른 곳에서 잘 자라는 반면에 진달래는 약간 그늘지며 습기가 약간 있는 곳에서 잘 자란다. 가지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도 잘 자라며 추위에도 잘 견딘다. 뿌리가 얕게 내리고 잔뿌리가 많아 쉽게 옮겨 심을 수 있다.

꽃을 따서 먹을 수 있으므로 참꽃 또는 참꽃나무라고 부르는데, 제주도에서 자라는 참꽃나무와는 다르다. 꽃을 날것으로 먹거나 화채 또는 술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술을 빚어 먹을 경우 담근 지 100일이 지나야 맛이 난다고 하여 백일주라고도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먹어야 몸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달래를 두견화(杜鵑花)라고도 하는데, 이는 두견새가 밤 새워 피를 토하면서 울어, 그 피로 꽃이 분홍색으로 물들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한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 인구 : 46명(남자 20명, 여자 26명)
  - 가구 : 27호(농가 25호, 비농가 2호)
  - 면적 : 217ha(임야 145ha, 농지 40ha, 기타 32ha)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 소관이며 장수군수
- 사업지원
  - 생활환경개선 : 마을하천정비, 우물보수, 정자, 들꽃 산책로
  - 녹색체험시설 : 산림문화관 2층, 방문자센터, 체험산막(황토방) 2동
  - 생산기반조성 : 표고재배시설(창고), 천마가공시설
  - 마을기획 및 운영 : 홈페이지 구축
- 사업기간 : 2007~2009년(2007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08~2009년 사업시행)
- 사업비 : 10억원

백운산 자락아래 성불계곡이 아름다운 산달뱅이 산촌마을

◈ 산달뱅이 산촌마을 연락처

- 광양시청 산림자원과(☎ 061-797-3572)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 이　　장(☎ 061-763-3954), 운영매니저(☎010-6265-6393)
- 홈페이지 : www.hajo.co.kr,　E-mail :4bokok@hanmail.net

◈ 광양 백운산자락 성불계곡 상류의 청정한 산촌마을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에 위치한 하조마을은 백운산 형제봉아래 첫째 마을로서, 아름답고 수려한 성불계곡을 품에 안은 아기자기한 마을이다. 계곡물이 넘치는 7~8월을 제외하고는 외지인의 발길조차 뜸한 이 마을이 2009년도에 마을 브랜드명을 산달뱅이(다랭이논)라 하는 산촌마을로 새롭게 변신을 시도하였다.



마을의 브랜드, 산달뱅이 논

산달뱅이 산촌마을은 원래 광양현 북면 며내리 지역으로 추정되며 1872년 광양현 지도에 의하면 며내면 성불리 지역이었다. 1912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현 산달뱅이마을 지역에 하조리, 상조리, 성불리 3개 마을이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여러 마을이 병합되어 조령리에 속하였다. 1987년 1월 1일 기준으로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지역으로 행정리상 조령3구가 되어 하조라 하였으며 현재는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에 속하여 행정리상 하조라 한다.

산달뱅이 산촌마을은 광양 백운산의 중턱이자 백운산 4대 계곡의 하나인 성불계곡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봄철에는 고로쇠 약수 시음마을로, 여름철에는 계곡 물놀이마을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마을의 총 가구 수는 42호이며, 총 인구 140명중 남성이 67명, 여성이 73명으로 남녀의 비율의 차이가 거의 없다.



사계절 계곡물이 좋은 성불계곡

마을의 총 면적은 1,674ha로 산림면적이 1,629ha, 농지면적은 40ha(논 15ha, 밭 25ha), 기타 5ha로 구성된 산촌마을이다.

산달뱅이 산촌마을에서 생산되는 주요 임산물로는 표고버섯, 밤, 고로쇠, 매실, 복분자등이 있으며, 농산물로는 고추, 배추, 쌀 등이 잇다. 마을과 연계된 주요 관광자원으로는 백운산, 성불계곡, 조령계곡(새재골), 성불사 등이 있다.

◈ 산달뱅이(다락 논)을 주제로 한 자원맞춤형 산촌개발사업의 실행

산달뱅이 산촌마을은 농경지가 적고 생산되는 농·임산물이 많지 않아 농·임산물의 효과적인 생산과 가공판매 및 무공해 고소득 작물을 개발하여 가구 당 소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산달뱅이 산촌마을 안내판

산달뱅이 마을은 1년 중 여름철과 고로쇠 수액이 생산되는 봄철에만 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집중된다. 마을에 산재된 다락 논(산달뱅이)을 주제로 한 산촌개발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4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마을 조성과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기반 창출을 목적으로 산촌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2006년 산촌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공동부지의 구입을 위하여 각 가구당 60만원씩 2년에 걸쳐 4,600만원의의 기금을 마련하여 460평(10만원/평)의 공동부지를 마련하였다.

2006년 국립산림과학원 산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문화관광연구소 오순환소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내용을 확정하였다. 개발사업의 내용은 산촌체험관, 숯가마 조성, 저온저장고, 표고재배하우스, 우물터복원, 소공원조성, 돌담조성, 농로 및 원두막 조성 등이다



산촌체험관

2007~2008년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나 숯가마 시설이 내화벽돌 구입문제로 조성이 지연되고 마을 내에 돌담조성은 당초계획보다 조성 물량이 늘어나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2009년에 사업이 완료되었다. 사업이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산촌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마을운영을 위한 공동체의 형성으로 주민들 간에 화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의 마을의 운영은 마을회(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가 주관하고 있다.

◈ 마을발전을 위한 귀촌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하나 되는 공동체

사업초기 체험관을 건립할 마을부지가 없어서 주민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지금의 체험관건립 부지를 마련하였으나 2009년 사업이 완료된 후 마을운영에 대한 명확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고심하던 차에, 2011년 때마침 도시에서 귀촌하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귀촌인을 마을의 운영매니저를 채용하면서 마을이 활기를 띄게 되었다.

산촌체험마을로 설계하면서 초기에 개발한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것들이 많았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좋으나, 함께 운영할 마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은 거의 다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 마을에는 노동력이 전무한 노인들뿐이니 운영매니저 혼자서 체험객을 대상으로 체험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아름답고 꾸며진 공방시설

그래서 운영매니저의 제안으로 서울에서 귀촌하여 초등학교 앞에서 미니공방을 운영하던 선생님과 체험관마당에 운영매니저의 기부로 공방시설을 건립하여 공방을 이전시키고 미니가구 만들기, 생활용품 리폼 등 체험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였다. 마을은 무보수의 유능한 재능기부자를 만난 셈이었다. 초등학교에 방과 후 미술선생님으로 활동하시는 가구공방 선생님이 바쁠 경우에는 수강생들이 서로 서로 틈나는 대로 도와주면서 공동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마을을 위한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리고 운영매니저가 10년간 익혔던 퀼트(조각 천을 이용한 소품 만들기) 강습을 시작하였는데 그 반응이 의외로 폭발적이었다. 퀼트-조각천 소품만들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봉강면 생활개선회 교육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40명 회원에게 강습을 시작하게 되자, 옆 마을-동광양생활개선회에서도 단체 강습요청이 들어왔다. 시골의 산촌마을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나 할까 했던 체험-강습들이 읍에서, 또는 가까운 순천에서부터 오는 사람들로 마을에 활기를 더해준다.


산촌체험장에서 목공예 체험

2012년 여름부터는 도자기체험도 시작할 예정으로 운영매니저와 부녀회장이 열심히 도자기 공방에 다니면서 도자기 빚는 법도 익히고 있다. 또한 여름밤의 천체관측을 위해 개인적으로 망원경을 여러 개 소지하고 있는 마을주민의 도움을 받아 손님이 몰리는 여름철 숙박객들에게 가끔씩 별보기 체험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마을에는 귀촌가구가 8가구나 되며 모두 마을회에 가입되어 있다.

◈ 경관자원의 활용과 산림소득원 제고를 통한 마을 활성화 방안의 추진

산달뱅이 산촌마을은 청년회와 부녀회 주관으로 마을주위의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 내에 조경수(단풍, 소나무 등)와 야생화를 식재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에는 마을단합을 위한 정기적인 행사인 주민 노래자랑(4회 개최) 정월 대보름 쥐불놀이(3회 개최) 이외에도 봉강면 청년회 주관으로 제1회 성불사의 밤 산사음악회를 개최하고 마을에서는 복분자, 매실 등의 가공식품의 시음회도 병행 개최하였다. 행사는 광양시립국악원 등 1,500명이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마을의 수입은 마을이 활성화 된지 1년도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숫자로 통계를 낼 수 있을 만큼 큰 수입이 되지 못한다. 산촌체험관 건물에 숙박용 방이 2실뿐이어서 2011년 여름에 열심히 운영했어도 300만원의 수입밖에 되지 않아 안타까워 했으나, 숙박고객들의 입소문에 힘입어 2012년에는 5월부터 이용객과 예약문의가 몰리고 있다.

또한, 산촌체험관 건립 시에 조성한 표고버섯재배하우스에서 2012년 하반기부터 표고버섯이 본격적으로 출하된다. 따라서 표고버섯 따기 체험도 가능하다.



입식된 표고자목과 표고재배시설

현재까지 7년째 마을의 이장을 맡고 있는 조진국 이장은 혼자서 동분서주하며 발을 동동 구르다가 요즘은 활발히 운영되는 산촌체험관과 공방을 보면 뿌듯한 마음에 어깨가 절로 펴진다고 한다.

마을의 활성화는 특별하고 굉장한 시설이나 그럴듯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재능과 어떤 의욕을 가진 사람이 마을을 이끌어 가고 운영해 가느냐가 더 중요하는 것을 새삼 느낀다. 그것은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이나 산림교육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마을지도자교육이나 체험지도사교육, 운영매니저 교육 등 갖가지 교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마을의 입장은 빈독에 물붓기식의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뭔가 해보려 안간힘을 쓰고 노력하는 마을을 찾아내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주는 그런 작은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산달뱅이 산촌마을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발전하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 매실나무** (Japanese apricot, *Prunus mume* S. et Z.) : 앵두나무과

매화나무라고도 한다. 보통 정원에 심고 있는 낙엽소교목으로 키는 5m 정도 자란다. 줄기는 굵고 거칠며 검은색이나 어린가지는 초록색이다. 잎은 어긋나고 난형이며 잎 가장자리에는 뾰족한 톱니들이 나 있다. 잎의 앞뒤와 뒷면 잎맥에 털이 있다. 짧은 잎자루에는 부드러운 털이 나 있으며 턱잎이 있다. 꽃은 이른 봄(2~4월)에 잎보다 먼저 나와 흰색 또는 연분홍색으로 피는데 향기가 강하며, 잎겨드랑이에 1~2송이씩 달린다. 꽃자루가 거의 없으며 5장의 꽃잎은 난형이고, 수술이 많으며 암술은 1개이나 씨방이 털로 덮여 있다.

열매인 매실은 핵과(核果)로, 처음에는 초록색이었다가 7월쯤이면 노란색으로 변하며 매우 시다. 매실로는 술을 빚기도 한다. 매실은 피로회복, 해독작용, 체질개선, 간장보호 및 소화불량 해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매(烏梅 : 껍질을 벗기고 짚불 연기에 그을려서 말린 매실)는 설사·기침·소갈(消渴)에 쓴다. 꽃을 보기 위해 심을 때는 매화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 심을 때는 매실나무라고 부른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691
  - 인구 : 140명(남자 67명, 여자 73명)
  - 가구 : 42호(농가 4호, 임가 38호)
  - 면적 : 1,699ha(산림 1,629ha, 농지 45ha, 기타 25ha)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 현재는 시에서 관할
- 사업지원
  - 생활환경개선 : 마을안내시설, 마을돌담, 소공원, 우물터 복원 등
  - 생산기반조성 : 산약초, 산채, 야생화달뱅이, 원두막, 표고재배하우스 등
  - 산촌녹색체험시설 : 산촌체험관, 체험장비, 등산로 등
  - 마을기획 및 운영 : 홈페이지 구축, 전산장비, 주민교육, 마을브랜드개발 등
- 사업기간 : 2006～2008년(2006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07～2008년 사업시행)
- 사업비 : 14억원

천불천탑 운주사와 마고선녀의 전설을 간직한 봉하 산촌마을

◈ 봉하리 산촌마을 연락처

- 화순군청 산림소득과(☎ 061-379-3723)
- 위　　치 :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봉하리
- 마 을(☎ 061-375-3257), 운영위원장(☎ 010-8200-0967)
- 홈페이지: http://www.bongha.kr.　E-mail : bongha0967@hanmail.net

◈ 마고선녀의 전설이 깃든 수락산과 계곡, 폭포가 아름다운 산촌마을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봉하리 산촌마을은 봉학동마을, 상수락마을, 하수락마을, 하곡마을, 청소마을은 5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었으나 상수락마을이 폐촌되면서 현재는 4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1867년 능주군 호암면, 1895년 나주시 능주군 호암면, 1914년 행적구역 개편으로 도암면과 호암면을 통폐합하여 도암면 봉하리에 편입되었다.



봉하산촌마을(청소마을)의 전경

봉하 산촌마을은 동쪽으로는 청풍면, 남쪽은 장흥군 유치면, 서쪽은 나주시 봉황면, 북쪽은 나주시 다도면과 인접하여 있으며 화순읍에서 30㎞ 거리로 자동차로 약 40분정도가 소요된다.

봉하 산촌마을과 관련된 관광자원으로는 마을입구의 운주사와 선왕산(413.5m)으로 불리는 수락산이 마을 뒤에 있다. 운주사 창건과 수락산 계곡에 있는 마고선녀 폭포, 선녀들 목욕탕, 선녀손톱자국 바위 등 관광자원이 마고선녀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으로 다양하게 꾸며져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봉하 산촌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레저 자원으로는 천불천탑 운주사, 조광조 선생 유배지,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공원 등 역사문화 유적지와 화학산, 개천산, 도곡온천 등이 있다.

◈ 마을의 소득자원을 활용한 체험사업 추진을 위한 산촌개발사업의 실행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경관

봉하 산촌마을의 주요 농작물은 쌀, 고추, 옥수수, 콩 등이 있으며 임산물로는 감, 표고버섯 등이 있다. 또한, 전통식품으로는 콩을 이용한 메주, 된장, 청국장 등을 생산하고 있다.

봉하 산촌마을은 2003년에 농협이 주관하는 팜스테이 마을정비 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처음 추진하였다. 2004년에 마을 청년회의 주도로 봉하리

마을가꾸기와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마을만들기 2대 운동의 실행차원으로 산촌개발마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즉 산촌개발사업의 추진을 도시와 산촌의 상호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도농교류의 추진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실행하였다.

2004년 산촌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위원회(영농조합법인-9인)가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 부지(1,200평-7,000만원 부채 발생)를 구입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임산물 집하 및 공동작업장, 특산물 판매장 및 발효장, 산촌체험센터 5동, 전통식품 가공 및 체험장 2동, 표고재배사, 저온저장고 1식 등의 시설조성을 실시하였다. 마을개발의 개념을 주요 경관자원과 소득 작목을 이용하여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상·추진하는 것이었다.



산촌체험센터 전경

마을은 산촌개발 사업이 완료된 2006~2007년까지 마을경영의 미숙으로 2,000만원의 부채가 더 발생하게 되었다. 봉하 산촌마을에 위기가 찾아왔다. 이러한 사항을 타결하기 위하여 2008년에 부녀회가 마을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인수받고 마을운영을 시작하였다.

◈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인 헌신을 다하는 봉하 산촌마을 부녀회!



마을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봉하 산촌마을의 부녀회는 구한순 부녀회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구한순 부녀회장은 마을의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봉화 산촌마을 부녀회는 마을 주민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마을은 1993년에 메주작목반을 구성하여 군의 지원(200만원)을 받아 가공공장을 시작하였다. 마을에서 수확된 콩의 가공판매를 통하여 마을의 소득이 증가되고 발효실, 작업실, 수확선별기 등의 후속적인 지원과 투자로 사업이 안정화 되었다. 마을의 부녀회는 마을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메주공장으로 공장에 대한 긍지가 대단히 높다.

2009~2011년까지 부녀회와 함께 마을을 운영하면서 기 발생된 부채액 9,000만원 중 7,000만원의 부채를 청산하였다. 부녀회 주관으로 마을 소득 작물인 콩을 이용하여 메주, 된장, 청국장 등을 만들어 판매를 하였으며 마을 방문 체험객들에게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임산물을 활용하여 식사를 만들어 제공을 하는 등 마을활

성화를 위한 부채액 청산에 헌신을 다하였다.

또한 부녀회원들은 모두 무보수로 마을일에 협력을 하였다고 한다. 구한순위원장은 2012년까지 마을부채액 2,000만원을 모두 청산하고 새롭게 마을발전을 추진할 것이며 2013년부터는 마을경영이 흑자경영으로 돌아서고 부녀회에 수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2011년 마을소득 내용은 부녀회 메주작목반에서 2,000만원의 소득(마을생산 콩 400말-8,000kg 소비, 농업박람회에 참가하여 장류판매로 800만원의 순수입을 올림, 전화 및 인터넷 판매 포함)과 마을방문 숙박객(1,200명)의 숙박동(11평 4개-12만원/일, 20평 1개-17만원/일)이용과 체험비 및 식사료 등이 있다.

마을부녀회는 마을서 발생된 부채와 마을 주민간의 불화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 있다. 투명한 마을운영과 마을방문객에 대한 고객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 주민이 가장 잘 하는 것을 체험거리로.. 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을 추진

봉하 산촌마을은 다른 지역의 산촌마을과는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마을의 부채와 불화를 마을의 부녀회가 운영위원회로 변화하여 마을운영을 하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마을운영에 인적자원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리던지기 체험

마을의 주요 소득자원인 메주 가공공장을 주축으로 광주지역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국장 체험, 인절미체험, 고추·옥수수 따기 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철에는 기아자동차 직원(100명/년)을 대상으로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하수락마을에 위치한 체험시설의 넓은 마당은 마을 최고의 장소로 밤이면 캠프파이어장이 되고, 바비큐 파티장이 되는 마당은 아이들의 환상적인 놀이터가 된다. 굴렁쇠를 굴리며 뛰고 투호를 던지고, 널을 뛰며 논다. 마을에서는 각종 농사체험과 함께 다양한 토속음식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봄에는 산나물 채취를 비롯해 산더덕 캐기, 나뭇잎과 풀잎으로 100가지 술 담그기 등이 진행된다. 여름에는 물놀이와 함께 고추며 옥수수, 깻잎 따기 등을 즐길 수 있고 가을에는 이 마을 특산품인 단감과 대봉감 따기 체험이 가능해 아이들이 좋아한다. 겨울에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농사지은 콩을 이용해



고추따기 체험

메주 만들기, 청국장 띄우기 등을 할 수 있고 눈썰매도 탈 수 있다.

봉하 산촌마을은 2009년 산림청 주관 경영평가에서 경영우수 산촌마을로 선정되어 1억2,500만원의 상금을 수혜 받아 마을의 체험시설에 재투자를 한 바 있다.



우수 산촌생태마을 봉하산촌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부녀회원들에게는 산촌체험관 및 다양한 체험의 운영은 힘이 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으나 마을 부녀회원들은 마을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할 계획이다.

마을은 소득자원이 부족하지만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마을에서 있는 대·소사를 자신의 일과 같이 처리하는 아름답고 착한 주민들 있다.

◈ 전통장류 만들기를 통한 도농교류와 다문화가구 활성화 추진을 꿈꾼다.

봉하 산촌마을은 2004년 농협중앙회 지산동, 2007년 효창병원, 2008년 성남시 코오롱아파트 부녀회, 여수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산시 수정라이온스클럽 등 다양한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마을에서 생산되는 콩, 메주, 된장 등과 같은 생산물 판매에 가장 큰 고객들이다. 봉하 산촌마을 운영위원회는 마을을 아끼고 살리기 위하여 마을에서 가장 잘 하는 사업인 장류만들기 및 체험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마을 발전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2013년에 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매니저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산촌개발 사업으로 산촌체험관광객을 수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하나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계곡에 사방댐 및 야계사방 사업계획을 군과 협의 중에 있다.

봉하 산촌마을이 속하여 있는 도암면에는 다문화 가정이 약 30가구가 있다. 마을에서는 다문화 가구의 부녀자를 대상으로 메주공장을 활용하여 장류만들기 체험과 교육을 위해 면사무소와 논의 중에 있다.

마을의 어려운 위기 상황을 발전과 단합의 기회로 변화시킨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봉하 산촌마을! 또 다른 변화된 마을모습을 기대해 본다.

*** 감나무** (Japanese persimmon(*Diospyros kaki* thumb)) : 감나무과

낙엽교목으로 경기도 이남에서 과수로 널리 심는다. 키는 14m까지 자라며 수피는 회흑갈색이고 어린 가지에는 갈색 털이 있다. 잎은 어긋나고 가죽처럼 질기며 길이 7~17㎝, 너비 5~10㎝이다. 잎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조그만 꽃병처럼 생긴 꽃은 황백색이며 양성화 또는 단성화로 5~6월에 잎겨드랑이에 핀다. 수꽃은 길이 1㎝정도로 16개의 수술이 있으나 양성화에는 4~16개의 수술이 있다. 암꽃의 암술은 길이 15~18㎜이며 암술대에는 털이 있다. 열매는 10월에 주황색으로 익는다. 많은 품종이 개량되어 있다.

주로 감을 수확하기 위해 심지만 열매와 붉게 물든 단풍의 어우러짐이 아름다워 정원수로도 널리 심고 있다. 목재는 가구재·조각재로 널리 쓰인다.

감나무는 연평균기온이 11~15℃인 지역에서 재배하기에 적합하지만 단감나무는 이보다 더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해야 한다. 추위에 약한 편이어서 빛이 잘 드는 양지와 약산성을 띠는 흙에서 더 잘 자란다. 번식은 씨로 하지 않고 주로 고욤나무를 대목(臺木)으로 접붙여서 한다. 뿌리가 땅속 깊이 내리므로 옮겨심기가 좀 어려운데, 3~4월이 옮겨심기에 적당한 시기이나 따뜻한 지방은 10~11월에도 가능하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봉하리 53-1
  - 인구 : 42명 (남자 25명 여자 17명)
  - 가구 : 21호(농가 20호, 비농가 1호)
  - 면적 : 643ha(산림 594ha, 농지 29.7ha, 기타 19.3ha)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소관으로 화순군수
- 사업지원
  - 생활환경개선 : 배수로 정비, 돌담쌓기, 정자, 등산로 정비, 안내시설
  - 산촌녹색체험시설 : 산촌체험센타(숲속의집)
  - 생산기반조성 : 전통식품가공 및 체험장, 임산물집하장 및 공동작업장
    표고재배사, 저온저장고 특산물 판매 및 발효장
  - 마을기획 및 운영 : 홈페이지 구축, 리더 및 주민교육
- 사업기간 : 2004~2006년(2004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05~2006년 사업시행)
- 사업비 : 14.5억원

팔영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정기를 담은 아담하고 포근한 사포마을

◈ 사포 산촌마을 연락처

- 고흥군청 환경산림과(☎ 061-830-5123)
-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양사리
- 운영위원장(☎ 061-834-0065), 운영매니저(☎ 011-9222-8836)
- 홈페이지 : www.sapogreen.com.

◈ 팔영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빼어난 자연경관을 그대로 담은 친환경 산촌마을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양사리 사포 산촌마을은 팔영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사포마을은 마을의 지형이 뱀꼬리 형국이며 마을 앞으로 깊숙이 바다가 들어와 배가 닿는 포구로 뱀개 또는 사포(蛇浦)라고 칭하게 되었다.



팔영산에서 내려다 본 사포마을 전경

사포 산촌마을은 전형적인 산골마을로 주변이 병풍 같은 산으로 둘러싸여 한쪽 면으로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아늑한 산촌마을이며 휴양마을로서 사계절이 뚜렷하여 봄에는 쑴바귀 등 봄나물로 온 들판을 덮고 여름에는 마을 한편에 위치한 바다가 있어 각종 물고기가 서식하고, 다슬기와 꼬막 등의 채취와 낚시를 즐길 수 있다.

가을에는 온주변이 물감을 뿌려놓은 듯 오색찬란한 단풍이 마을을 감싸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하며, 주위로는 남포미술관, 팔영산 자연휴양림, 팔영산 편백나무수림이 연접하고 있어 산림휴양과 문화가 어우러진 마을이다.

양사리 사포 산촌마을은 고흥이 자랑하는 10경중 으뜸인 팔영산의 풍경과 굴참나무, 갈참나무, 고로쇠와 치유효과가 뛰어난 편백나무 군락으로 이루어진 산림자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병풍 같은 산을 등지고 바라보는 해안선은 신선들이 공기돌을 던져 놓은 듯 펼쳐지는 다도해 해상 경관이 장관을 이뤄 신선들이 쉬어간다는 무릉도원이 따로 없는 아름다운 다도해의 광활한 풍경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며 해안선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자연스레 시인이 되어 있는 나를 보게 된다.

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는 남포미술관, 팔영산 국립공원, 남열 해수욕장, 나로도 우주기지 등이 있다. 영남면 양사리 사포 산촌마을은 고흥군청에서 영남면소재지까지 20㎞, 과역면에서 지방도 843호선을 따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팔영산지구 쪽으로 15㎞가량 가면 지붕이 없는 미술관을 만날 수 있다.

◈ 천혜의 자연경관 자원을 활용한 산촌마을 개발사업의 실행

사포 산촌마을은 팔영산 다도해 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하여 산촌과 어촌의 풍경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마을 안에 남포미술관(중학교 폐교를 활용한 개인미술관)이 있다. 마을 전체면적은 458ha로 그 중 농지가 65ha, 산림이 393ha를 자치하고 있는 산림휴양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어촌과 산촌이 공존하는 국내 유일의 산촌마을이다.



중학교 폐교를 활용한 남포미술관

마을의 주요 소득원은 벼, 마늘, 콩, 고추 등이며 마을의 특화약초인 “황금초(꿀풀과 여러해살이 풀)” 등이 있다. 황금초 재배는 많은 노동력의 요구와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생산가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사포마을 산촌개발 사업은 군의 건의로 마을 여건에 맞는 팔영산 자연경관과 바다문화 체험을 소재로 마을 주민이 협동 단결하여 오감을 통한 체험, 산림문화체험, 전통문화체험을 통한 소득개발을 위해 추진되었다.

2007년 마을에 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 부지구입을 위하여 기 조성된 마을기금과 주민들의 기금모금으로 1,000평(4,500만원)의 부지를 마련하였다.

마을개발은 2008~2009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업추진으로 설치된 주요시설은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옥 숙박동 3동 및 부대시설로 MT, 세미나, 체험행사, 이벤트 등을 개최할 공간을 마련하고, 정신적 경관자원을 널리 계승하고 보급할 전통 산촌체험장, 등산로, 편백나무 숲 산책로 등 기반이 조성되었다.

사업으로 체험객들을 위한 산촌체험장과 편익시설을 조성하고 마을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개발을 위해 군유림 5ha를 영구임대 받아 산림소득단지를 조성하였다. 산림소득단지는 고사리, 두릅, 더덕, 도라지 등 식재하였으나 2010~2011년 풀베기 작업 등 공동작업의 미비로 더덕과 도라지는 실패하고 고사리와 두릅은 채취를 하고 있다. 향후에 마을에서 기대하고 있는 산림소득원이다.



팔영산 자락에 자생하는 고사리

현재 마을에서 운영매니저 중심으로 고사리 꺽기, 꼬막캐기, 다슬기 잡기 등 천연자연자원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 팔영산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연계한 전통경관자원 체험시설

사포 산촌마을 곽정수 운영매니저는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에는 지역주민들의 관심 부족과 주민들 간의 갈등(마늘과 황금초 재배를 위한 관계수로 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사업에서 배제됨)으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으나, 마을개발사업의 설명회와 여러 차례에 걸친 주민회의로 주민들 간 단결력을 이끌어내고,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공감대의 형성, 공동참여가 확대되었다고 회상한다.



산촌체험장과 체험참여 학생들

당초 마을개발에 대한 마을 공동부지의 확보가 어려웠으나 마을 주변의 자연을 보존하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천연경관자원의 상품화로 이루어낸 지역경제 개발이라는 종합개발계획에 공감대가 형성 참여도를 높이었고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적극 참여하게 된 동기를 부여하여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마을을 다시 단결시켜 미래를 열어가는 우주항공도시의 주민이 되어가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마을 공동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

2010년 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마을을 방문하여 한옥 숙박동을 이용한 인원은 1,081명으로 1,51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 2011년에는 972명이 방문하여 1,385만원의 소득을 제고하였다. 2012년 8월까지 664명이 방문하였다. 팔영산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의 증축공사로 마을의 숙박동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한옥 숙박동

숙박동 수입의 50%이상이 운영비(전기세 400만원/년)로 지출되고 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숙박동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투자(욕실온수시설, 세탁실보완사업 등)를 하고 있다.

산림자원을 이용한 치유와 휴양문화로 꽉 막힌 도심에서 탈출 가족과 연인과 함께 색다른 추억을 만들 산림휴양 최적의 장소로 이를 농촌소득개발과 맞물릴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천연 자연경관의 상품화에 매진하고 있다.

◈ 천연 산림자원 보전·증식과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 개발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이 고령인 마을은 공동체 구현을 위한 노력으로 정월대보름 농악, 윷놀이 등의 행사와 매년 노인회를 대상으로 효도관광을 추진하고 있으

며 어버이날 노인을 섬기는 마을잔치와 기금의 모금을 하고 있다.

사포 산촌마을은 천연산림자원을 주제로 한 지속적 성장가능성을 시험대로 산림욕장 조성, 표고재배단지, 임산물 집하장 및 선별시설을 갖추고 고사리, 두릅, 도라지 등 산채류를 공동 생산 판매하는 마을 공동체를 이뤄 성공적인 자연과 문화체험의 주체가 되고, 『천연자연자원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주제를 통해 년 1,000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매년 10%이상의 방문객 증가로 마을 소득창출과 지역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

여덟 봉우리에서 흘러내리는 정기를 담은 계곡물은 희귀 동식물의 보고를 만들고 천연자연경관을 주제로 한 각종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정신적 역사적 경관자원을 계승 보전하고, 체험객에게 아름다운 마을공동체 문화를 전파하고 노력하는 마을이다.

마을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된 요인은 마을의 홈페이지를 활용한 마을의 홍보였다. 마을의 홍보로 인하여 마을방문객이 사업 전보다 매우 증가한 상태이다. 다만 마을의 노령화된 인적구조로 인하여 마을의 운영을 운영매니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 마을이 해결하여야 할 숙제이다. 현재 마을은 젊은 인력자원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 또한, 마을의 유휴지를 이용하여 노동력을 적게 들이고 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소규모 캠핑장(몽골텐트), 숙박시설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사포 산촌마을은 소득자원과 인적자원이 부족한 마을이다. 그러나 마을을 위하여 헌신적인 운영매니저와 자발적으로 역량강화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 그들은 지역의 문화와 경관을 사랑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을 하고 있다.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 인증패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 산촌체험장

*** 편백나무** (노송나무, *Chamaecyparis obtusa S. et Z.* Endl.) : 측백나무과

키는 40m, 지름은 2m에 이른다. 가지가 옆으로 나란히 퍼지며, 수피(樹皮)는 적갈색이고 세로로 길게 갈라진다. 비늘처럼 생긴 조그만 잎은 2장씩 서로 마주보며 4장씩 모여서 달린다. 위쪽과 아래쪽에 달리는 잎은 짧고 끝이 뭉툭하지만 좌우에 달리는 잎은 약간 길며, 아래쪽에는 Y자형의 흰색 무늬가 있다.

타원형의 많은 수꽃과 공처럼 생긴 암꽃은 4월 무렵 한 그루의 가지 끝에서 암꽃과 수꽃이 따로따로 핀다. 공처럼 생긴 구과(毬果)는 8~10개의 조각(실편)으로 되어 있고, 씨는 조각마다 2~5개씩 달린다. 일본이 원산지이며, 한국에는 1927년경 화백(*C. pisifera*)과 함께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편백과 화백 모두를 관상수, 특히 울타리용으로 흔히 심는데, 편백은 마른 땅에서 잘 자라고 화백은 습한 곳에서 잘 자란다.

편백나무는 피톤치드를 많이 배출하는 나무로 향균·살균효과가 뛰어나며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진정 작용 효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 제어를 통한 면역력 증진과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양사리 사포(蛇浦)
  - ·인구 : 120명(남자 43명, 여자 77명)
  - ·가구 : 72호(농가 38호, 비농가 27호, 공가 7호)
  - ·면적 : 458ha(산림 393ha, 논 35ha, 밭 30ha)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 소관이며 고흥군수
- 사업지원
  - ·생활환경개선 : 산촌문화회관, 안내시설, 정자, 돌담 쌓기, 산책로 조성
  - ·생산기반조성 : 산촌체험센터, 임산물 집하 및 선별장, 산림소득재배단지
  - ·마을기획 및 운영 : 홈페이지 구축, 리더 및 주민교육, 마을브랜드개발
- 사업기간 : 2007~2009년(2007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08~2009년 사업시행)
- 사업비 : 14.6억원

돌담의 정취와 모과향기가 어우러진 치산리 산촌마을

◈ 돌담모과마을 연락처

○ 영천시 산림녹지과(☎ 054-330-6317)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1249

○ 이　　장(☎ 010-4244-3317), 사무장(☎ 010-6308-3047)

○ 홈페이지 : www.sanchondarea.co.kr

◈ 아름다운 치산을 배경으로 향기로운 모과향이 반기는 돌담모과마을



돌담모과마을 전경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치산2리 마을은 팔공산에서 북으로 뻗은 지맥이 갑자기 낮아져 구릉지를 이루고 구릉지 사이에 큰 계곡을 형성하고 있으며, 남쪽이 높게 가로막혀 구름 낀 날에 흰 구름이 나부끼는 치산을 배경으로 위치하고 있다. 진불암에서 발한 계천이 중간에 치산폭포를 형성하여 떨어지는 낙수소리는 우레 같고, 천 길 낭떠러지에 백 척의 물기둥을 볼 수 있다. 계곡은 흰 반석이 깔렸으며, 좌우의 광경은 선경을 연상케 하고 있다.

마을 이름은 320여 년 전 신시내미·신시암·신암 지역을 김해김씨가 개척하였는데 개척 당시 신선한 자연 암석이 많았다고 하여 신암이라 칭했다가, 그 후 70년 후에 치산이라 개칭하였다. 마을 입구 앞산이 꿩이 엎드려 있는 모양이라 하여 불리어진 이름이다.

예로부터 돌이 많아 마을 어디서든 돌담을 볼 수 있고, 마을 안의 길 대부분이 옛 모습 그대로의 돌담길로 되어 있어 산촌다운 정취와 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주변에는 치산관광지, 은해사 거조암, 팔공산 등 다양한 관광지가 자리 잡고 있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마을 안길가를 따라 이어진 돌담과 모과나무를 활용한 산촌마을사업 실행



마을 안 돌담길

신녕면 치산리는 팔공산 북동쪽에 위치해 영천에서도 오지마을이었으나 인근의 팔공산과 치산계곡, 수도사, 진불암, 치산폭포 및 시원한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또 최근에는 미나리 재배로 봄이면 미식가들이 즐겨 찾고 있다.

마을 안 곳곳에 모과나무가 심어져 있을 정도로 전국에서 유명한 모과 산지로서 계곡의 자연석을 이용하여 만든 돌담길을 걸으며 코끝을 간지럽히는 향긋

한 모과향을 통해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뛰어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2005년 산림청 응모사업에 응모하여 2006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06~2009년까지 4년 동안 14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촌쉼터(149㎡), 산촌체험장(99㎡), 산나물 재배장 4동, 마을안길 돌담 425m, 소공원조성 1식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추었다. 또한, 2006년도 국립산림과학원 산촌체험관광마을연구 시범 산촌체험프로그램개발 모델마을 전국 5개 지역 중 한 지역으로 선정되어 체험프로그램을 고려하여 마을 내에 천연염색 체험장인 한빛(풀향기)공방, 음식점, 민박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시민들이 한 곳에서 숙박과 산촌체험을 하기 쉽게 조성하였다.

◈ 모과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99㎡의 돌담모과 체험장에서는 모과를 이용한 모과차시음, 족욕, 연필꽂이제작, 팩, 향낭제작, 모과주, 모과청 제작 등을 체험할 수 있고, 마른모과 직판 등 다양한 특산물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들과 가족단위의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관지염, 급체, 폐결핵 등에 좋은 모과차와 기침과 천식 증세를 가라앉히는데 효능을 보이는 모과주의 경우 체험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149㎡의 돌담모과쉼터는 식당, 숙박시설, 관리사무실로 활용되도록 1층은 관리사무실, 식당,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고, 식당 내에는 빔 프로젝터 장비와 접이식 탁자 및 의자가 구비되어 세미나회의 등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층은 숙박시설로 주방과 욕실이 각각 딸려있는 두 개의 방이 마련되어 있다.



치산리 마을회관 및 공동화장실



산촌체험관

◈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치산 산촌마을에서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약 1.2㎞)에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치산관광지가 자리 잡고 있다.

공산폭포(치산폭포)로 가는 길에는 수도사(대한불교 제10교구 본사인 은해사의 말사)라는 오래된 사찰이 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찰은 아니지만 사찰을 중심으로 연출된 주변 자연환경은 어느 사찰에 뒤지지 않는다. 자연과 하나 된 모습의 사찰은 심신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숲 속의 휴식처라고 할 수 있다. 수도사는

647년(신라 진덕여왕 1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였고, 원효대사가 수도한 천년고찰이다. 원래 이름은 금당사였으나 원효대사가 이곳에서 1백여 명의 제자와 수도하였다 하여 수도사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수도사 내에는 원통전과 산신각, 승방 등이 있고 원통전 안에 관세음보살이 좌상으로 모셔져 있으며, 불상 뒤에는 후불탱화와 지장탱화·신중탱화가 걸려 있다. 또한 보물 제1271호로 지정된 1704년(숙종 30년)에 조성된 노사나불 괘불탱이 있다.



천년고찰 수도사



공산폭포(치산폭포)

수도사를 지나 계곡을 따라 도보로 약 20분가량 산을 오르다 보면 암반을 타고 시원하게 떨어지는 공산폭포(치산폭포)와도 만날 수 있다. 공산폭포(치산폭포)는 치산관광지의 핵심지로서 팔공산에 산재해 있는 폭포 중 가장 낙차가 크고 낙수가 풍부한 폭포이다. 또한, 주변의 다양한 형상을 한 기암괴석과 숲은 공산폭포(치산폭포)의 매력을 한층 더 풍부하게 해준다. 한겨울에는 계곡이 꽁꽁 얼어붙어 산악인들의 빙벽연습장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렇듯 수려한 주변의 관광자원은 도시의 빡빡함에 시달린 도시민들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고, 마음의 여유로움을 갖게 하는 등 치산산촌마을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흥미와 충분한 휴식요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치산관광지에 방문한 관광객들의 숙박과 휴식처도 제공해 주어 치산산촌마을 내의 숙박시설을 비롯한 마을의 여러 시설들과 특산물들의 수입 증대 효과도 있다.

산촌마을사업은 주민생활환경개선은 물론 숙박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가구 수 및 주민소득증대에서 큰 효과를 가져왔다. 가구 수는 산촌사업 전 2006년도 110가구였으나 현재는 130가구로 늘어났으며, 귀촌 귀농가구도 13가구나 된다.

산촌마을사업으로 조성한 산촌체험관 4동에서 하루 40명을 수용할 수 있고 2011년도 여름 2달간 약 1,000명의 방문객들로 부터 1,0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했다고 한다. 수익금은 시설보완 및 리모델링에 재투자되어 사용되었다고 한다. 2012년부터는 전문 운영매니저가 상시 거주하면서 운영 중이며 작년보다 연중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성수기에 산촌체험관의 작은방은 7~10만원, 큰방(7평)은 25~30만원의 요금을 받는다고 한다. 예약은 산촌개발사업으로 구축된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현재 치산 산촌마을의 기금은 산촌법인에 1천만 정도가 조성되었다고 한다.

영천시에서 약 30억원을 투자하여 마을 뒷산에 오토캠프장과 오수처리장을 시설하였다. 영천시에서는 이를 치산마을청년회에 위탁경영을 맡겼으며 수도사 계곡을 찾는 방문객들로부터 7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차량 1대당 받은 2~3천원의

입장료로 얻은 마을사업 수익금을 장학금 기부 및 마을 기금조성에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마을 계곡 차량 입장료 및 방문객 수입액 1~2,000만원 중 1,000만원 정도가 경비로 사용되고, 치산 1, 2리에 각각 매년 100만원 정도의 기금, 시에 장학금 100만원, 동네 초중고 장학금으로 50만원 기부, 나머지는 청년회 기금으로 조성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마을에서 모과 묘목과 열매 등을 생산하여 공동판매를 통한 소득을 창출하고 모과마을 경관을 조성하고 있다.

◈ 계절별 특산물의 활용, 그리고 지속적인 교류

치산 산촌마을에는 계절별로 여러 특산물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 봄철 미나리·마늘·양파, 가을철 사과·모과 등이 그것들이다. 또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도시민들의 농촌체험을 통해 체험객들은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얻고, 저렴한 가격에 산지의 농산물을 살 수 있으며, 마을주민은 특산물 수확에 도움을 얻고,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1석 3조의 이상의 효과를 얻고 있다.



미나리 수확

또한 돌담모과마을은 싱싱고향별곡, TBC아침뉴스 등 방송에 출현하여 많은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외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치산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마을 홍보, 도시민들이 즐겁게 체험하면서 농촌에 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도시민과의 자매결연 확대를 통한 문화교류 증대, 온라인을 통한 마을 특산물 추가판로 개척 등 도시민과의 교류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자연 친화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돌담모과마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체험객들에게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 돌담모과마을이 다시 찾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이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마을주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있다.

*** 모과나무**(*Chaenomeles sinensis* KOEHNE.) : 장미목 장미과

잎지는 큰키나무. 높이 10m가량으로 자라며 나무껍질은 자갈색으로 광택이 난다. 묵은 나무껍질은 봄이면 비늘 조각이 되어 떨어지고 매끄러운 가지는 푸른빛을 띤다. 꽃은 4~5월에 가지 끝에 분홍빛으로 1송이씩 피고, 열매는 이과(梨果)로 타원형 또는 달걀을 거꾸로 세운 모양이고 길이 10~20cm, 지름 8~15cm이며 목질이 발달하여 있다. 9월에 황색으로 익으며 향기가 좋고 신맛이 강하다.

모과는 근골을 튼튼히 하는 과일이라고 할 수 있다. 모과의 성분은 수분 74~85%, 당질 13.4~20.7%, 섬유질 1.3~4.4%, 회분 0.3~0.7%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근골을 이루는 대표적인 성분인 칼슘 및 철분, 그리고 무기질이 풍부하고, 사포닌, 사과산, 주석산,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 타닌 등이 함유되어 있다. 모과의 유기산은 인체 내에서 신진대사를 도와주고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하여 주는 작용을 하며, 침 담즙 취장액 등의 분비를 촉진하고 입맛도 돋우며, 억균 작용과 부패를 막는 작용을 한다. 그 밖에 모과에는 당분이 약 10~13%가량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주로 과당의 형태이며, 다른 당분보다 혈당의 상승을 막는 효과가 높다고 한다.

동의보감에는 '갑자기 토하고 설사하면서 배가 아픈 위장병에 좋으며 소화를 잘 시키고 설사 뒤에 오는 갈증을 멎게 한다. 또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다리와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낫게 한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민간약으로도 널리 쓰여 각기병, 급체, 기관지염, 토사, 폐결핵은 물론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경우와 신경통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치산2리
  - 인구 : 379명(남자 186명, 여자 193명)
  - 가구 : 161호(농가 141호, 비농가 20호)
  - 면적 : 1,853ha(산림 1,759ha, 농지 81ha, 기타 13ha)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 소관으로 영천시장
- 사업지원
  - 생활환경개선 : 마을안길 돌담쌓기, 오폐수관로 정비, 도로 포장, 마을내 수로정비 등
  - 생산기반조성 : 돌담모과체험장, 돌담모과쉼터, 옥외화장실, 산나물 재배장
  - 마을기획 및 운영 : 홈페이지 구축, 리더 및 주민교육, 마을브랜드개발
- 사업기간 : 2006~2009년(2007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07~2009년 사업시행)
- 사업비 : 14.6억원

국내 최고 웰빙 · 체류형 마을, 석산리 산촌마을

◈ 약바람마을 연락처

- 군위군 환경산림과(☎ 054-380-6192)
- 위　　치 :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 운영위원장(☎ 010-3824-0468)
- 홈페이지 : http://석산리.kr/

◈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청정마을



마을 전경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약바람마을은 탑들, 석정, 유사골 3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마을로 총면적은 877ha이다. 이중 94%가 산림이고 총 82가구 중 95%가 농림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세대원은 170명으로 46%가 60세 이하로 젊은 계층이 비교적 많이 분포된 전형적인 오지 산촌마을이다.

유사골은 과거 광산개발로 아연을 채취해왔던 곳으로 현재 폐동굴 수십 개가 산재해 있고, 동굴에서 나오는 바람은 여름철 14℃의 냉풍과 겨울철 온풍을 불어내고 있어 체험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산림을 활용한 표고, 장뇌삼, 더덕, 산도라지, 산채, 산약초, 약용수, 고로쇠수액채취 등 소득의 대부분이 임산물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

석산리 마을은 군위댐 최상류 지역으로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인근에 위치한 삼국유사의 저술지인 인각사, 일연공원, 군위장곡자연휴양림, 화산산성, 신비의 소나무, 아미산등산로 등 풍부한 지역관광자원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곳으로 아미산의 형상이 병사들이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하여 예로부터 전쟁의 피해가 없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리적 여건도 대구와, 구미 등 인근 대도시와 한 시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곳이다.

◈ 산촌에 잠재해 있는 자원을 활용한 마을개발사업 추진

석산리 마을은 자연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고 주요 소득원으로 표고, 대추, 호두, 장뇌삼, 야콘, 마, 산약초재배 등을 재배하는 전형적인 산촌마을이다. 특히, 이 마을은 아연을 채취했던 폐광산 동굴이 산재하고 있어 종유석, 박쥐등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다. 이처럼 산촌에 잠재해 있는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을 개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 3월 석산리 마을주민 6명으로 산촌마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진지 견학 및 수차례의 주민간담회를 거쳐 웰빙, 체류형 산촌마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2007년 8월 산림청 산촌마을 사전 설계 대상마을로 선정되었다. 2008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주민

간담회 2회, 주민설명회 5회, 선진지견학 2회, 용역설계보고 1회 등을 개최하고, 2008년 10월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승인, 재해환경검토, 시설부지군계획관리지구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다. 이 후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년간 총사업비 12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했다. 시설물 설치를 위해 주민자율 공동기금 1억원을 조성하여 건축부지 6,605㎡를 매입하고 체험시설 부지는 1,514㎡를 기부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부지를 확보하였다. 주요시설은 산촌문화체험관 1동, 산약초방 3동, 약바람동 3동, 한방산림욕장 1개소, 모노레일 1식, 기타 부대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산촌문회체험관



산약초방



약바람방



한방산림욕장



모노레일

◈ 타부처 연계사업 추진으로 사업내실화



동굴체험시설

시설물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와 부대시설, 운영용품 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 의지로 타 부처의 지원을 받아 연계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소관 명품 테마로드사업비 5억원을 유치하였다. 이를 통해 동굴체험시설, 테마등산로 설치, 특산물판매장 등을 조성하였다. 또한 경상북도 시범사업인 자연회귀마을조성 사업비 3억4,000만원을 유치해 특색 있는 건강 체험방 3동, 황토찜질방 1동을 보완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했으며, 산림소득사업으로 산양삼, 더덕, 산도라지, 참나물 등 재배단지 13ha를 조성하였다.


테마등산로


특산물판매장


산림소득사업

◈ 웰빙, 체류형 생태체험마을로 변모한 석산리 마을

석산리 산촌마을의 주제는 산촌문화체험, 약바람체험, 건강마을체험으로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산촌문화체험은 숙박과 갖가지 체험활동이 이루어진다. 산촌문화체험관은 세미나실 1실, 문화체험관 2실로 구분되며 세마나실은 30명, 체험관은 10명과 6명이 수용가능하다. 체험프로그램은 모노레일(1.8km 약1시간 소요), 폐광산 동굴, 산림욕, 표고버섯 및 산약초 재배지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산약초방 3동, 별자리방 3동이 있으며, 황토찜질방과 여름에는 냉풍 약바람방, 야외 물놀이장 이용이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건강체험은 산약초 재배지와 석산한약방 체험, 두충나무 산림욕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산리 산촌마을은 체류형 숙박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11년도 숙박 및 체험객수는 6,000명으로 숙박소득 2,800만원, 체험 및 음식판매 등 4,700만원이며,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임산물은 석산리 홈페이지를 통해 전량 판매되고 있다.

또한 석산리 약바람 산촌마을은 KBS 6시 내 고향, VJ특공대, 대구MBC 특별한 저녁 생생오늘, TBC 생방송투데이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됨으로써 더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 산촌마을 추진 특징 및 주민화합으로 이루어낸 성과

석산리 산촌마을의 사업추진 특징은 웰빙 체류형 마을조성 및 생산기반조성사업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사업추진위원회인 「석산리 산촌마을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영농조합법인 석산 약바람 산촌마을」 법인을 설립하여 산촌마을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

산림청 타사업과 경북도 자연회귀마을, 문화체육관광부소관 명품 테마로드사업 등 타부처 사업을 유치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내실화를 기했으며, 부지확보와 숙박시설 운영에 따른 주방용품 확보 등 주민 자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자발적인 자금 부담과 주민공동 노력부담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다.

3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된 석산리 마을은 자연부락별 사업 분배 및 기득권 다

툼으로 사업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었고 비참여자의 민원제기, 주민 갈등을 부추겼으나 개별방문, 주민간담회 및 사업설명회를 통한 적극적인 설득과 사업의 취지를 이해시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였다. 산촌마을 조성은 주민 단결 및 애향심을 고취시켰으며 사업의 내실화와 이용객 증가로 주민소득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고, 각종 언론매체에서 앞 다투어 보도 및 홍보 방송을 하면서 산촌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머물고 싶은 웰빙, 체류형 산촌마을로 자리 잡았다.

*** 표고버섯**(*Lentinula edodes* (Berk.) Pegler)

표고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오랫동안 식용되어 온 버섯이다. 표고는 담자균아문 주름버섯목에 속하고, 분류체계에 있어 표고에 대해 Singer는 구멍장이버섯과 Pegler는 송이과에 포함시켰지만, 최근에는 분류체계가 또 바뀌어 낙엽버섯과(Marasmiaceae) 표고속(*Lentinula*)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고는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등 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를 잇는 지역과 서쪽으로는 부탄, 네팔, 인도의 히말라야 지역까지 분포되고 있다. 표고재배는 중국에서 AD 100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당시의 재배법은 나무에 상처내고 두드리는 '충격 재배법' 형태였다. 약 400~500년 후인 15세기 무렵 일본에 이와 같은 재배법이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것으로 보이며, 아쉽게도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표고재배 기록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포함하여 남부지방에서 주로 표고가 생산된 기록들이 조선시대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표고재배법이 전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고는 불로초(영지)와 더불어 많은 의약적 특성으로 지니고 있고, 저렴한 가격에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건강식품으로는 으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표고는 항종양, 혈압조절, 비만억제, 항당뇨, 면역조절, 간장보호, 생식력 증진 등 매우 다양한 순기능이 알려져 있어 웰빙에 걸 맞는 식품이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 치 :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 인 구 : 170명(남자 92명, 여자 78명)
  · 가 구 : 82호(농가 80호, 비농가 2호)
  · 면 적 : 877ha(산림 822ha, 농지 39ha, 기타 16ha)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 소관이며 시장 · 군수
- 사업지원
  · 생활환경개선 : 안내시설, 오수정화시설 등
  · 산촌녹색체험시설 : 산림문화체험관, 산약초방, 약바람방, 모노레일, 한방산림욕장 등
  · 마을기획 및 운영 : 홈페이지 구축, 리더 및 주민교육
- 사업기간 : 2008~2010년(2008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09~2010년 사업시행)
- 사 업 비 : 12억원

왕피천계곡 따라 금강소나무가 아름다운 굴구지 산촌마을

◈ 굴구지 산촌마을 연락처

- 울진군청 산림녹지과(☎ 054-789-6831)
-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 3리
- 이　　장(☎ 010-4134-0565),　운영위원장(☎ 010-2066-4395)
- 홈페이지 : www.gulgugi.co.kr

◈ 왕피천 아홉 굽이를 돌아 만난 아름다운 굴구지 산촌마을

굴구지 산촌마을은 동해로 합류하는 왕피천 하류에서 물굽이를 따라 내륙으로 아홉 고개를 넘어가야 비로소 마을이 있다 하여 예부터 구고동, 굴구지로 불렸다.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된 탑이 있다하여 이름 붙여진 탑동과 원심, 상천 이 세 개의 자연마을이 울진군 근남면 구산 3리라는 1개의 행정리에 편입된 마을이다.



왕피천　굴구지 산촌마을 전경

왕피천 계곡을 따라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금강소나무숲이 울창하고 이따금 만나는 자동차 외에는 버스도 들어가지 않아, 여행자들은 벌써 낯선 설레임과 해방감을 느낀다 한다. 마을은 남수산과 칠성봉을 바라보는 양지바른 곳에 농가와 농지, 쉼터가 왕피천을 끼고 초승달을 이루는 형태다. 모든 농사는 유기농법으로 짓기 때문에 논밭은 우렁이와 메뚜기를 잡으러 다니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가끔 노루가 풀을 뜯으러 내려오기도 한다.

6쪽마늘, 태양초, 감자, 옥수수, 콩, 메밀, 배추 같은 밭작물은 워낙 맛이 좋고 품질이 뛰어나 수확철이면 도시인들이 직접 산지에 와서 구입도 하고 예약구매도 한다. 가을철 마을의 산에서 대량 생산되는 송이는 소나무 숲에서만 자라고 재배가 되지 않는 희소성과 독특한 풍미로 인해 고가에 거래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소득을 안겨 준다.

우리나라 최대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왕피천은 영양군 수비분지에서 발원하여 울진군 왕피리와 구산리를 거쳐 동해로 유입되는 하천이다. 1급수에만 서식하는 버들치를 비롯하여 연어, 황어, 은어 등 어종이 풍부하며, 산양, 수달, 사향노루 등의 다양한 멸종위기동물과 산작약, 노랑무늬붓꽃 등의 멸종위기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왕피천은 발원 후 경사가 급한 동쪽사면으로 유입되면서 하천의 양안이 하방침식에 의하여 대칭적으로 깊은 골짜기를 이뤄 계곡이 깊고 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

니라, 일부 구간은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여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왕피천은 오랫동안 굴구지마을을 오지로 남겨두었지만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마을에 반전을 가져다주었다.

굴구지 산촌마을은 7번 국도를 달리다 성류굴교차로(북쪽)나 금매교차로(남쪽)에서 내려, 갈림길마다 왕피천 아홉굽이 굴구지 산촌마을 이정표를 따라 오면 된다.

◈ 왕피천의 반전, 오지마을의 질곡에서 블루오션으로

2007년 산촌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을주민들과 울진군청이 합의한 개발원칙은 마을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족한 휴양시설을 조성하자는 것이었다. 마을주민들은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마을 진입도로 확장과 같은 기반시설 투자가 생활의 불편을 다소 해소하겠지만 그보다는 대대로 지켜온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다.



마을 언덕에 자리한 산촌펜션

굴구지 산촌마을은 해마다 30,000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올 만큼 관광자원이 풍부했지만 이를 주민소득으로 연결할 관광시설이 없었다. 무엇보다 마땅한 숙박시설이 없었다. 산촌펜션을 짓기 위해 마을공동명의의 토지를 물색하였지만 더 좋은 전망의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마을주민들은 굴구지 산촌마을회를 조직하여 가구(24가구-100만원/가구)마다 공동투자를 하여 마을언덕에 새로운 땅 1,000평을 사들였다. 3,300㎡의 부지에는 총 3동 7실의 산촌펜션을 건립하였다. 객실은 방마다 크기와 구조를 달리하여 동호회모임, 가족여행 등 이용자들의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펜션 내에는 전통 구들장방식의 황토찜질방도 지어 펜션 이용자라면 누구라도 스스로 장작불을 때어 고향 온돌방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펜션의 황토찜질방의 부뚜막

펜션과 마을길, 왕피천 제방과 임도로 연결된 길에는 토종복숭아와 살구, 산수유를 심어 봄이면 동요 “고향의 봄” 노랫말처럼,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리인 동네’가 된다. 마을에 있던 연못도 정비하여 연꽃과 수련을 심고 주위에는 단풍나무 그늘아래 정자를 지어 마을주민들이 농사일로 흘린 땀을 식히며 농주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쉼터로 만들었다. 펜션을 돌아가면 대나무 밭이 나오는데 그 길 끝에 야생화 밭을 만들어 수선화, 감국, 창포 같은 우리 꽃을 마을이 내려 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

에서 한적하게 감상할 수 있다.

굴구지마을은 왕피천과 금강소나무숲으로 인해 산악 레포츠의 천국이다. 마을의 도로사정은 좋지 않지만 임도는 발달하여, 마을 뒤로 난 구산임도는 금강소나무숲길 사이로 4.4㎞가 개설되어 있다. 이 임도는 근남면 수곡임도와 서면 왕피리 임도로 연결되어 있는데 MTB를 즐기는 사람들은 자기 페이스에 맞게 다양한 코스를 탈 수 있다. 임도가 시작되는 마을 뒷산에는 금강소나무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피톤치드가 풍부한 숲을 산책하거나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하였다.

◈ 오직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물길따라 걷는 사색여행 왕피천 트레킹.

우리나라 최대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이자 마지막 남은 오지의 물길 왕피천을 따라가는 트레킹. 버스도 다니지 않은 마을에서 출발하는 왕피천 트레킹은 자동차나 그 어떤 기계소리도 없는 오직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에 제 발자국소리만 더하는 적막강산 사색의 물길이다.


왕피천에 놓인 징검다리

상류인 서면 속사마을과 하류인 굴구지마을 사이의 계곡 물길을 따라가는 왕피천 트레킹은 속사마을에서 출발해 굴구지마을로 내려오는 편도코스(물길 7㎞, 2시간30분소요)와 굴구지마을에서 출발해 속사마을까지 올랐다가 다시 굴구지마을로 돌아오는 왕복코스가 있다. 굴구지마을에서 출발하는 왕복코스는 계곡을 오를 때와 내릴 때 서로 다른 풍경을 대할 수 있는 왕피천 트레킹의 진수로 굴구지 마을입구 청암정에서 출발하면 이심소, 부채바위, 무리이폭포, 용소, 학소대 등 곳곳에 숨은 원시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금강소나무 치유의 숲

등산을 즐기는 이라면 펜션 뒤쪽에서 출발하여 마을 뒷산을 돌아오는 송무재등산로(5.9㎞, 3시간소요), 마을 앞산 일곱 개의 봉우리를 타는 칠성봉등산로(1.7㎞, 1시간 소요), 조선중기 유명한 지리학자인 격암 남사고 선생이 이 산기슭에서 공부했다는 전설이 있는 남수산등산로(2.4㎞, 2시간30분소요)를 이용할 수 있다.

◆ 굴구지 마을사람들, 축제를 열다!

산촌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마을사람들은 굴구지산촌마을회를 조직해 가구마다 균등하게 출자금을 내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선진마을을 견학하고 마을발전을 위한 고민을 함께 하면서 주민들 간의 해묵은 반목을 조금씩 해소해 나갔다. 작목

반을 구성해 공동경작 밭을 일구어 여름에는 옥수수를 심어 관광객들에게 옥수수 따기 체험행사를 하고, 가을에는 배추를 수확해 시내의 대형식당이나 수요처에 납품했다.

마을사람들은 더 나아가 굴구지마을을 알릴 수 있는 굴구지만의 축제를 기획하였다. 굴구지 마을사람들은 예로부터 대나무에 미끼를 달아 왕피천 냇가에서 낚시를 하고 잡은 피라미로 매운탕을 끓여 먹으며 더위를 식히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를 테마로 도시인들과 시골사람들이 다 같이 자연 속에서 즐기는 산골마을 작은 축제를 연 것이다. 마을 청년회원들은 스스로 축제 프로모션을 하여 후원금을 마련하고 부녀회원들은 유기농산물로 음식을 장만하고 노인회원들은 전통놀이를 재현하여 2008년 6월 드디어 제1회 왕피천피래미축제를 개최하였다.


왕피천 피래미축제

마을 앞 왕피천을 징검다리로 건너고, 대나무로 피라미낚시를 하고 반도 하나만 들고 첨벙거리며 은어를 잡은 축제. 아이들은 종일 물장구를 치고 모래성을 쌓으며 해가는 줄 모르고 어른들은 차가운 냇물에 담가 둔 술독에서 막걸리를 떠먹으며 한가로이 낮잠을 즐기는 축제! 왕피천피래미축제는 대박이 났다. 도시인들은 관공서가 주도하는 전시행사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축제가 아니라, 이 소박한 촌마을축제를 즐기기 위해 먼 길을 자동차를 몰아 고불고불한 산길을 달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였다. 3년간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축제에 선정되기도 한 왕피천피래미축제는 2012년 6월 제5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모래성을 쌓는 아이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하며 굴구지마을 사람들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으면서 마을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았다. 공동투자를 하며 구성된 굴구지 산촌마을회는 연말이면 정산을 하여 이익을 공동 분배하는데 굴구지 사람들은 이익분배보다는 재투자를 선택하여 펜션의 시설을 보완하고, 축제를 위한 준비물을 사들였다. 이는 마을을 더욱 윤택하게 하여 사업 시작 전 40가구 73명이던 마을인구도 꾸준히 늘어 지금은 47가구 78명이 사는 다시 살고 싶은 마을이 되었다.

왕피천 아홉굽이 굴구지 산촌마을. 원시의 자연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산촌마을에서 깊은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왕피천이 준 오지마을의 불편을 천혜의 휴양지로 바꾼 굴구지 산촌마을로 오라.

*** 금강소나무** (geumgang pine, *Pinus densiflora f. erecta uyeki*) : 소나무과

우리나라 조상들이 소나무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땅에 궁궐재, 건축재나 조선재로 사용할 수 있는 목재의 종류는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지 않다. 소나무는 습기에 강한 송진이 함유되어 있어서 잘 썩지 않고, 기둥이나 보로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물리적으로도 강하다. 옛날에는 소나무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소금생산의 땔감으로 이용했다.

우리나라 소나무는 생육지역에 따라 수형의 형질변이가 큰 특징을 지니고 있다. 금강소나무는 나무가 곧고 장쾌하게 자라는 당당함과 겉모습의 아름다움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무엇보다도 소나무 중의 소나무이기 때문에 금강소나무라 부른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3리
  - 인구 : 73명(남자 35명, 여자 38명)
  - 가구 : 40호(농가 30호, 비농가 10호)
  - 면적 : 1,649ha(산림 1,526ha, 농지 44ha, 기타 79ha)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 소관이며 시장·군수
- 사업지원
  - 생활환경개선 : 주민복지센터, 돌담길정비, 향토꽃길조성, 정보화 시설 등
  - 산촌녹색체험시설 : 산촌체험센터, 향토찜질방, 등산로·야영장 정비 등
  - 생산기반조성 : 마을공동구판장, 저온저장고
  - 마을기획 및 운영 : 마을안내시설, 홈페이지 구축, 리더 및 주민교육,
- 사업기간 : 2007～2009년(2007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08～2009년 사업시행)
- 사업비 : 10억원

지리산 둘레길과 아름다운 자연을 통한 휴양! 송전 산촌마을

◈ 송전리 산촌마을 연락처

- 함양군청 산림녹지과(☎ 055-960-5173, 4043)
- 위　　치 :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송전리
- 마　　을(☎ 055-962-5989), 운영매니저(☎ 019-463-5989)
- 홈페이지 : www.songjunri.com, E-mail : kkw5989@naver.com

◈ 지리산골짜기 전설과 맑은 물이 사철(四季) 흐르는 아름다운 송전마을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송전리 송전(松田) 산촌마을은 용재로 쓰일 좋은 소나무가 많은 곳 이라는 유래를 가지고 있으며, 5개의 자연마을(세동(細洞), 모전(茅田), 송대(松大), 고양터, 마적)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전에는 다리 두개로만 연결되던 심심산골로 지리산 산촌의 진경을 어느 곳보다 잘 간직하고 있은 곳이다.



지리산 송전마을 전경

세동이라고 불리우는 송전 산촌마을은 과거 창호지 생산으로 유명한 곳으로 지리산 자락에 위치하여 겹겹의 산으로 둘러싸여 계곡을 따라 농경지가 산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산촌마을로서 해발 200~4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취나물, 고사리, 산도라지, 산더덕, 고로쇠수액, 토종꿀 등 산채가 많이 나오며, 여름철에는 계곡이 맑고 깨끗한 물이 풍부하게 흘러내리고 있다.

마을의 뒤로는 지리산 능선이 와불(누워있는 부처) 형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신비감을 자아내고 계곡이 깊어 6.25전쟁 이후 마지막 빨치산으로 활동했던 "정순덕" 이 은신처로 사용했다는 선녀골, 점필재 김종직선생이 경치가 좋아 수차례 다녀가셨다는 독바위,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문수사, 비구니스님의 수행도량인 견불사 등이 있다.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에 목현리의 구송이 유명하며 또한, 마을 앞에는 지리산에서 흘러내리는 임천강과 강 하류에는 용유담(화강암으로 된 기암괴석이 첩첩이 쌓인 봉우리모양으로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상)이 있다. 용유담은 마적도사와 마적도사 심부름으로 갔다가 지쳐서 죽은 나귀바위와 장기판,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는 세진대, 500년 된 소나무의 마적송 등이 수많은 전설이 간직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구룡정 정자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이다

주변 체험꺼리는 임천강 레프팅 출발지인 버끔소가 있고 KBS 2TV 1박2일 촬영으로 유명한 지리산둘레길 제4코스 구간(의중~용유담)도 유명세를 타고 있어 방

문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아름다운 경관과 산림자원을 소득화하기 위한 산촌개발사업의 추진



송전 산촌마을 안내도

지리산 자락 아래 위치한 송전마을은 총 가구 수 72가구로 119명이 거주하며 대부분이 농림업에 종사하고 있다. 마을주민의 연령분포는 50세 이하가 49명(41%), 50~64세가 43명(38%), 65세 이상이 27명(23%)로 구성되어 다른 산촌마을보다는 비교적 젊은 층이 분포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에서 마을회관만 있을 뿐 다른 시설은 전무하다.

마을은 2004년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름다운 경관과 산림문화를 휴양자원화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원을 개발(산채재배 및 고로쇠식재 등)하여 마을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상의 실현을 시작하였다. 사업이 시작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원했던 마을을 방문하는 도시민들을 위한 공동주차장, 마을정자(공동쉼터), 마을안길 포장,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과 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건조 및 판매를 위한 시설인 공동건조장, 농산물 저장창고, 특산물 판매장 등과 휴양시설과 같은 내용은 사업내용으로 구체화되었다. 사업은 산림소득지구(마을기반시설지구, 생산기반소득지구, 단기임산물재배지구), 산림휴양지구(산림탐방지구, 산림경영지구) 등 2개의 지구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송전마을 산림휴양관 전경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 진입로와 배수로를 정비하였고 재해방지야계사방공사와 5개의 자연부락을 연결하기 위한 마을안길 보수와 마적송 연결도로를 신설하였으며, 마을광장 확장 및 자연발효화장실과 한식정자, 종합안내판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다.



최우수 산촌생태마을 상패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2층(60평) 건물인 임산소득기반센터를 조성하였고 다목적 창고, 꿀농축기,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상수도공사 등과 같은 소득기반시설을 설치하였다. 또한 산림자원활용 소득제고를 위해 마을 내와 뒷산에 고로쇠 1,000주를 식재하였고 산도라지 및 산더덕 파종하여 소득생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모전부락에 소득원도로를 개설하였다.

2006년 사업이 완료되고 마을개발위원회와 마을주

민들은 열심히 마을을 운영·관리하여 2008년 송전 산촌마을은 산림청이 주최한 산촌마을 조성평가에서 조성부분 최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추가 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았다.

◈ 지리산 깊은 골에서 생산된 청정 농·임산물 판매 및 휴양소 운영

휴천면 송전마을은 지리산 자락(해발 400~500m)에 위치하며 전체적으로 고도가 높은 지역으로 주요 임상은 하단부는 소나무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중·상단부는 대부분 낙엽, 활엽수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 일부분이 조림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부분 천연림으로 조성되어 있다 상층부 수종은 상수리, 신갈나무 등이고 하층부 관목류로는 물푸레나무, 산벚나무, 고광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초본식생은 곰취, 취나물, 고사리, 산양삼 등 약초가 대량 자생하고 있다



농·임산물 판매장

마을 앞으로 지리산 자락에서 발원한 임천강이 흐르며 사계절 내 수량이 풍부하고 청정한 최고의 맑은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어 여름에 임천강 레프팅 등 가족단위 휴양 및 체험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농·임산물 창고 및 곶감덕장

마을의 주 생산소득은 약간의 친환경 벼농사를 짓지만 그 외에도 배추, 콩, 고추, 표고버섯, 산나물, 수액채취 등을 하고 있으며 특산임산물인 고로쇠수액, 송이, 산나물, 더덕, 오미자, 호두, 한봉 등 유명하여 외지인에게 전량이 판매되고 있다



산촌마을 직거래 홍보물

특히 지리산 자락에서 채취한 산나물은 방문객에게 인기가 높아 매년 판매액이 증가되고 있고 산촌마을 조성시 식재한 고로쇠나무의 수액채취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확되며 연간소득액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최근 KBS의 1박2일 촬영 후 지리산 둘레길을 방문하는 단체가 증가되고 있어 연간 방문객수 15,000~20,000명, 매출액은 13,000~15,000만원 정도의 높은 소득으로 운영매니저와 주민들의 단합으로 모범적인 체험마을 운영하고 있다

◈ 대나무 숲과 연계한 아토피 치료 침질방과 지리산 산굴체험

송전 산촌마을은 함양 산나물 축제, 산삼축제, 물레방아골 축제 등 지역의 축제

와 연계하여 관광객유치와 소득을 제고하고 있으며 마을에서는 봄에 나물캐기, 개나리 사랑, 벗집 공예체험, 겨울에는 스키점프 등과 같은 체험 등으로 산촌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아토피 치료 황토 찜질방

또한, 감나무 5,000주와 고로쇠나무 10,000주를 식재하여 도시민들에게 유익한 산림휴양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산촌개발 사업의 진정한 사업효과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던 마을에 방문객들이 찾아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준 것이 최고의 성과” 라고 말한다. 산림휴양관을 방문한 많은 방문객들은 마을이 공기 맑고, 인심 좋고, 조용하고, 볼거리 많은 마을이라고 송전마을을 칭찬한다.

지리산 둘레길이 지나가는 송전 산촌마을은 도시민들의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으로 아토피 치료를 할 수 있는 황토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리산 깊은 계곡의 청정한 기운으로 도시생활에 찌든 도시민들에게 자연에서 정신적인 휴식과 재충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며, 휴양소에 제공하는 지리산 골짜기에서 생산된 산골밥상으로 숙식은 물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환경의 중요성을 소중히 생각하는 송전 산촌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찾는 도시민들이 모두 자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줄 유산의 하나로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송전 산촌마을의 방문을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마을주민들의 한결같은 이야기 한다.

송전 산촌마을은 산길을 걷는 맛을 아는 도시민들에게 쉼터가 되고 다양한 형태로 소득을 제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마을주민들에게는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나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 중이다.

*** 고로쇠나무**(*Acer pictum subsp.mono(Maxim.)* Ohashi) : 단풍나무과

낙엽활엽교목으로 수형은 원형 또는 타원형이며 5월에 어린가지 끝의 산방꽃차례에서 연노란색의 꽃이 피고 10월에 시과열매의 양쪽 날개는 八자로 벌어진다. 나무껍질은 회청색으로 평활하지만 장령목이 되면서 세로로 골 이져 갈라지고 어린가지는 회황색으로 얕게 갈라진다.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고로쇠나무에서 채취(시기:2～4월)하는 고로쇠 수액은 일반 천연수에 비해 마그네슘, 칼슘 함량이 30~40배가 높고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골다공증, 관절염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피부미용, 변비예방, 숙취해소 등 각종 질병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송전리
  - 인구 : 119명(남자 47명, 여자 72명)
  - 가구 : 72호(농가 69호, 비농가 4호)
  - 면적 : 801ha(산림 648ha, 농지 117ha, 기타 36ha)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 소관이며 함양군수
- 사업지원
  - 생활환경개선 : 진입로정비, 자연발효 화장실, 마을광장 확장, 한식정자 등
  - 생산기반조성 : 임산물 소득기반센터
    (소득기반시설 설치) 다목적 창고, 농·임산물 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소득생산단지 조성) 생산단지부지 조성, 고로쇠식재, 산도라지·산더덕 파종
- 사업기간 : 2004～2006년(2004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05～2006년 사업시행)
- 사업비 : 14억원

가야산 자락 빨간 보리수 열매가 아름다운 각사 보리수 산촌마을

◈ 야천리 각사 보리수 산촌마을 연락처

- 합천군청 산림과 녹지조경담당(☎ 055-930-3543)
- 위　　치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 각사마을
- 산촌마을(☎ 055-931-0900), 운영매니저(☎ 016-534-4274)
- 홈페이지 : www.gaksa.or.kr　E-mail : kno4274@naver.com

◈ 해인사 인근 및 천해의 자연조건에 위치한 각사보리수(뽈똥)마을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 각사 보리수마을은 팔만대장경으로 유명한 해인사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산촌마을이다. 옛날에 '각사'라고 불리는 절이 마을에 있어 각사마을로 불리고 있다. 또한, 마을전체에 보리수나무가 심어져 있어 각사 보리수마을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경상도 방언으로 보리수 열매를 뽈똥이라고 불려 각사 뽈똥마을이라고도 불린다.



각사 보리수 산촌마을 전경

각사 보리수 산촌마을 뒤에는 아름다운 전경의 가야산이 있고 앞에는 맑은 시냇물인 가야천이 흐른다. 가야천은 여름이면 각사 보리수 산촌마을의 물놀이 체험장으로 바뀐다. 마을의 수계인 가야천은 낙동강수계로 안림천에서 흘러 회천으로 합류하여 낙동강으로 흐르고 있다. 가야천은 피라미와 망태(동사리의 경상도 방언), 고디(다슬기의 경상도 방언) 등이 많이 잡히는 1급수이다.

야천리는 단일자연 부락으로 58가구 15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의 주요 소득원은 고추, 고구마, 감자, 딸기, 토마토, 옥수수 등의 농산물과 호도, 밤 등의 임산물이다. 보리수 산촌마을과 연계가 가능한 관광자원으로는 팔만대장경으로 유명한 해인사, 가야산 국립공원, 황매산, 홍류동 계곡, 합천댐, 합천영상테마파크 등이 있어 역사, 문화, 관광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 보리수나무와 산림경관자원을 활용한 산촌개발 사업 실행

각사마을의 산림경관 식생유형은 침엽수이며, 식물군락으로는 소나무림, 소나무-굴참나무 등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마을의 주요 생산물은 보리수, 취나물, 고사리, 두릅, 도라지, 더덕이며 이외에도 곰취, 헛개나무, 엄나무, 가시오가피, 참죽나무, 표고, 장뇌 떫은 감, 밤, 곶감 등이 재배되고 있으나, 주요 소득원은 보리수로서 마을 전체적으로 보리수나무를 식재하여 보리수 꽃과 열매가 맺힐 때의 시각

적인 효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관자원을 창출함으로써 마을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전국 제1호 보리수마을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보리수나무 열매-뽈똥

보리수나무를 이용하여 보리수 엑기스, 보리수 잼, 보리수 차, 보리수 쥬스, 보리수 술, 보리수 염색, 보리수환 등의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보급 확대와 경관자원의 상품화에도 매진하고 있다

2008년 마을개발을 위한 산촌개발 사업의 계획은 마을 여건에 맞는 보리수, 산나물, 산약초 등 산림경관자원의 소득개발과 산림문화체험 등을 핵심 테마로 결정하였다. 마을주민 62가구가 전원 참여하여 계절에 따른 다양한 체험활동, 산촌체험시설, 등 편익시설을 조성하고 보리수, 산나물, 산약초 등 지역 특산품 생산과 체험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어우러진 마을공동체 발전을 추진하였다.

산촌사업은 2009년~2010년까지 2년간 진행되었다. 산촌사업의 내용으로 설치된 주요 시설은 생활환경개선으로 산촌개발사업 안내판 설치와 마을이미지 조성을 위한 보리수나무를 경관식재 하였다. 생산소득기반으로 식재된 보리수나무 20,000주는 향후 소득 작목으로 활용될 것이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리수 작목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리수 및 기타 소득작목의 가공, 저장을 위하여 다목적 가공공장 및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였다. 산촌녹색체험시설로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회의, 세미나, 체험행사, 이벤트 등을 개최할 산촌휴양관, 생태관찰탐방로, 산림욕장, 안전시설 등을 시설하였다. 현재 마을의 운영은 각사 보리수 산촌마을 44가구가 참여하는 각사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산촌휴양관 전경

◈ 마을 경관자원과 문화 · 관광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의 추진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초기에는 주민들의 관심부족과 사업에 대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았으나 산촌개발 사업을 통한 마을발전 설명회와 여러 차례에 걸친 주민회의를 통하여 사업 참여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공동참여가 확대되었다. 홍성호 운영위원장과 김남옥 운영매니저는 당초에 산촌개발 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부지의 확보가 난항을 겪었지만, 마을 주변의 보리수나무 활용과 상품화, 마을 경관자원과 연계한 마을개발의 추진에 마을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주민들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사업추진 과정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며 투명하게 전개하는 과정에서 마을의 단결된 힘은 더욱 빛을 발휘하였다.

2010년 사업이 완료되고 마을에서는 체험객을 대상으로 보리수 열매따기, 손두부 만들기, 인절미 떡만들기, 김장김치만들기, 가마솥 밥하기, 고로쇠 수액채취 등 다양한 산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과 기반시설을 준비하였다. 또한 유·무형 문화자원 등을 발굴하여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해인사유적지 탐방, 홍류동계곡, 소리길, 정인홍선생묘 재실 탐방 등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확대 구상하였다.



인절미 떡만들기 체험

또한 마을방문 체험객을 대상으로 마을의 특산물을 활용하여 판매와 먹거리로 제공할 상품으로 특산물 토종된장, 청국장, 보리수 엑기스, 토종백숙, 산채비빔밥, 삼겹살숯불구이 등을 계절별로 다양하게 준비하였다.



보리수 열매(뽈똥)따기 체험

2011년 산촌휴양관을 이용한 이용객과 산촌체험객은 약 1,000명정도로 1,8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 그 중 시설운영비, 마을주민 인건비 등이 1,600만원이 소요되고 200만원의 순소득이 발생하여 기금으로 적립하였다. 각사 보리수 산촌마을은 2008년에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협의 팜스테이 마을로 지정이 되어 현재에는 산촌체험마을과 녹색농촌체험마을, 팜스테이마을 등을 각사 영농조합법인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다. 뽈똥열매따기 등 다양한 체험을 1일 체험으로 하여 1식을 포함하여 15,000원을 받고 있다.

◈ 마을 경관자원을 소득원으로 변화시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추진

각사 보리수 산촌마을은 2011년 5월에 개관을 하여 마을운영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현재의 마을의 관리,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부족하나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객과 체험객의 유입이 증대되고 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판매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된다. 무엇보다도 마을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운영매니저의 의지와 열의가 대단하다.



가마솥 밥하기 체험

각사 보리수 산촌마을은 마을의 단합과 안녕을 위하여 매년 정월 대보름에 달집태우기, 쥐불놀이를 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의 단합을 위해 약밥, 오곡

밥과 귀밝이술 등의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보리수나무 열매인 뽈똥을 수확하는 10월에는 마을이 활력을 띄고 마을주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일을 한다.

또한 마을 경관자원을 아름답게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모두 협력하여 경관자원을 가꾸고 있다. 각사 산촌마을은 산촌개발 사업을 통하여 이미 전국 제1의 보리수마을의 이미지를 창출하였다. 이제는 보리수나무를 이용하여 보리수엑기스, 보리수환 등의 가공식품의 개발과 홍보를 병행하여 마을주민들의 소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꽃과 열매가 맺히는 기간에는 마을에서 보리수 축제를 개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가야천 다슬기잡기 체험

각사 보리수 산촌마을은 2013년부터는 체험과 숙박을 통한 소득뿐만 아니라 산림자원에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마을의 소득 제고를 위하여 마을 공동산(20,000평)에 고사리, 더덕, 도라지 등을 제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각사 보리수 산촌마을은 산림 경관자원을 지속적으로 가꾸면서 휴양·체험객을 대상으로 마을에서 휴양을 할 수 있고 교육적인 산촌체험 프로그램의 운영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을 제고하는 아름다운 보리수 산촌마을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 보리수나무**(Autumn Elaeagnus, *Elaeagnus umbellata* Thinb.) : 보리수나무과

중국어로는 호퇴과, 일본어로는 구미과라는 부르며, 북아메리카, 동아시아, 유럽 말레이시아에 3속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1속이 자란다. 전 세계적으로 약 60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1속 6종이 3변종이 자란다. 우리나라에 자라는 보리수나무 중에 남해안 및 제주도에 나는 잎이 지지 않는 상록성 보리수나무를 보리장나무, 덩굴볼레나무, 가는잎보리장나무, 좁은잎보리장나무, 보리밥나무, 봄보리똥나무, 봄보리수나무, 녹보리똥나무, 왕볼레나무, 큰보리방나무, 볼레나무, 제주보리수나무라 부른다.

잎이 지는 보리수나무는 가시가 있고 전국 각지의 산기슭에 자란다. 잎이 지지는 않는 상록성 보리수나무는 가시가 없고 나무 내지 덩굴성 형태로 자란다. 보리수나무 열매는 예부터 기침, 가래, 천식을 치료하고 설사를 멎게 하는 데 특효가 있는 것으로 이름이 높았다. 독성 실험 결과, 모든 보리수나무는 독이 없어, 뿌리, 줄기, 잎, 열매 모두가 식용 및 약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소화불량, 골수염, 부종, 생리불순, 타박상, 치질, 관절통, 각혈, 위장병 등에 효능이 있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 각사마을
  - 인구 : 154명(남자 76명, 여자 78명)
  - 가구 : 58호(농가 53호, 비농가 5호)
  - 면적 : 300.8ha(임야 269ha, 농지 30ha, 기타 1.8ha)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 소관이며 합천시장
- 사업지원
  - 생활환경개선 : 상하수도·오폐수 처리시설 등 주민복지생활
  - 산촌체험시설 : 산촌체험관, 생태관찰탐방로, 산림욕장 등
  - 생산기반조성 : 제조시설 및 저온저장고
  - 마을기획 및 운영 : 홈페이지 구축, 리더 및 주민교육, 마을브랜드개발
- 사업기간 : 2008~2010년(2008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09~2010년 사업시행)
- 사업비 : 12.4억원

남덕유산 자락 산 높고 물 맑은 달빛고운 월성 산촌마을

◈ 월성리 달빛고운 산촌마을 연락처

- 거창군청 산림녹지과(☎ 055-940-3481)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 추진위원장(☎ 011-9640-4725), 사무장(☎ 010-7444-7890)
- 홈페이지 : www.농촌체험학교.kr E-mail : bamdaia@hanmail.net

◈ 남덕유산 자락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광을 지닌 달빛고운 월성 산촌마을

달빛고운 월성 산촌마을은 국토의 남단에서 개발되지 않은 태초의 자연을 간직한 산간지형에 부락이 형성된 전형적인 산촌마을이다. 남덕유산지류의 월성계곡과 자연적으로 생성된 마을에서 산의 언덕을 농토로 개간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마을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 뒤의 언덕은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삶의 아름다움을 사계절 즐길 수 있다.



달빛고운 월성마을

월성 산촌마을은 마을 뒤로는 남덕유산이 위치하고 앞쪽에는 금원산이 치솟아 있다. 마을이름의 유래는 달이 장군바위 산마루 위에서 떠서 마을 앞 성삼봉(城三峰)을 비춘다하여 월성(月城)이라고 하였는데 월봉산의 옛 이름인 월성산에서 얻어진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당시 마을의 이름은 월성(月星)으로 바뀌었다. 월성으로 바꿀 때 햇빛이 잘 비치는 양지쪽에 자리잡고 있는 마을이라 하여 양지마을이라고 불렀다.

마을에는 유교문화의 꽃인 마을의 제실(덕남제, 노천제), 1905년 을사조약에 항거해 선비들의 의병활동에 중심지였던 이곳에 그분들을 기리기 위한 월성 의거비와 매년 3월1일 그분들을 위한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 마을주민들의 유교문화는 아직까지 마을을 유지해오는 정신적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월성숲 교육장

마을 앞에는 작은 폭포와 여울계곡 옆 키 큰 나무들로 우거진 월성 숲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어 물놀이 후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잘 가꾸어진 돌담과 화단, 아름드리 정자나무 등 마을 안에 작은 볼거리와 쉼터는 방문하시는 분들의 몸과 마을은 즐겁게 해준다.

달빛고운 월성마을은 해발 700m의 남덕유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 이러한 고랭지에서 자란 친환경 생산물인 더덕, 표고, 사과, 딸기 등의 생산물을 도시민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기억에 남는 산촌체험 마을이다.

◈ 마을환경 개선과 산림소득 제고를 위한 산촌개발 사업의 추진



월성 산촌마을 안내판

월성 산촌마을은 산림청의 산촌개발 사업이 시작하는 해인 1995년에 시범사업으로 산촌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1995년에 사업설계에 착수하고 1996년~1997년까지 2년간 22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생활환경개선으로 농로포장, 마을안길 정비, 진입도로, 상수도, 배수로 등을 정비하고 가로등, 팔각 정자를 설치하고 휴양의 숲을 조성하였다. 생산소득기반조성으로 저온저장고, 농산물 건조장을 설치하였고 주택개량과 단기소득사업으로 표고버섯재배, 더덕재배, 흑염소·멧돼지 사육, 관상수 재배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다.


팔각 정자

더덕재배는 8농가가 약 5ha의 면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다. 농로포장, 마을안길 정비, 상하수도 정비와 같은 생활한경개선에 대한 내용은 현재까지 마을 주민에게 만족도가 높다. 월성 산촌마을이 산촌개발 사업을 추진한 지 15년이 넘었고 다양한 각 부처의 마을개발 사업을 마을에서 유치·수행함으로 마을에 산촌개발사업 효과가 어떠한 지에 대한 내용도 불명확하지만 마을주민들은 산촌개발 사업으로 마을발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고 다른 부처의 다양한 사업들과 어울려 마을 발전에 시너지효과를 내었다고 말한다.

월성리 산촌마을은 총 64가구 120명이 거주하고 있다. 구역면적은 총 1,958ha로 산림이 1,741ha로 약 90%를 차지하며 농지 93ha, 기타 124ha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의 주요 소득 작목으로 고랭지 채소(무, 배추)와 더덕, 표고버섯 등을 생산하고 있다. 가구당 소득도 약 2,000만원 정도로 인근 마을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휴양의 숲과 산막

월성 산촌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농산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을 통해 도농교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 체험관광으로 우수한 농산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산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속적으로 도시민이 방문하는 테마가 있는 마을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여 왔다.

◈ 별과 달, 자연 경관자원을 활용한 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월성 산촌마을에서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은 크게 건강, 자연, 농사 음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계곡이 주는 생명력을 서바이벌 게임과 같은 건강체험 또는 계곡 물놀이 등 자연체험이란 이름으로 체험을 할 수 있고 봄철 파종을 시작으로 감자캐기, 사과 따기 등을 할 수 있는 농사체험을 사계절 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사과를 따서 사과떡을 만들고 두부를 만들고 가마솥에 밥을 짓는 음식체험도 할 수 있다.



사과 따기 수확체험

달빛고운 월성 산촌마을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서 사계절 농사체험 등 자연을 중심으로 한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을 많이 하는데 '꼬마 농부체험' 이란 제목으로 1일, 1박2일, 2박 3일 등 일정별로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봄철에는 딸기 따기를 중심으로 우렁이 방사하기, 모내기, 각종 파종 체험을 할 수 있고, 여름철에는 마을 보물찾기, 물놀이와 함께 감자 캐기와 옥수수 따기, 더덕캐기 등을 할 수 있다. 가을철에는 버섯 수확, 고구마 캐기와 밤 줍기, 사과 따기를 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황토찜질을 즐기며 삼굿구이와 고로쇠 시음 등을 할 수 있다.



버섯수확 체험

월성 산촌마을이 2011년 마을의 경관자원을 활용한 체험·숙박객의 수와 마을소득 등을 살펴보면, 마을 체험객 중 1일체험 2,595명, 숙박객 1,539명, 마을견학 202,991명 등으로 집계되었다. 마을소득액은 숙박료 1억5,172만원, 음식판매 5,952만원, 특산물판매 1억2,947만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5,417만원 등이 소득으로 계산되었다.



삼굿구이체험

달빛고운 월성 산촌마을의 경관자원과 연계한 주요 기관과의 교류 및 체험교육으로는 (주)로템, SBS이텍트, 거창도립전문대, 초·중등부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험,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달빛고운 월성 산촌마을의 홍보는 TV전원시대, 생생투데이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마을이 홍보되었다.

◈ 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의 활성화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추진

달빛고운 월성 산촌마을은 마을주민들의 단합과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과거에는 마을에서 1㎞ 떨어져 있는 당집에서 정월 초 나흘날 당산제를 올렸다.

현재는 당집을 없애고 당산제도 드리지 않고 있다. 마을에서 주관하여 얼음축제, 고로쇠축제, 메주만들기 등과 같은 마을의 이벤트를 개최 운영하고 있다.

달빛고운 월성 산촌마을은 월성농촌체험학교를 통하여 농・산촌체험, 휴양, 친환경먹거리 제공을 기반으로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매개체 역할을 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마을이 잘 보전된 자연과 농경자원, 전통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확충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민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마을의 다각적인 소득기반 제안, 인구유입 방안 마련 등과 같은 마을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회복 등 총체적인 농촌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산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중・장기적인 마을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사과나무**(Apple, *Malus pumila* mill.) : 장미과 배나무아과

사과나무는 가장 널리 재배되는 과수이며, 사과는 장미과(薔薇科 Rosaceae)에 속하며 25종(種)으로 이루어진 사과나무속(—屬 Malus) 식물의 열매로서 이과(梨果)에 속하는데 다 익은 씨방과 주위 조직은 둘 다 살이 많아져 먹을 수 있다. 대부분의 변종에서 꽃은 딴꽃가루받이를 통해서 수정한다. 심는 품종과 생육환경에 따라 크기·모양·색깔·신맛 등이 다양하지만, 보통 모양이 둥글고 지름이 50～100㎜이며 붉은색이나 노란색에 가깝다.

사과나무는 휴면기간이 매우 길어야 하기 때문에 겨울철이 뚜렷한 남·북반구의 위도 30～60℃ 사이에서 잘 자란다. 토양은 물이 잘 빠져야 하며 땅이 기름지지 못하면 비료를 주어야 한다. 완만한 고개나 비탈진 언덕이 사과나무가 자라기에 좋은데, 이런 지역에서는 봄철 서리가 내리는 밤에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계곡 아래로 잘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꽃이 피거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때에 입기 쉬운 냉해가 방지된다. 원하는 품종의 접지(接枝)들은, 추위에 잘 견디며 묘목장에서 18개월 정도 자란 어린 나무에 흔히 접붙이고 1년이나 2년 뒤에 과수원에 옮겨 심는다. 어느 정도 사과가 열리기까지는 6～8년이 걸리는데, 이 동안은 잡초 등 경쟁식물과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는 정도의 관리만 해도 된다.

*** 산촌개발사업 개요**

- 사업구역
  ·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 인구 : 120명(남자 55명, 여자 65명)
  · 가구 : 64호(농가 60호, 비농가 4호)
  · 면적 : 1,958ha(임야 1,741ha, 농지 93ha, 기타 124ha)
-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 소관이며 거창군수
- 사업지원
  · 생활환경개선 : 마을안길정비, 진입도로, 상수도, 배수로 정비, 팔각정자
  마을회관, 주택개량, 가로등, 식재공사(가로수 수목 등)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 약용작물, 관상수재배
  · 생산기반조성 : 저온저장고, 농·임산물건조장
- 사업기간 : 1995～1997년(1995년 기본 및 실시설계, 1996～1997년 사업시행)
- 사업비 : 22.4억원